발 간 등 록 번 호
2025-16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함께 잇는 성장

영아♥유아 이음교육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GYEONGGIDO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함께 잇는 성장

영아♥유아 이음교육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GYEONGGIDO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인사말

영아에서 유아로의 전이는 한 아이의 삶에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일상 속 경험이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발달적 연속성과 교육적 연결성을 고려한 이음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책자는 현장의 교직원들이 영아기 경험을 유아기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관련 이론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담아, 교사들의 실천적 고민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발달을 존중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의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가정, 사회가 협력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이번 연구자료가 현장의 많은 교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나아가 더 질 높은 이음교육을 구현하는 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며 자료 발간에 애써주신 이혜경교수님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홍 원 자**

CONTENTS

PART 01

Ⅰ 영아-유아 이음교육 이해 ····· 04

1.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배경 ····· 05
2.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의미 ····· 07
3.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중요성 ····· 08
4.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내용 ····· 10
5.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방법 ····· 17
6.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실행 ····· 18
7. 영아-유아 이음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 20



PART 02

Ⅱ 영아-유아 이음교육 사례와 의미 ····· 22

1. 이음, 그 따뜻한 이끌림 ····· 23
2. '0'에서 '有'로, 배움은 흐른다 ····· 31
3. 이음, 성장의 선을 잇다 ····· 38
4. 함께 이음, 배움이 자란다 ····· 44
5. 함께해서 더 즐거운 하루 ····· 50
6. 이음아 놀자 ····· 58
7. 일상 한 조각, 이음 한 걸음 ····· 66
8.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지혜롭게 표현하며, 개별적인 존재로 존중받는 이음교육 ····· 73
9. 낮잠 시간 틈에서 나타난 형님반과의 관계 맺음 ····· 82
10. 토닥토닥 이어遊(유) : 이어주다+놀이 ····· 89
11. 차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이음교육 ····· 98
12. 3세 놀이로 이어지는 교사의 컨퍼런스 ····· 107
13. 협력 어린이집과의 이음교육 ····· 115
14. '이'제 형님처럼 생각이 '음'(움)직이며 성장해요 ····· 123
15. 이_손엔 동생이 있었고 음_~하고 불어온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 131

PART

01

영아♥유아 이음교육

이해



1. 영아-유아 이음교육 이해

비가 오면 빗방울을 만지며, 빗소리를 들으며 궁금해하던 영아들이 비를 맞으며 뛰어다니고 웅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논다. 말라가는 웅덩이에 모아진 흙으로 음식을 만들며 소꿉놀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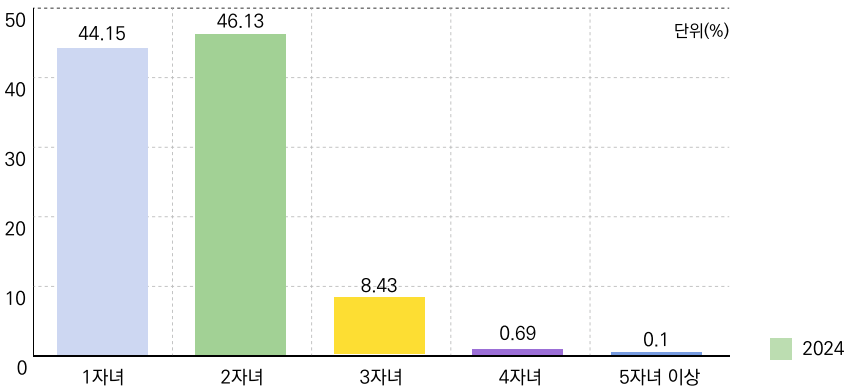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에는 어린이집 현관 아래로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을 만지며 '손바닥이 아파요', '비가 하얗게 쏟아져요'하며 비를 경험한다. 천둥소리에 무서워하는 또래나 동생에게 놀라지 말라며 등을 토닥인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은 얼마나 반복될까요? 경험은 반복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경험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평범한 일상을 매일 살아가며 한 걸음 더 내딛고 있으며, 그 한 걸음은 어제 걸었던 걸음과는 다른 걸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영아들이 이 한 걸음을 어제와 다르게, 또 어제와 다른 오늘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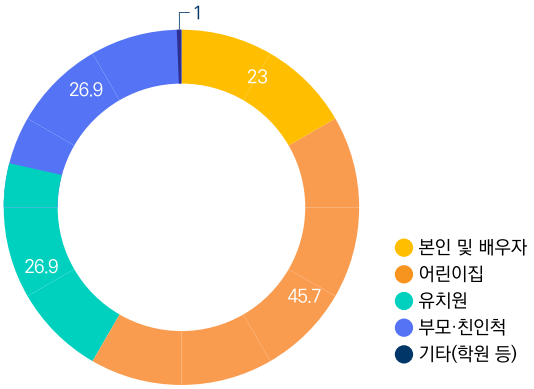
1.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배경

영아-유아 이음교육이 필요하게 된 배경은 사회적인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삶과 현대의 삶의 모습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중 가정과 영유아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정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영유아의 삶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Trijp et al, 2025).



[그림1] 국가데이터처(2025).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2024년 자녀수별 가구 수

예전에는 다자녀 가정이 많아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동네에서 여러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문화였습니다.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으며 형제자매가 공부를 할 때 옆에서 곁눈질로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놀이 모습에서도 동네에서 여러 연령이 섞여 놀이하며 놀이의 방법과 규칙, 문제해결과정과 상황에 따른 융통성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림2] 국가데이터처(2025). 2024 경기도 사회조사. 미취학아동 보육방법

그러나 현재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확대와 더불어 1자녀 가구가 증가하고(국가데이터처a, 2025)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미취학 아동의 보육방법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담당하는 비율은 23%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어린이집(45.7%)과 유치원(26.9%)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국가데이터처b, 2025). 이러한 변화로 가정과 동네 골목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또래간 놀이, 연령 간 보호와 학습의 자연스러운 경험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인발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인 발달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요? 전인발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전인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인지 정서적인 측면의 지원은 연속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육과 교육 현장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육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코 유보 통합 정책이며, 유보통합이 담고 있는 다양한 세부 과제 중 이음교육이 있습니다. 이음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배경은 이음과 반대의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음의 대립 개념은 구분, 단절, 절단, 중단, 불통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무엇이 구분되고 단절되어 왔을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구분되고 이러한 기관의 보육·교육이 단절되어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과 단절은 그 과정을 딛고 성장해야 하는 영유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고 이제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주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음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3] 이음교육의 추진 과정

교육과정적 측면에서의 이음은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서로 간의 연계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유아와 초등학교 연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슬기로운생활, 즐거운 생활 등 통합교과에 융통성을 두고 있어 '학교'와 같은 통합 교과를 통해 이음교육 실행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이음교육 추진 과정을 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중심으로 유·초 연계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3년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보, 유·초 이음교육 추진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유·보, 유·초 이음을 위한 놀이활동자료나 교사이해자료, 부모 이해자료를 차례로 발간하고 2024년에는 5세 이음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음교육 기관을 지정하거나 이음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초등과의 이음교육 뿐 아니라 영아와 유아의 이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에도 이음교육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개별 어린이집에서도 이음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이음교육이 유아와 초등학교 어린이들 간의 이음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음교육이 필요한 영아들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영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아와 유아의 이음교육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많은 실천 사례들을 만들고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2.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의미

이음교육이란 생애 교육 차원에서 연속적인 전이를 보장하기 위해 연계, 전이, 적응 과정의 이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사, 부모, 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하는 교육적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2023). 전이, 적응, 준비, 연계의 개념을 영아와 유아의 이음에 맞추어 재구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4]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2023). 유치원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이음교육 이론편:교사용안내서(재구성).

이음교육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구분이나 다니는 기관에 따른 구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단절의 경험을 줄이고 영유아의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음교육의 핵심적인 개념은 아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발달적 연속성

- 영아기와 유아기, 유아기 내에서도 다양한 발달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됩니다.
- 단절되지 않고 경험이 누적되고 확장되는 학습 과정을 강조합니다.

상호작용과 관계 중심

- 영아·유아·교사·부모·지역사회 등 모든 참여자가 교육 공동체로서 상호작용합니다.
- 서로의 말과 표현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기술과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참여적 학습과 자기주도성

- 영아나 유아가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경험에 참여하도록 지원합니다.
- 놀이와 일상 속 활동에서 자기 의사 표현과 선택, 문제 해결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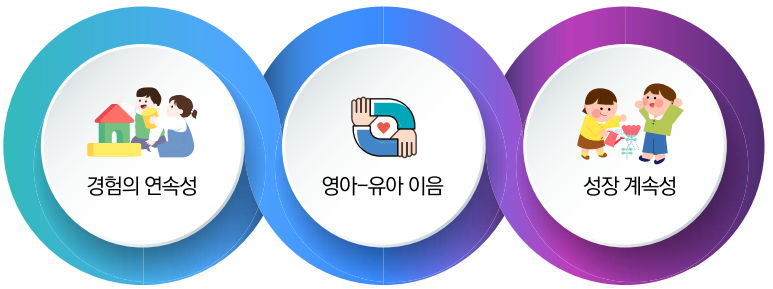
연속적 전이 지원

- 공간, 활동, 연령 전환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익숙함을 제공합니다.
- 새로운 환경이나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설계하여 전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완화합니다.

경험의 확장과 통합 (Experience Integration & Extension)

- 단편적 활동이 아닌 주제나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에서 연결됩니다.

3.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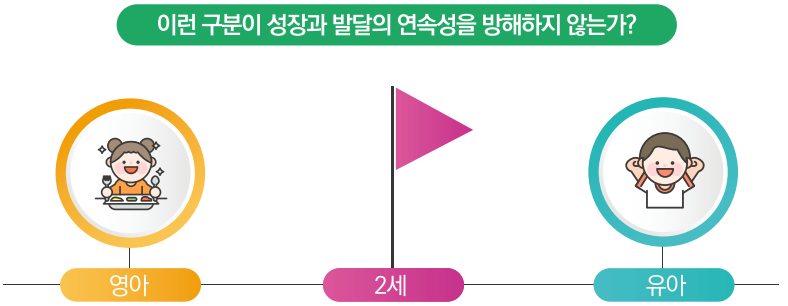


삶이 연속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적 특징을 중심으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지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학문과 언어가 만들어낸 체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구분을 통해 영아기와 유아기는 발달적으로 연속되지 않고 단절·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며 연속적 존재로서의 영유아를 살피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세까지는 영아로, 3세부터는 유아로 구분하는 과정은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언어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발달 단계의 경계는 자연스러운 구분이라기보다, 제도적 필요와 사회적 담론이 만들어 낸 인위적 구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구분은 영아와 유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지원체계, 그리고 교육 실천에서의 차이를

낳으며, 동일한 존재 안에 내재된 발달의 연속성보다는 분절된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을 강화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는 기존의 인식을 재검토하고, 한 아동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발달의 연속성을 이해하며 이를 지원하려는 관점 전환과 보육 주체 간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합니다.

이음교육은 영아가 낯선 환경과 사람, 변화하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심리적 안정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익숙한 교사와 또래, 일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아는 예측 가능한 하루와 정서적 일관성을 경험합니다. 또한 유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중받고 이해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경험은 영아의 정서 조절 능력과 사회적 신뢰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후의 발달과 학습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육과정의 연속적 운영에서 중요합니다.

영아와 유아의 이음교육은 보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접근입니다. 영아기에서 유아기로의 전이는 짧은 시기이지만, 발달적·심리적 변화가 큰 시점으로 안정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음교육은 교사, 환경, 일과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영유아가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발달 단계로 확장되며,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배운 내용이 지속적으로 심화됩니다.

표준보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 '가'항에 따르면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마'항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교육부, 2024). 이미 표준보육과정 내에서 영아와 유아 간의 연결성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2019년에 발표한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에도 누리과정은 3~5세 모든 연령에게 적용하며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음교육은 영유아의 발달 흐름을 존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천적 과정으로, 보육과정 전반의 통합적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음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교사들이 지닌 관점이 중요한데 아래 몇 가지로 정리해봅니다.

첫째, 영아와 유아의 이음교육은 구분되었던 영아와 유아의 삶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둘째, 이음교육은 영아와 유아의 심리적인 안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 및 학습의 연속성을 도모한다.

셋째, 이음교육은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과 보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음교육의 실행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이러한 계획은 일상의 보육과정에 담겨야 한다.

넷째, 영아와 유아 간 이음은 동일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기관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교사 간, 기관 간에는 협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음 교육은 영아 교사와 유아 교사, 영아 기관과 유아 기관 간 서로 다른 여건과 상황이므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림5] 이음교육의 관점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기대 효과는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조기술 향상을 통한 자기 주도적 일상생활, 자기 인식과 표현 기반의 자아 존중감을 기반으로 적응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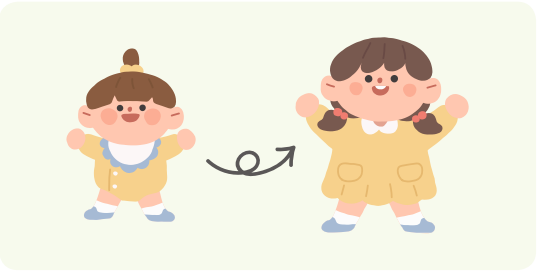
[그림6] 이음교육 기대 효과

4.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내용

영아와 유아의 이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

- **신체발달**



- 2세 영아는 대소근육 발달이 활발해지면서 걷기, 뛰기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움직임에 자신이 생긴 영아들은 집이나 어린이집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합니다. 협응 능력도 발달하여 숟가락이나 보드마커와 같은 도구를 쥐는 동작도 섬세해집니다. 반복적인 동작으로 끼적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3세 유아는 신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균형, 조정 능력 등이 발달하여 섬세한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세발자전거를 탈 수 있고 거리를 조정하는 공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소근육에서도 미세근육의 조절이 이루어져 색연필을 쥐고 테두리 안 쪽으로 색을 칠할 수 있고 가위를 사용하여 종이를 자를 수 있습니다.

- **사회정서발달**



- 영아는 기쁨, 슬픔, 화남 등의 정서를 표현하고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나'에 대한 인식을 넓혀갑니다. 자의식이 강해지며 자기 중심성이 특징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애착 대상으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심리도 있습니다. 놀이형태는 또래와 공간적으로 인접하지만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병행놀이가 주로 이루어지나 또래를 인식하고 때로 행동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차례지키기나 양보 등의 기초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갑니다.
- 유아는 혼자놀이와 또래와의 놀이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점차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에 적합한 연기를 하면서 놀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규칙을 지키려고 하고 또래가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또래가 있으면 돕기도 합니다.

- **언어·인지 발달**



- 영아는 소리 듣기와 변별하는 과정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알아가고 사용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2~3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점차 자신의 요구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합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소리가 난다.', '불이 꺼지면 깜깜하다.'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간단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 유아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자에 대한 관심과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의미을 알고자 하고 놀이에서의 경험과 가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말과 글의 의미를 알고 상대에 따라 존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사건과 사건 간의 인과관계, 문제 제기와 문제해결, 추론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신체발달	사회정서 발달	언어인지 발달
영아	• 걷기, 뛰기, 오르기 가능하나 조절능력이 미숙 • 호기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주변 탐색 • 작은 물건을 집는 등 손가락 조작능력 발달 시작 • 스스로 먹기, 입기 시도 • 공을 던지거나 찰 수 있음	• 병행놀이 중심이나 형제자매나 또래로 관계 확장 • 애착대상에 의존하면서도 독립 시도 • '나, 내 것'과 같은 자아의식 형성 • '싫어'와 같은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세짐 • 다양한 놀잇감을 사용하여 선호하는 놀이 반복 • 또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또래 관계 시도	• 200~300개 단어 사용 • 두세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표현, 문장 시도 • 자기 중심적 언어 사용 • 공간 탐색 기반 공간 인식 •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 인식 • 사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할 수 있음
유아	• 균형감이 발달하여 달리다가 멈출 수 있음 • 팔을 흔들며 걷고 넘어지지 않음 • 한 발 뛰기 등 세밀한 운동 발달 • 단추 끼우기, 지퍼 올리기 등 가능 • 색연필, 크레파스 등을 성인처럼 잡을 수 있음 • 네모와 원 같은 도형을 그릴 수 있음	• 병행놀이에서 친한 또래와의 연합놀이로 진행 • 또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 발달 • 상황에 따른 자기 통제력 향상 • 차례 지키기와 같은 집단 생활 규칙 이해 시작 • 자존감 및 성역할 인식	• 1,000개 이상 어휘 사용 • 자신의 감정을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음 • 질문이 많고 대화 주제 유지 가능 • 타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 증가 • 상징적 사고 본격화, 분류 서열화 개념 • 기억 주의력 향상

[그림7] 2세 영아와 3세 유아의 발달적 특징

2) 교육과정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고려와 더불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영유아가 삶에서 경험할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고 있습니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영아와 유아의 경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2세와 3세의 내용을 비교해보며 이음 교육을 위한 연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체운동·건강**

영아(2세)	유아(3~5세)
신체활동 즐기기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기본운동을 즐긴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본다.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건강한 배변습관을 갖는다.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영아가 유아로 성장할 때 대소근육의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며 바른 태도를 형성해가는 특성을 반영하여 이음교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자조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영아와 유아 이음교육의 많은 부분과 관련됩니다. 영아와 유아의 이음교육으로 고려할 수 있는 예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인식을 돕기 위해 신체 부분의 명칭을 말하며 감각 탐색을 한다.
-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줄 따라 걷기나 공, 줄을 이용하는 놀이를 한다.
- 종이를 찢거나 접거나 자르는 놀이를 통해 신체를 조절하는 경험을 한다.
- 손이 더러워지면 스스로 깨끗하게 씻는다.
- 식사 시 이동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먹는다.
- 식사에서 필요한 도구를 사용한다.
- 지치거나 아플 때 휴식을 취한다.
- 일상에서 색연필, 가위 등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의사소통

영아(2세)	유아(3~5세)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경청하는 태도, 자기 표현의 구체성, 단어의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경험과 말과 글자에 관심을 갖는 내용이 이음교육으로 적절합니다. 의사소통은 영아가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으로 나아가므로 일상생활에서 말을 듣고 말하는 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 또래나 교사와 대화할 때 말이 끝날 때를 기다린다.
-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 또래와 교사에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한다.
- 내가 만든 작품에 이름을 붙이는 경험을 한다.
- 다른 사람이 사용한 단어를 사용해 본다.
- 이야기 듣기, 책 읽기로 다양한 어휘를 접해본다.
- 주변에 있는 책이나 안내문, 광고 등에 관심을 갖는다.
- 또래가 동화를 듣고 있을 때 함께 듣는다.

사회관계영역

영아(2세)	유아(3~5세)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 본다.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사회에 관심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사회 관계에서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와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이음교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세는 사회에 관심가지기 내용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영아가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음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쌓기, 역할놀이, 점토 등 좋아하는 일을 반복해서 경험한다.
- 산책과 같이 또래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 놀잇감 정리와 같이 일상에서 지키고 있는 약속에 대해 알아본다.

- 친구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 고마움과 미안함 등을 표현한다.
- 양말이나 신발 신고 벗기, 가방메기 등을 스스로 해 본다.
-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본다.

예술경험

영아(2세)	유아(3~5세)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상상놀이를 한다.	노래를 즐겨 부른다.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본다.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예술 감상하기	
-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예술경험에서는 예술 감상하기는 2세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아름다움 찾아보기와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의 두 가지 내용에서 이음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영아들은 노래, 리듬 등을 즐기므로 이를 악기등의 도구 사용으로 확장하며 이음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리를 만들어 보고 주변의 도구를 사용하여 리듬 만들기를 시도한다.
- 종이, 낙엽, 나뭇가지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그리고 만든다.
- 이야기를 듣고 등장인물을 몸으로 표현해 본다.
- 친구가 즐겁게 움직일 때 함께 한다.
- 나비나 벌과 같은 곤충의 움직임을 따라한다.
- 파스넷, 색연필, 사인펜 등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경험을 한다.
- 리본이나 줄을 리듬에 따라 움직여본다.

자연탐구 영역

영아(2세)	유아(3~5세)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생명과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는다.

자연 탐구에서는 탐구과정 즐기기,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세 내용범주에서 영아와 유아간 이음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동식물, 우리 동네와 같은 탐색 대상은 다르지 않으나 유아는 영아에 비해 수학적, 과학적 개념이 보다 정교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유아반에서 많아지는 또래들의 수를 셀 수 있거나 옷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들 간의 위치찾기 경험을 해보는 과정으로 이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점토를 만지며 질감의 차이를 알아본다.
- 견학을 다녀오며 마트, 약국, 서점 등을 살펴본다.
- 친구와 블록을 주고 받으며 개수를 세고 위로 높이 쌓아본다.

- 우리 반 친구들의 수, 간식 개수 세기 등 일상생활에서 수와 관련된 경험을 한다.
- 나뭇잎을 주워서 비슷한 것끼리 모아본다.
- 텃밭에서 토마토, 상추를 키워본다.
- 나비나 개미, 벌에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발달적 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영아와 유아의 이음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신체, 언어 발달 등의 발달적 관점, 영아반과 유아반의 물리적 환경과 일과 운영적 측면, 영아와 유아가 관계를 맺는 교사와 또래 간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물리적 환경	· 교실 면적과 흥미 영역의 증가/ 넓어진 공간에 대한 심리적 안정성 감소 · 책상과 의자 수 증가/ 공간 조망 능력 필요/ 부딪침 등 대비 · 각 영역별 놀이감 증가/다양한 놀이감의 놀이 방법 터득/놀이감의 위치 확인
발달적 관점	· 걷고 달리는 신체 운동 능력 향상/신체 활동이 빠른 또래와의 차이 인식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역량 향상/교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역량 필요 · 또래 간의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 증가/ 또래의 언어에 대응하는 반응 필요 · 문자 환경에 대한 접근성 높아짐/내용 이해와 글자의 의미 파악 필요 · 감각탐색적· 반복적 놀이에서 상상, 주제 중심의 놀이로 발전
관계적 측면	· 또래 관계의 확장(학급 인원의 증가. 각 기관별 차이/최소 7명~최대 11명) · 다양한 또래 관계 형성/ 여러 또래와의 관계 형성 기술 필요 · 교사와의 1:1 상호작용의 비율 감소/ 교사와의 거리두기가 필요/애착 대상 감소 · 자신이 중심이라는 세계관이 도전받음
일과운영 측면	· 놀이 시간의 증가/ 놀이 피로도 증가 · 낮잠 시간 감소/ 놀이 피로도 증가 · 대소집단 활동의 증가/ 대소집단 활동의 규칙 이해/ 집단 구성원 경험 · 교사 지원 감소/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스스로 하기

3세 미만의 영아들이 전환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교사와의 애착이나 또래 관계, 교사의 영아에 대한 민감성 등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Trjip et al, 2025). 예를 들어 2세 영아의 경우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7이지만 유아반으로 가면 1: 14~18명까지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영아들에게 이전보다 교사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주어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아반의 교사는 영아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 수용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아-유아 이음교육은 영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경험 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 발달적 관점, 관계적 측면, 일과 운영 측면에서 고르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보육현장에서 느끼는 차이를 토대로 영아와 유아 이음교육의 중점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역량	개념	경험
자조기술	기본생활	• 스스로 신발이나 양말을 신고 벗기 • 음식을 혼자 먹기 • 화장실에 혼자 가기,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하기 • 변기 사용 경험하기 • 옷 스스로 입고 벗기
신체운동	대소근육 협응하여 신체를 움직이는 역량	• 걷기, 뛰기를 원활하게 하기 • 미끄럼틀 혼자 올라가고 내려오기 • 가위와 풀 사용하기 • 의자에 앉아 놀이하기
관계형성	또래, 교사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 또래에게 관심 보이고 같이 놀자고 요청하기 • 또래가 좋아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행동 이해하기 • 선생님이 다른 유아와 놀이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 놀이 상황에 따라 놀이 상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기
의사소통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역량	• 하고 싶은 일, 불편한 점 등을 교사에게 표현하기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기 •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하기 •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하고 표현하기

5.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방법

영아와 유아 이음교육의 방법은 '경험 잇기' 차원에서 물리적 환경 탐색하기, 활동 함께 하기, '교사 잇기' 차원에서 공동체 운영, '학부모 잇기' 차원에서 부모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영아와 유아의 경험 잇기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물리적 환경 탐색하기

어린이집의 보육실은 영유아 1인당 2.64㎡로 10명을 정원으로 할 경우 26㎡ 정도로 크기는 대부분 작습니다. 유아반으로 옮겨가게 될 때 물리적 크기가 대략 50㎡으로 넓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면적 증가는 유아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리적 공간이 확장되고 교구장과 같은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영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떠나, 크고 넓고 어디에 놀이감이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 탐색은 이러한 공간의 크기에 대해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에 대한 불안감, 압도감을 줄이고 친숙함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문하기
- 영아들이 같은 원 안에서 유아반 방문하기
- 유아반에서 놀이하는 놀잇감 사용해보기

2) 영아끼리 경험하기

영아의 경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생활습관이나 자조 기술은 유아와 함께 활동하기 전에 영아끼리 친숙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혼자 신발 신고 벗기
- 스스로 양말 신고 벗기
- 배변 훈련하기(변기와 친숙해지기, 기저귀 벗고 팬티 입어보기, 변기 물 내려보기 등)
- 옷 입고 벗기(바지를 내리기, 올리기, 소매에 팔을 끼우기 등)

3) 함께 경험하기

이음교육에서 영아와 유아가 함께 하는 활동의 가치는 서로 이해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 효능감 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의 과정은 영아에게는 유아들의 언어, 사회적 기술, 놀이 방법, 놀이 규칙, 문제해결과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차례지키기, 의사소통 등)가 됩니다. 유아에게는 영아들과 놀이하면서 알고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동생을 돌보며 자신의 대소근육 능력 향상, 자조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이 타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아 존중감, 효능감, 유능감 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영아와 유아가 함께 경험하는 내용은 기관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함께 산책하기(어린이집 마당, 공원 등)
- 텃밭활동하기(씨앗 심기, 물주기, 수확하기, 함께 나누어 먹기 등)
- 환경 캠페인하기(지구 살리기, 환경 보존, 재사용 등)
- 함께 공연 준비하기 및 공연 관람하기(동극, 음악-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기)
- 함께 만들기(블록놀이, 공사장 놀이, 자동차, 동네. 미로, 목걸이....)
- 유아가 이끌고 영아가 따라하기(동화들려주기, 악기 연주해주기, 동작 해보기 등)

6.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실행

이음교육 실행은 사전 평가를 통한 계획수립과 이음 교육 활동, 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사후 평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필수적이지 않고 기관의 이음교육의 목적,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획수립하기

이음교육은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연간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음교육을 연간 몇 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음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영아에 대한 사전평가는 이음교육의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유아반에 대한 관심 정도를 파악하고 이음 교육 실행 계획을 다른 교사들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영아에 대한 관찰 내용 공유와 영아의 심리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음교육 활동은 영아와 유아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획 수립시에는 활동의 내용, 시기와 더불어 영아와 유아에게 각각 주어질 경험의 질을 고려하고 영아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활동은 일회적인 것보다는 경험이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구상합니다.

2) 교사·기관 간 협력하기

영아·유아이음교육에서는 교사 간 및 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 간 협력으로는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 간의 아동 발달 정보 공유, 생활습관·놀이 특성·가정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공동 관찰 및 전이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합니다. 기관 간 협력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과정 연계, 전이 시기 공동 행사 운영, 교사 간 상호 방문 및 연수, 학부모 대상 연계 안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영아가 안정적으로 유아기로 전이하도록 돕는 기반이 됩니다.

3) 부모와 지역사회 협력하기

영아에서 유아로의 전이에서 가정의 안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 애착과 민감성, 상호작용이 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과 기관이 일관된 양육·교육 방향을 공유하면 아동의 불안이 줄고 적응이 원활해집니다. 이음교육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상담을 통해 공유하고, 전이 프로그램에 부모 참여, 부모 교육 및 가정연계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4) 지역과의 연계

지역사회는 다양한 교육 자원과 돌봄 지원망을 제공하여 이음교육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지역 연계 방법은 유치원·어린이집 협의체 운영, 지역 도서관·체험기관과의 연계활동, 지자체 아동복지 서비스 협력,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한 공동체 경험 제공 등이 있습니다.

7. 영아-유아 이음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영아 교사와 유아 교사 간의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영아반 교사는 이음교육이 단순히 유아반 진급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 연령에서 영아와 유아가 충분히 경험을 하고 경험이 서로 연결 되도록 교사들이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가 이음교육 실행과정에서 수행할 역할을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준비영역	주요내용
영아반 교사	영아발달 기록 심리적 안정지원 가정과의 연계 사전활동 경험	영아의 놀이 성향, 사회적 관계, 정서 반응 관찰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익숙한 교사·놀잇감·일과를 활용해 전이 준비 보호자에게 이음교육의 목적, 과정, 기대 변화를 안내하여 가정에서도 연속적 지원 유도 점심·산책·놀이 등 유아반과의 통합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경험 제공
유아반 교사	영아발달 수준 이해 리더십과 배려 태도 지도 영아에게 안전한 환경 교사간 협력 소통	영아의 인지·언어·정서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 방식을 준비 유아가 동생 영아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태도 지도 영아도 접근 가능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환경을 조정 영아반 교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영아의 개별 특성, 생활습관, 안정 신호 등을 공유
공동	사전 계획-탐색, 방문 → 공동놀이 → 일과 일부 참여 → 완전 전이의 단계적 계획 실행 놀이 과정 관찰과 협의 이음교육의 가치 공유	

참고 문헌

- 교육부(2024). 표준보육과정 고시문.
-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2023). 유치원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이음교육 이론편:교사용안내서.
- 국가데이터처.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자녀수별 가구 수 2024.
-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MoreIndex.do?listId=C_01&statJipyoId=3978&areaId= (2025. 10. 27 인출)
- 국가 데이터처(2005). 지역통계. 경기도 사회조사 미취학 아동 보육방법 및 만족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H2_8%26obj_var_id%3D%26seqNo%3D%26query%3D%EC%9E%90%EB%85%80+%EC%88%98%26tblId%3DDT_113_STBL_1032318%26vw_cd%3DMT_ZTITLE%26language%3Dkor%26orgId%3D113%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 (2025. 10. 31인출)
- 정혜욱, 김희진, 이정은 (2024). 유치원 교사의 2세 영아 및 영아 교육에 대한 인식과 유보 이음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6(4), 374-402.
- https://doi.org/10.15409/riece.2024.26.4.15
- Trijp, Ree , Belland, Esmaeeli, Eidsvåg , Asikanius and Lars Yngve Rosell. (2025). A Systematic Scoping Review on the Transition of Under-3-Year-Old Children from Home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duc. Sci. 2025, 15, 589 . https://doi.org/10.3390/educsci15050589

PART

02

영아♥유아 이음교육
사례와 의미



사례 1

이음, 그 따뜻한 이끌림

전체 내용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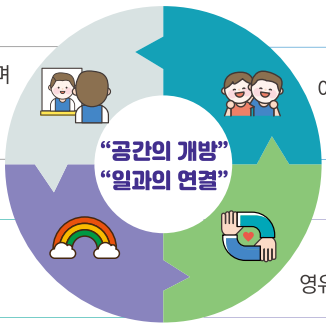
9사단에버나인어린이집

1. 『이음, 그 따뜻한 이끌림』 프로그램 소개

"이음의 주체는 영유아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하루와 마음을 잇는 관계 중심의 실천교육이다. 유아반 진급을 앞둔 영아의 원활한 전이를 위해 유아반 생활을 소개하고 먼저 경험하도록 제공한 단편적인 활동들을 2024년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해왔으며, 현재 2025년까지 이어지며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유아를 상징하는 '이끔이' 3, 4, 5세는 스스로 동생을 돌보고 이끄는 역할을 통해 배려심과 리더쉽을 키워가고, 이끔이의 따뜻한 안내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끌리고 동화되는 '끌림이' 2세 영아는 형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마음을 열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마주하Go, 같이하Go, 나누Go, 이어가Go 네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활동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끔이와 끌림이는 놀이와 일상, 활동을 공유한다. 어린이집의 일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간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 함께 놀이하고 협력하며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의 힘을 기른다.





마주하GO
끌림이가 자신을 마주하며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

같이하GO
이끔이와 끌림이가 짝을 이루어 관계의 첫 씨앗을 심는 시간

이어가GO
다음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되는 과정

나누GO
한층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며 영유아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등장

2. 프로그램 줄거리

마주하GO
- 밖으로 갈까? 안으로 갈까?
- 양말이 좋아? 맨발이 좋아?
- 변기에게 한 걸음
- 몸을 쑥! 몸을 쑥!

같이하GO
- 다 같이 어린이집 한바퀴
- 신발퍼즐 맞추기
- 텃밭 사용 백서
- 이끌림의 미로 놀이
- 이끌림의 공사장 놀이
- 이끌림의 예술의 전당

나누GO
- 책길따라 이끌림
- 이끔이가 알려 줄게!
- 부모 이끌림 함께 걷기 (1,2차)

이어가GO
- 꼬마 끌림이 선생님
- 끌림이의 주말 이야기
- 나도 이제 이끔이!

3. 프로그램의 현장 속 이야기

마주하GO

① 밖으로 갈까? 안으로 갈까? – 신발 신고벗기

:끌림이는 교사와 함께 신발을 신고 벗으며 스스로의 일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책임감을 기른다.



〈교사와 함께 신발 신기〉 〈스스로 신발 신기〉 〈스스로 신발 벗어 정리하기〉

② 양말이 좋아? 맨발이 좋아? – 양말 신고벗기

: 신체 인식과 협응 능력을 기르고, 자기조절력과 인내심 향상을 위해 가정과 연계한다.



〈양말 스티커에 그림 그리기〉 〈교사와 함께 양말 신기〉 〈스스로 양말 신기〉

③ 변기에게 한 걸음 – 배변훈련

: 규칙적인 배변훈련으로 자조능력과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며 자립의 기초를 다진다.



〈팬티 탐색하기〉 〈교사와 함께 팬티 입어보기〉 〈변기에 앉아 보기〉 〈기저귀 스스로 버리기〉

④ 몸을 쏙! 몸을 쑥! – 옷 입고벗기

: 옷 입기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스스로 도전하며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단추 끼우기 연습!〉 〈교사와 함께 입어보기〉 〈스스로 입고 벗기〉

같이하GO

① 다 같이 어린이집 한 바퀴 – 산책하기

: 같이 손잡고 걷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관계와 배움을 통해 신뢰, 안정감, 소속감을 느낀다.



② 신발 퍼즐 맞추기 – 신발정리하기

: 끌림이는 이끔이를 따라 신발을 바르게 정리하며 사회적 예절과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③ 텃밭사용백서 – 텃밭이용 안내하기

:식물을 함께 가꾸며 생명 존중과 책임감을 배우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적 감수성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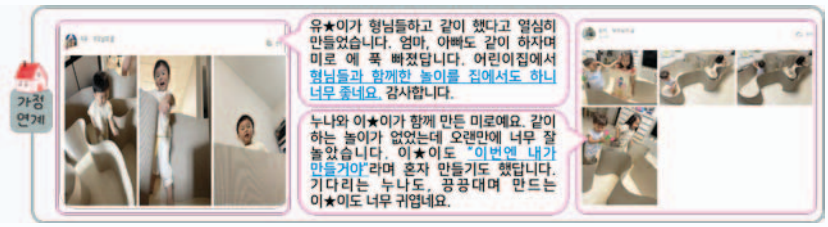




④ 이끌림의 미로놀이 – 형님과 함께하는 놀이1

: 서로의 놀이를 통해 끌림이는 도전과 성취를, 이끔이는 다양성과 이해를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





⑤ 이끌림의 공사장놀이 – 형님과 함께하는 놀이2

: 이끔이와 끌림이는 놀이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창의성을 발전시킨다.



나누GO

① 책길따라 이끌림~

: 이음철학을 바탕으로 함께 책을 읽고 나누며 문해력, 공감능력, 정서 발달을 함께 키워간다.



② 이끔이가 알려줄게!

: 이끔이와 끌림이가 함께 놀이를 통해 사회적 약속을 배우고 내면화하며 서로 성장한다.



③ 부모 이끌림 함께 걷기(1,2차)

: 가정으로 확장된 이끌림의 이음관계는 부모참여를 통해 교육적 신뢰와 공동양육문화를 형성한다.



이어가GO

① 꼬마 끌림이 선생님! – 유아반 체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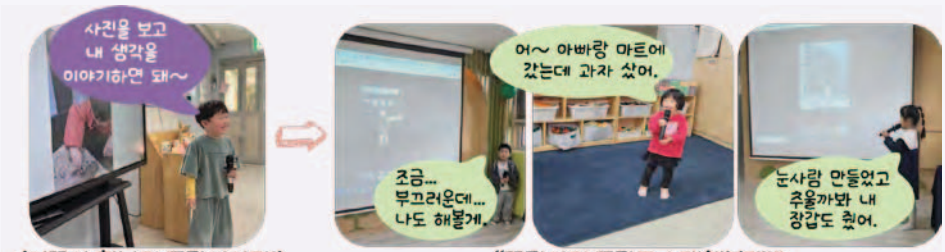
: 끌림이는 유아기로 나아가며 자율성과 자신감을 키워 이끄는 존재로 성장한다.



〈간식은 내가 먹을만큼!〉 〈정리도 깨끗이!〉 〈우유갑 재활용도 내가!〉 〈융통성 있는 정리 방법 경험하기!〉

② 끌림이의 주말 이야기 – 이끔이 따라잡기

: 끌림이는 이야기 나눔을 통해 경청과 공감을 배우며 소통의 즐거움과 자신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이끔이 형님의 주말이야기!〉 "끌림이의 주말도 소개해볼게!"

③ 이제 나도 이끔이! – 다음 끌림이 만나기

: 끌림이는 이음의 전통을 이어 다음 끌림이와 손잡고 관계와 배움의 순환을 이어간다.



"발 맞추어 걸어볼까?" "선생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 "밖으로 빨리 나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4. 교사의 역할 및 지원 사례

	영아교사	유아교사
공간	• 낯선 환경에서 영아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마련 • 서로의 공간에 들어갈 때 안전고려	• 유아가 영아의 공간에 위화감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 안내 • 공용놀이 공간, 별도의 놀이공간에 대한 지원
사례 배변활동 미로놀이 공사장놀이 예술의 전당	유아반 화장실 다녀와보기 같은 재질의 종이상자집을 별도 비치해 안전기지로 사용 공사장 놀이영역을 위험 요소없이 분리하되 연결되게 구성 영아를 위한 관객석과 '따로놀이' 공간 마련	영아들이 친근하게 느끼도록 화장실 공간 제공하기 미로 놀이 영역을 유아반 교실에서 유희실로 확장 공간 확보를 위해 가구 정리 및 재배치 영아와 함께 사용할 무대소품, 무대공간 제공
자료	• 감각적이고 단순한 자료 준비 및 발달적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자료 지원 • 영아가 입에 넣어도 안전한 비독성 및 일정크기 이상 자료 확인	• 자료 사용에 대한 선행경험을 바탕으로 영아의 놀이를 도와줄 수 있는 구조적 놀잇감 지원 • 유아와 영아의 협력놀이가 가능한 확장형 자료 구성
사례 신고벗기 미로놀이 공사장놀이 예술의 전당	방향을 인지하도록 양말이나 신발에 스티커 붙여 지원 쉬운 진입구, 미로 중간 중간 시각적 단서 제공 큰 모양의 망치, 트럭 등 수준을 고려한 놀잇감 지원 가면, 악기, 마이크, 카메라 등 영아용 소품 지원	신발장에 붙일 짝꿍(이끌림) 신발 이름표 제작 영아의 신체, 동선 차이를 고려 낮은 높이의 롤 골판지 제공 유아가 영아를 위한 '공사장 안내판 만들기' 활동 지원 끌림이 초대장, 끌림이 관객석 티켓 등 역할 확장 자료 지원
시간	• 이음활동이 일과와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일과 조정 및 안내 (예측가능한 일과가 되도록 교사 사전 협의 필수)	• 이음활동이 놀이와 유연하게 만나도록 일과 조정 및 안내 • 이음활동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으로 인식하도록 안내
사례 텃밭활동 주말이야기	흥미를 고려해 준비·마무리 단계에서 충분한 탐색 시간 제공 이음활동 전 알림장 사진, 그림책 등으로 도입시간 계획	활동특성을 고려해 자연물을 이용한 감각탐구활동, 실내놀이 등으로 연계 주말 이야기 발표 전 사전 준비를 위해 '생각정리시간' 계획

	영아교사	유아교사
상호작용	• 유아의 말과 행동을 영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주기 • 영아의 개별적 특성, 감정의 상태에 대해 유아에게 알려주기 • 영아가 자신의 속도대로 탐색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	•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아에게 놀이 소개하기 • 필요시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에 대해 설명함 • 동생과 놀이할 때 협력적 언어 사용과 말하는 태도 이야기 나누기
사례 산책 미로놀이 공사장놀이 예술의 전당 책길따라	오늘은 이끔이 언니랑 걸음 맞춰볼까? 미로가 무서우면 여기 종이상자 집에서 놀이할까? 이끔이 형아가 여기 정리하자고 했어. 같이 해볼까? 이끔이의 공연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풀어 설명하기 영아가 반응한 장면 중심으로 대화 이어가기	영아의 속도를 살피고 발 맞추도록 설명 "같이 찾자", "이쪽이 맞는지 물어볼까?" 등 협력적 언어사용 끌림이가 해보고 싶나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끌림이의 공연을 도울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끌림이를 만나기 전 읽을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상황 예측해보기
안전	• 영아의 평상시 동선과 다른 공간, 도구 및 재료 사용에 대한 안전지도 • 영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정 관찰 및 자극 중재	• 이음 공간 설명 및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스스로 주의하도록 지도 • 신체능력의 차이를 알고 영아에게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지원
사례 산책 공사장놀이 꼬마끌림이	영아의 체력 및 주의력 한계를 조절하며 안내 스페이스 블록의 크기가 커서 우레탄 블록을 추가로 지원 낯설면 손들기, 불편할 때 청하기 등 약속 정하기	짝꿍 구성 제안 및 무의식적으로 뛰거나 잡아끄는 행동 방지 지도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안내 영유아에게 공간이용, 놀잇감 나누기 등 OT실시
가정연계	1. 가정에 이음의 철학과 의미 안내 –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음 교육 소개 및 가정 통신문 배부 2. 아이의 참여와 부모의 변화를 공유 – 이음 교육 실행 후 알림장 공유 및 관찰 기록 3. 가정연계 활동 제안 및 연계 – 양말이 좋아? 맨발이 좋아?, 미로놀이 등 자료 지원 4. 이음교육에서 부모참여의 중요성 알리고 활동계획 및 실행 – 책길따라 이끌림, 텃밭 활동, 부모 이끌림 걷기 등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실천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편적인 활동을 체계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영아와 유아를 이끔이와 끌림이로 네이밍을 하여 기관 자체의 이음 교육에 대한 체계성,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음 교육의 **주체, 내용의 다양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에서는 마주하GO, 같이하GO, 나누GO, 이어가GO 네 단계로 구성하여 이음의 의미와 주체가 되는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매우 의미 깊습니다.

실행과정

실행 내용의 다양성입니다. 프로그램은 기본생활습관에서는 신발 신기, 양말 신고 벗기, 배변 훈련, 옷 입고 벗기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발달 수준에 따른 이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아와 유아가 함께 하는 활동으로 기본생활습관에서 확장하여 신발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도 이를 실천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음 교육을 위한 교사 협의 과정입니다. 이음교육의 실천은 영유아의 발달적 연속성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교사의 전문적 성찰과 기관 간 협력적 실행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사례에서는 이음교육을 위한 공동체 협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전문가 초빙과 교사 간의 소통을 통해 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의지를 공유한 과정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사 개인의 실천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가 영유아의 전이와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이음교육의 핵심 가치를 잘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영아 교사와 유아 교사가 함께 합니다. 이음교육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영아교사만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영아교사와 유아교사의 역할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두 연령 교사가 이음교육의 실행을 위해 각각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공간 이음'에서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영아가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세심하게 구성한 사례와 같이 더 어린 연령의 발달적 특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교사의 지원이 돋보입니다. 이처럼 두 연령 교사가 서로의 역할을 인식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한 과정은 이음교육의 본질인 연속성과 배려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2

‘0’에서 ‘有’로, 배움은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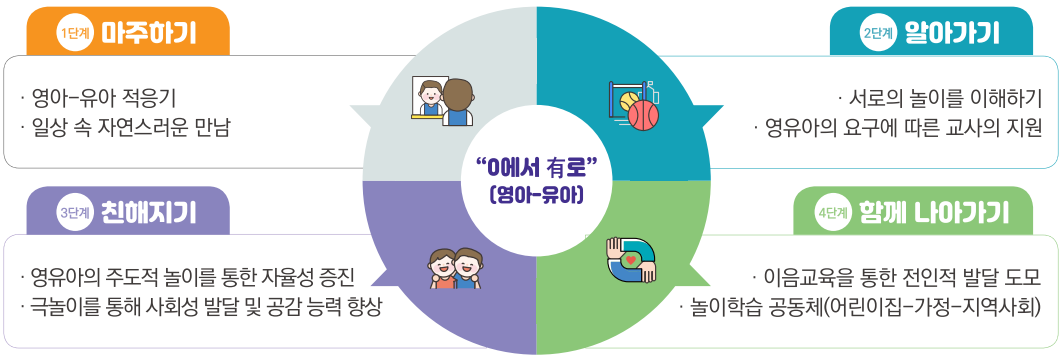
전체 내용 보러가기

공립고산어린이집

1. ‘극놀이’를 통한 이음교육

극놀이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경험한 삶을 놀이로 재구성하는 활동으로 생활과 놀이, 감정과 사회성, 다양한 발달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음교육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자기표현, 공감, 문제해결, 협력과 같은 전인적 역량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전 경험과 새로운 배움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학습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진행 단계



3. 프로그램 평가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극놀이 상황을 기획하고, 영아들을 초대해 함께 놀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유아들은 역할 분담, 소품 준비 등 놀이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구체화하고, 상황에 맞는 소통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놀이 후 아이들은 “동생이 좋아했어”, “다음엔 아이스크림 가게놀이 하자” 등 놀이확장을 제안하였고, 놀이가 일회성 경험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놀이 문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아와 유아가 놀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각자의 발달 수준에 맞게 참여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으며 유아는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조율’의 힘을 기르고, 영아는 반복과 모방을 통해 상호작용의 기쁨을 느끼며 사회적 참여 경험을 넓힐 수 있었다. 극놀이라는 형식이 갖는 ‘상상력’과 ‘맥락 이해’의 특성은 연령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한 장치가 되었으며, 이는 이음 교육의 좋은 실천 사례가 되었다.

4. 이음교육 프로그램

활동명	푸른 병원으로 오세요!	대상	영아 – 만 2세 유아 – 만 3세
표준보육과정 내용 범주	• 신체운동·건강〉건강하게 생활하기〉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단계	구분	내용 및 사진
[2단계] **알아가기**	놀이 이해하기	• **영아** - 구급차 장난감 탐색 및 놀이 – 구급차 관련 동요 들으며 율동하기 • **유아** - 병원에 다녀온 경험 이야기하기 –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병원놀이하기
	교사의 지원	• 병원놀이 영역 구성 및 관련 자료 제공 • 병원놀이 시 사용되는 소품(간판, 약품 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재료 지원
[3단계] **친해지기**		
[4단계] **함께 나아가기**	교육공동체	 지역사회연계 병원놀이 시 각 증상에 맞춰 약을 처방해주는 것에 흥미를 보여 어린이집 주변 약국에 방문하여 다양한 약품을 관찰하고 직접 구매해보았다.
	이음 요소	• **자기–타인 이음:** 의사, 간호사, 환자 등의 역할을 하며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고 이해한다. • **경험 – 놀이 이음:** 병원에 다녀온 경험을 놀이에 반영하며 실제 경험과 상상 놀이를 연결한다. • **영아 – 유아 이음:** 유아는 영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구조화하여 표현하고, 더불어 영아는 기초적인 건강지식을 습득한다.

활동명	붕어빵 사세요~	대상	영아 – 만 2세 유아 – 만 3세
표준보육과정 내용 범주	•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 사회관계〉사회에 관심가지기〉내가 살고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자연탐구〉생활속에서 탐구하기〉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단 계	구 분	내 용 및 사 진
[2단계] **알아가기**	놀이 이해하기	• **영아** – 붕어빵 놀잇감을 이용한 모방 놀이 • **유아** – 붕어빵 만들기 요리활동
	교사의 지원	• 붕어빵 가게 현수막, 모형 붕어빵, 그릇, 화폐 등 지원
[3단계] **친해지기**		  
[4단계] **함께 나아가기**	교육공동체	 지역사회연계 만 2~3세 아이들이 함께 붕어빵 극놀이를 하며 붕어빵 음식에 관심이 지속 되어 어린이집 근처에 위치한 붕어빵 가게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였다.
	이음 요소	• **감각–언어 이음:** 붕어빵 틀, 반죽, 소리 등 감각자극을 영아는 촉감, 유아는 언어로 표현한다. • **놀이–사회 이음:** 가게, 돈 주고 받기, 줄서기 등 사회적 규칙과 역할을 놀이 속에서 체험한다. • **영아 – 유아 이음:** 유아가 영아를 도와 도구 사용이나 역할을 설명하고, 영아는 도움을 받아 놀이에 참여하고 역할을 인식한다.

활동명	우리 결혼할래요?	대상	영아 – 만 2세 유아 – 만 3~4세
표준보육과정 내용 범주	• 예술경험〉창의적으로 표현하기〉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 기본생활〉건강하게 생활하기〉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단계	구분	내용 및 사진	
[2단계] **알아가기**	놀이 이해하기	• **영아** – 결혼식 소품, 의상, 실물사진 탐색하기 • **유아** – 결혼식 초대장 만들기 – 결혼식장 구성하기	
	교사의 지원	• 결혼식 의상과 소품 지원 • 결혼식 포토존 및 웨딩액자 지원 • 우리나라 및 세계여러나라 결혼식 자료 지원	
[3단계] **친해지기**	     		
[4단계] **함께 나아가기**	교육공동체	 가정연계	결혼식에 흥미를 보이는 유아들을 위해 실제 우리나라의 결혼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결혼식 사진을 지원받았다.
	이음 요소	• **상상–현실 이음:** 결혼식에 대한 나의 생각과 상상을 구상하고 실현하여 자기표현능력을 기른다. • **소통–참여 이음:** 놀이 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한다. • **영아 – 유아 이음:** 유아는 자신이 이해한 결혼식을 역할놀이로 나타내며 창의적 능력이 향상되고, 초대를 받은 영아는 놀이에 참여하여 축하하는 마음을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며 결혼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한다.	

활동명	밀가루의 변신!	대상	영아 – 만 2세 유아 – 만 3~5세
표준보육과정 내용 범주	•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말이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듣는다. • 예술경험〉창의적으로 표현하기〉다양한 미술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 자연탐구〉생활속에서 탐구하기〉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단계	구분	내용 및 사진	
[2단계] **알아가기**	놀이 이해하기	• **영아** – 밀가루 촉감놀이, 산책하며 우리동네 가게에 관심가지기 • **유아** –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경험하기, 점토로 음식 만들기	
	교사의 지원	• 밀가루 반죽, 도넛 및 피자 상자, 실물화폐 지원	
[3단계] **친해지기**	     		
[4단계] **함께 나아가기**	교육공동체	  지역사회연계	우리동네 피자 가게에 방문하여 만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고,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선정하여 피자를 만들어본 뒤 함께 먹어보았다.
	이음 요소	• **놀이–과학 이음:** 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재료인 밀가루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 **놀이–미술·조형 이음:** 피자토핑을 꾸미며 창의적 표현, 소근육 사용, 미적감각 발달을 도모한다. • **영아 – 유아 이음:** 유아가 “토핑 몇 개 올릴까?” “얼마일까?”와 같은 질문을 던져 영아의 수·인지 경험을 이끌어낸다.	

활동명	우리들은 배달원	대상	영아 – 만 2세 유아 – 만 3~4세
표준보육과정 내용 범주	• 신체운동·건강〉건강하게 생활하기〉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단계	구분	내용 및 사진
[2단계] **알아가기**	놀이 이해하기	• **영아** – 건강주스 만들어 먹기 • **유아** – 색 혼합하여 삼원색 과학 실험하기
	교사의 지원	• 실물 과일, 채소 지원하기 • 스포이드, 물감, 색상환 제공하기
[3단계] **친해지기**		  
[4단계] **함께 나아가기**	교육공동체	 지역사회연계 아이들이 주변 이웃들에게도 건강 주스를 배달하고 싶어하여 단지 내 경로당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만든 건강 주스를 지역주민들께 나눠드렸다.
	이음 요소	• **영양–건강 이음:** 놀이를 통해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갖고, 영양소를 이해하며 배운 영양 지식을 토대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한다. • **나–공동체 이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이해한다. • **영아 – 유아 이음:** 영아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의 색상, 질감, 냄새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인지능력을 발달시킨다. 유아는 각 재료의 이름과 영양소를 언어로 표현하고 주스를 만들며 영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놀이와 이음교육 목표가 잘 맞아요. 본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로 정서적·사회적 기대와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언어 및 인지 능력 발달, 다양한 감각과 신체 발달, 자기표현 및 감정 조절, 사회적 협력과 공감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기대 효과를 잘 달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 극놀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극놀이는 앞의 기대 효과를 충족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특히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상상과 역할 모방과 연기는 큰 의미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이 매우 의미 깊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가 적절합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를 마주하기, 알아가기, 친해지기, 함께 나아가기의 4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 낯선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흐름을 마주하기, 알아가기 등의 단계로 계획하고 있어 교사들이 영아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영유아를 존중하는 이음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4단계 안에 만남과 놀이, 놀이에서의 자율성과 주도성, 공동체로의 확장을 담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실행과정

영아의 놀이와 유아의 놀이가 있습니다. 이음교육을 실천할 때는 영아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자칫 유아 중심의 활동으로 초점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놀이 이해하기' 단계에서 영아의 놀이와 유아의 놀이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연령이 이음의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발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성은 연령 간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상호이해를 통해 자연스러운 발달적 연속성을 지원하는 이음교육의 가치를 잘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지원이 있습니다. 실행과정을 보면 알아가기 단계에서 교사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음교육을 위한 환경 마련에서 교사가 지원할 자료를 기록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만 교사의 지원 내용이 자료 제공에 집중되어 있어서 보완을 한다면 교사가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지원 내용도 포함하면 보다 바람직한 이음교육 실행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음의 요소를 알고 있습니다. 이음은 함께 하는 영유아의 경험 이음을 통해 사회정서 발달, 신체 발달, 언어 발달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교사들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서로의 연령과 보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각 실행 내용에 이음의 요소를 기록하여 교사가 방향성을 알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3

이음, 성장의 선을 잇다.

전체 내용 보러가기

고양시립대화소망어린이집

1. 공모 참여 배경 및 방향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길은 단순한 연령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배움의 결이 달라지는 전환의 시기다. 2세 아이들의 손끝에서 일어난 감각의 잔향이 3세의 사고와 상징적 표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이는 익숙한 세계를 잃고 낯선 언덕에 홀로 서야 한다.

본 기관은 이 단절을 막고자,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경계를 잇는 '이음교육'을 설계하였다.

2세의 감각적 탐색이 3세의 탐구·표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교육과정과 환경을 재구성하고, 배움의 흐름을 끊지 않는데 집중하였다.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지금, 어린이집을 '보육의 장소'가 아닌 배움의 첫 장으로 다시 정의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잃지 않고 다음 장면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하였다.

2. 놀이 활동의 발달 구조와 전이

2세에서 3세로의 전이는 단순히 연령이 높아지는 변화가 아니라, 놀이의 내용·형태·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함께 변하는 복합적 발달 과정이다. 본 기관은 영아기의 감각 중심 놀이가 유아기의 상징적·창의적 놀이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놀이의 구조를 분석하고 교사의 언어적 개입 방식을 조정하였다.

구분	영아(2세) 놀이 흐름	유아(3세) 놀이 흐름	놀이 전이의 실제 사례
행동 전환	반복 행동 - 감각적 활동 반복 (예: 동일한 재료를 끊임없이 만지고 떼기)	목적 표현 - 자신만의 의도 표현 및 공유 (예: "머리카락이 없어"라며 인형에 머리카락을 만드는 목표 지향적 활동으로 전환)	2세 종이를 반복적으로 찢고 구기며 촉감을 탐색함.
			3세 "치마야", "머리카락 만들어야 해" 등 의미를 부여하며 상징적 놀이로 확장됨.
표현 전환	감각 탐색 - 촉감과 움직임 중심의 조작	상징 구성 - 구성과 상징을 통한 의미화	2세 교사 "찰랑찰랑 소리가 나요"와 같이 감각 자극에 반응하는 언어 제공.
			3세 교사 "왜 그 색을 골랐을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상상과 사고 확장을 유도

3. 전이기 활동 설계 및 실행 사례

1) 공간과 정서적 안정의 이음 :

2세반에서 익숙하게 다루던 종이·비즈·색실·테이프를 3세반에 그대로 놓아두자, 아이들은 새 교실에서도 주저함 없이 놀이로 스며들었다. “예전에 했던 거야”라는 말처럼, 익숙한 감각은 낯선 공간을 부드럽게 덮어주었고, 아이들은 그 익숙함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다.

환경 구성의 변화

2세 시기에는 감각 탐색 중심으로 재료가 배치되었다면, 3세 시기에는 구성·상징·표현이 자연스레 확장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였다. 감각에서 상징으로 이어지는 이 변화는 재료의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아이의 경험이 다른 연령의 교실에서도 끊기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주었다.



▲ **2세 감각 놀이의 시작점**
(감각 탐색 중심 재료 구성 / 2024.11월 환경 구성)



▲ **2세 교실 : 감각 탐색에서 놀이 기반 다지기**
(재료 이음 구성 환경 / 2024.12월 환경 구성)



▲ **3세로 이어진 감각 놀이의 재해석**
(상징 놀이 재료 구성 / 2025.3월 환경 구성)



▲ **3세에서 감각이 상징으로 확장된 놀이**
(2025.04월 놀이 사진)

2) 교육과정의 연속성 실현 - 감각놀이에서 창의적 디자인으로

종이 감각 놀이의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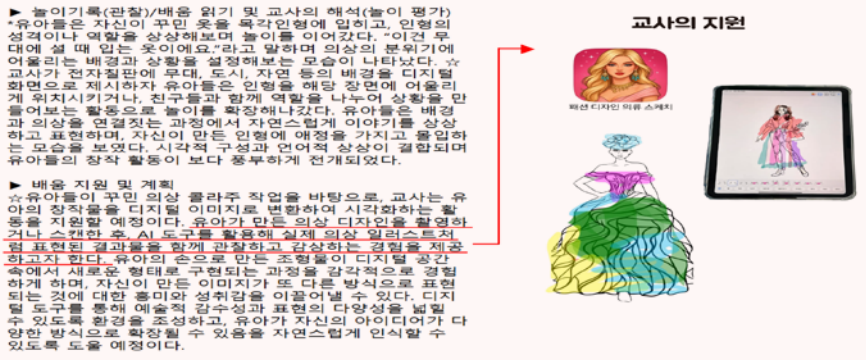
2세의 종이 놀이는 손끝으로 찢고 구기며 촉감을 느끼는 탐색에서 출발했다. 어느 순간 종이는 머리띠가 되고 팔찌가 되며, 아이들의 신체 위에서 작은 상징을 품기 시작했다.

디자이너 놀이로의 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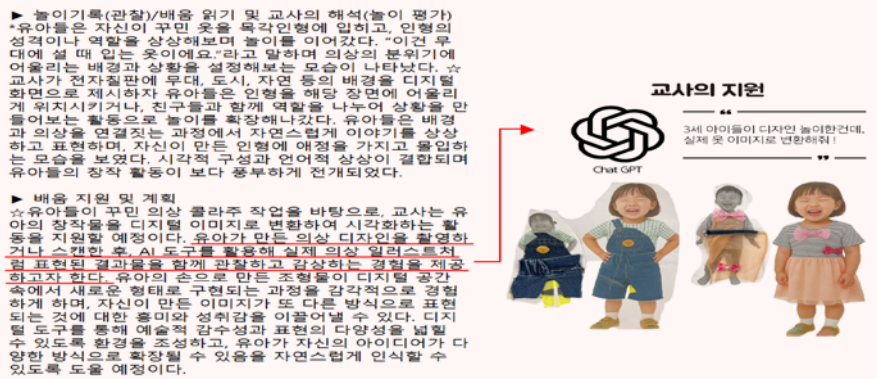
3세에 이르자 같은 재료는 ‘치마’, ‘꾸미기’로 다시 태어나 패션 디자이너 놀이로 확장되었다. 유아는 도안·천 조각·단추 같은 구성 재료를 선택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감각은 표현으로, 표현은 창작으로 이어졌다.

디지털 매체 활용

아이들은 스케치한 아이디어를 AI 일러스트로 시각화하며 또래에게 공유했고, 놀이 안에는 상호작용·의사소통·공동 작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감각 중심 놀이는 이렇게 창의적 사고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길을 열었다.



▲ 3세 4월 1주 일지 기록



▲ 3세 4월 4주 일지 기록

3) 부모와의 이음

3세로의 전이는 교실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이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를 둘러싼 가정과 기관이 같은 흐름을 바라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본 기관은 부모가 이 흐름을 '함께 읽고, 함께 지지할 수 있도록' 전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

전이를 함께 바라보다	3세반 진입 시점에 교사는 2세에서 이어지는 놀이 맥락이 새로운 교실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QR코드 형태로 가정에 공유하였다. 가정은 첫날의 낯설음을 영상으로 먼저 덜어내고, 기관은 전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 전이는 이렇게 부모가 미리 알고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시작되었다.
전이 이후 적응을 함께 점검하다	초기 적응이 지나간 시점인 1학기 상담에서 교사와 부모는 유아의 생활·사회정서 변화를 구체적으로 나누었다. 기관은 부모의 이야기를 다시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영했고, 부모는 교사의 관찰을 가정에서의 양육과 연결하며 아이의 적응을 공동으로 조율하는 협력의 리듬을 만들어갔다.
성장의 순간을 함께 마주하다	교사는 전이기 놀이 저널을 통해 이렇게 교실의 기록이 가정의 관찰로 이어지고, 가정의 이야기가 다시 교실의 계획으로 되돌아오는 순환이 형성되었다. 전이는 더 이상 기관의 노력만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의 공동 서사가 되었다.

4) 교사의 협력과 실행의 이음

Padlet 기반 학습공동체 협력 전이기 설계는 교사·원장·주임이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Padlet을 활용해 월별 놀이 계획안, 재료, 놀이 흐름을 공유하며 단절 없는 전이를 조율했다.

2세 교사의 성찰 "지금의 놀이가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반복적 감각놀이 하나에도 '이 놀이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바라보며 관찰과 기록을 더 세밀하게 했다.

3세 교사의 성찰 새로운 학기가 '새 출발'이 아니라 2세 경험의 연장선임을 깨닫고, 영아기의 감각 놀이가 상징놀이로 전환되는 장면을 직접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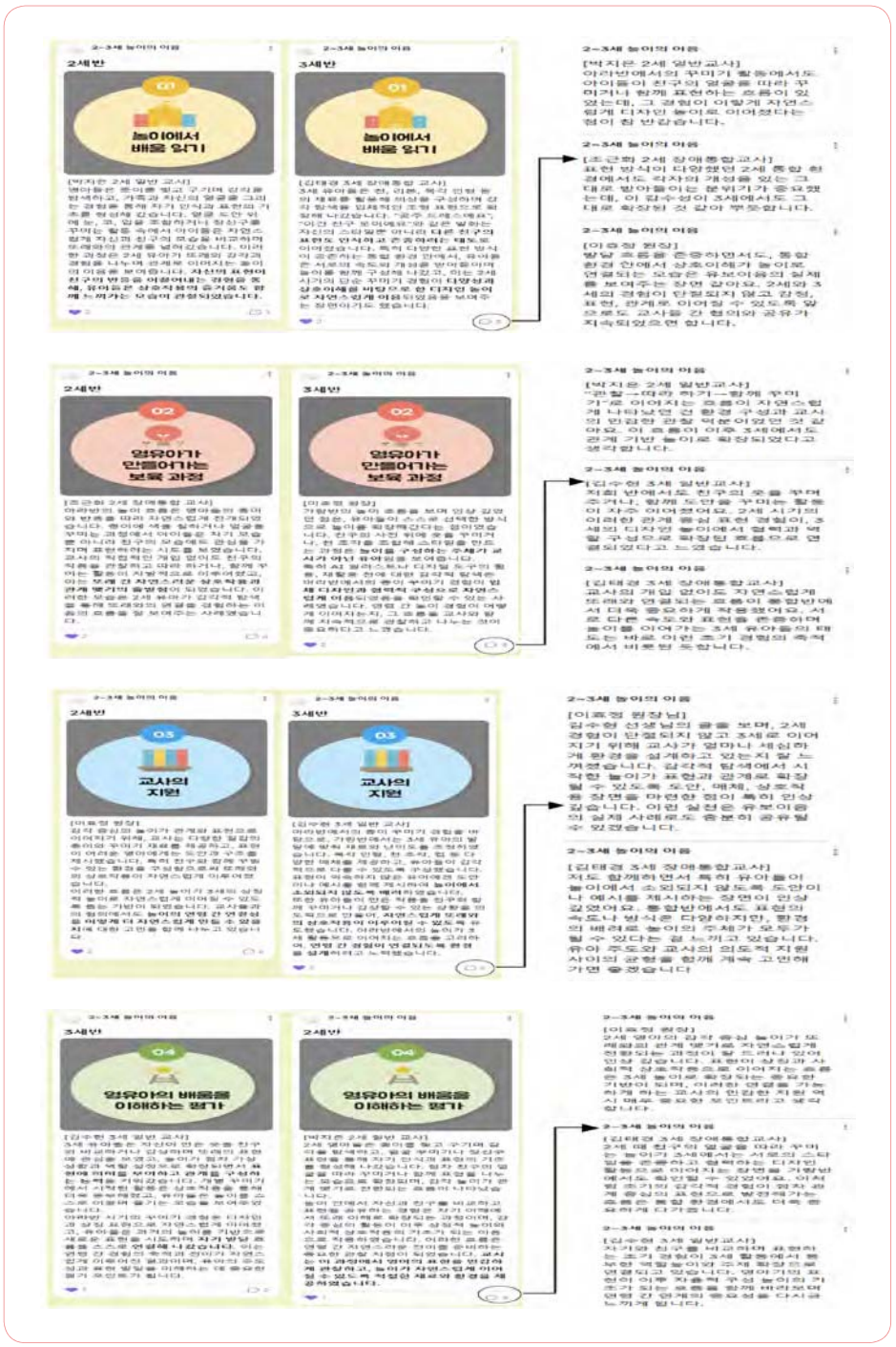
원장의 피드백 이러한 협력이 "유보이음이 실제로 구현되는 순간"임을 강조하며, 교사들이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해온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같은 협력과 성찰은 전이가 한 교사의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기관의 문화로 깊이 스며들게 한 힘이었다.

4. 이음 교육 실천이 남긴 의미

1) 교육과정을 실천적으로 잇는 교사의 성찰

교사들은 2세 표준보육과정과 3세 누리과정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를 실제 놀이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발달 중점, 놀이 소재, 표현 방식 등 각 항목을 아이들의 행동과 연결해보는 과정에서 '전이'가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 이미 교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실제임을 발견했다.



이 과정은 교사들에게 "우리는 이미 이음을 하고 있었다"는 자각을 남겼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해오던 실천들이 '무엇을 어떻게 잇는가'라는 구조적 언어로 정리되며 전이에 대한 전문적 감각이 더욱 깊어졌다.

2) 놀이 재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순환

이음교육은 같은 활동의 반복이 아니라, 놀이가 실행되고 → 관찰되고 → 협의에서 해석되고 → 다시 재구성되어 새로운 환경으로 배치되는 순환적 흐름을 드러냈다. 교사는 이 순환의 중심에서 유아의 경험과 배움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다. 감각에서 상징으로, 조작에서 구성·표현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교육과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그 자체였다.

구분	2세 표준보육과정	3세 누리과정	놀이 흐름 연결
발달 중점	감각 탐색, 자기 인식	자율성, 창의성, 사회성	감각 중심에서 상징적 표현으로
놀이 목적	감각 자극, 반복 조작 통한 안정감	의미 구성, 자기 표현과 상호작용	감각 기반 탐색 → 주도적 창작과 공유
표현 방식	찢기, 붙이기, 말기, 반복적 조작	구성, 꾸미기, 명칭 붙이기, 전시	조작 → 구성 → 공유 중심 표현으로 이동

고양시립대화소망어린이집의 이음교육은 2세의 손끝에서 깨어난 감각의 언어가 3세의 상징·창의적 표현으로 이어지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과정 연결이 아니라, 교사들의 세심한 관찰과 기록, 협력과 성찰이 만들어낸 전문적 실천의 결과였다. 아이들은 익숙한 종이를 새 환경에서 다시 만나 안정감을 얻었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고 디지털 매체로 표현을 확장해갔다. 부모 또한 이 성장의 선을 함께 읽으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아이들의 첫 배움이 감정·표현·관계 속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교사 간 협의와 교육과정의 나눔을 지속할 것이다.

이 작은 실천이 유보통합의 큰 흐름 속에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밝혀주는 조용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교사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령별 보육과정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음교육을 하는 이유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영아의 경험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2세와 3세의 놀이 발달 흐름도를 통해 감각적 경험이 상징 놀이로의 확장, 반복적인 행동에서 목적을 지닌 놀이로 진행하는 주체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이음교육을 위해 분석적으로 영유아를 관찰하고 계획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 맞춤 교사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이음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 계획에 집중하기 쉽지만, 본 사례에서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징을 고려하여 교사가 상호작용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놀이 진행과정에서 각 연령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한 계획의 예가 됩니다.

실행과정

영아의 정서적 지원이 돋보입니다. 영아들이 낯선 환경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다양한 자료 사용과 인지 발달에 따른 상징 놀이로의 전환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2세 후반기에서 3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환경 구성과 자료에서 어린이집의 일상 경험을 통해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예시입니다.

보육과정으로 이음합니다. 이음교육은 연간 계획에 기반한 지속적 실행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아 보육과정과 유아 보육과정 간의 유기적 연결성입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며 그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은 대·소근육 발달과 정서적 안정 등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놀이의 진행에 따른 교사의 지원뿐 아니라, 놀이의 맥락과 교육적 의미를 되짚어보며 후속 놀이 방향을 모색하는 성찰적 실천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음교육이 단순한 전이가 아닌, 지속적 배움의 순환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음의 순간을 공유하고 의미를 알아갑니다. 교사와 부모님들이 영아들이 유아로 성장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본 사례에서 3세반 진입 시점에 2세반 놀이 경험이 이어지는 모습을 가정과 공유하여 낯설 수 있는 환경에서 적응해나가는 자녀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의 안정된 일과 운영과 부모의 신뢰감이 바탕이 되는 이음교육으로 좋은 예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4

함께 이음, 배움이 자란다

전체 내용 보러가기

고양시립삼송어린이집

1. 개요

- 대 상: 만 2세에서 3세로 성장하며 유아기 초입에 접어드는 전이기 영유아
- 기 간: 2024. 07. ~ 2025. 현재
- 이음교육 진행과정 요약

Ⅰ	Ⅱ	Ⅲ	Ⅳ
교사이음	**영유아이음**	**가정이음**	**지역사회이음**
1. 교사 간 공동 **놀이 협의**	1. 전이기 적응을 위한 **형님반 탐방활동** 및 적응지원	1. 가정-기관 소통 강화를 위한 **이음 교육 팜플렛 정보** 제공	1. 지역 인사 '**이야기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음 동화** 프로그램 활동
2. 새학기 전 만 2세 **관찰일지 공유**	2. **만2-3세 함께 놀이**하기 프로그램 실시	2. **이음-오픈클래스**를 통한 부모참여 연계 프로그램 실시	2. **이음걷기대회**-형님과 손잡고 한걸음, 함께하는 성장의 길
3. **만 2~3세 공동교육** 계획 수립	3. 협력과 성장을 도모한 **자연 연계 전이놀이**	3. 만 2~3세 유아의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가정연계지도**	3. 또래 협력과 선택 경험 강화를 위한 **형님 - 동생 마트 나들이**
4. **이음 성장·발달 자체체크리스트** 운영	4. 만 2~3세 발달 연계를 위한 **성장포트폴리오 공유**		

2. 이음교육 진행과정

❶ 교사이음 – 단절 없는 성장을 위한 교사의 연결 실천

1) 교사 간 공동 놀이 협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의 놀이 접근방식을 마련)

이음교육 교사 자체연수	자체 이음교육 1차	자체 이음교육 2차	만2~3세 교직원 이음교육 3차 협의회
배경, 필요성, 방향, 세부계획	교원 역량 강화 및 운영 방향 공유	관찰일지 및 체크리스트 공유를 통한 영아의 특성과 발달 사항 공유	
			

2) 만 2세 발달특성, 기질을 반영한 관찰일지 공유

→ 새학기 전 만 3세 담임교사 참고하여 연계교육 실현



3) 만 2~3세 공동 교육계획 수립 (새학기 전)



만 3세 담임교사는 만 2세 때의 관찰기록과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차를 고려하여 공동계획수립안을 구성하였다. 휴식 공간 제공, 협력 놀이 활동 등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전인적 발달을 도모.

→ 공동계획수립안을 참고한 연계 놀이 현장 – 계획부터 실천까지, 함께하는 성장






4) 이음 성장 발달 자체 체크리스트 운영 (만 2세 교사가 성장과 변화를 점검하여 발달 흐름 관리)



2024년 이음 성장발달 자체체크리스트

성명	[redacted]	성별	여	생년월일	2021. 04. 30.

(O: 설명, △: 보통, X: 부족함)

내용 영역	내용	3월 25일	5월 27일	7월 29일	09월 26일	11월 29일	01월 31일
생활습관	1. 혼자서 신발을 벗거나 신으려 시도한다.	O	O	O	O	O	O
	2. 낮잠이나 휴식 시간에 스스로 자리를 찾아간다.	O	O	O	O	O	O
	3. 하루의 흐름을 스스로 파악하려 시도한다.	O	O	O	O	O	O
	4. 친밀놀이 전구놀이에 적극적 반응을 한다.	O	O	O	O	O	O
또래관계	1.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간다.	O	O	O	O	O	O
	2. 장난감을 함께 사용하거나 교고받는다.	O	O	O	O	O	O
	3. 두세살 학생들 모방하며 놀이에 참여하려 한다.	O	O	O	O	O	O
	4. 간단한 노래나 율동을 한다(박수, 몸흔들기 등).	—	—	—	—	O	O
	5. 또래와의 갈등 시 교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O	O	O	O	O	O
감정조절력	1. 하루의 감정을 간단한 '말'(놀이, '좋아'')로 표현한다.	O	O	O	O	O	O
	2. 울거나 떼가 날 때 주시어 도움을 받아 진정한다.	O	O	O	O	O	O
	3. 두세살 경은 주시 활동이 조금씩 참는 부분을 보인다.	O	O	O	O	O	O
	4.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는 않은 표현하려 한다.	O	O	O	O	O	O
	5. 감정을 표현한 후 비교적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는다.	O	O	O	O	O	O
위생습관	1. 손이나 얼굴이 더러워지면 닦으려고 한다.	O	O	O	O	O	O
	2. 양치나 손 씻기 등의 위생 활동에 흥미를 보인다.	O	O	O	O	O	O
	3. 숫자 '1'은 '2' 개념 없이 위생 활동을 스스로 시도한다.	O	O	O	O	O	O
	4. 손 씻기나 양치질을 스스로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O	O	O	O	O	O
식사습관	1. 식사 시간에 바르게 의자에 앉으려 한다.	O	O	O	O	O	O
	2. 식사 도구(숟가락, 포크)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는다.	O	O	O	O	O	O
	3.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해 먹으려고 한다.	O	O	O	O	O	O
	4. 편식 없이 다양한 음식을 맛보려고 한다.	—	—	—	—	—	O
	5. 배가 부르거나 더 먹고 싶은 의사를 표현한다.	O	O	O	O	O	O
배변습관	1. 화장실 간다는 의사표시, 혼 자서 화장실 사용한다.	O	O	O	O	O	O
	2. 배변 장소를 인식하고 사용한다.	O	O	O	O	O	O
	3. 대소변 후 손 씻기 등을 위생적으로 한다.	O	O	O	O	O	O
	4. 배변 경고를 간단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	—	—	O	O	O



2024년 이음 성장발달 자체체크리스트

성명	[redacted]	성별	남	생년월일	2021. 05. 06.

(O: 설명, △: 보통, X: 부족함)

내용 영역	내용	3월 25일	5월 27일	7월 29일	09월 26일	11월 29일	01월 31일
생활습관	1. 혼자서 신발을 벗거나 신으려 시도한다.	O	O	O	O	O	O
	2. 낮잠이나 휴식 시간에 스스로 자리를 찾아간다.	O	O	O	O	O	O
	3. 하루의 흐름을 스스로 파악하려 시도한다.	—	—	—	—	O	O
	4. 친밀놀이 전구놀이에 적극적 반응을 한다.	—	—	—	—	—	—
또래관계	1.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간다.	—	—	—	—	O	O
	2. 장난감을 함께 사용하거나 교고받는다.	—	O	O	O	O	O
	3. 두세살 학생들 모방하며 놀이에 참여하려 한다.	O	O	O	O	O	O
	4. 간단한 노래나 율동을 한다(박수, 몸흔들기 등).	—	—	—	—	—	—
	5. 또래와의 갈등 시 교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O	O	O	O	O	O
감정조절력	1. 하루의 감정을 간단한 '말'(놀이, '좋아'')로 표현한다.	O	O	O	O	O	O
	2. 울거나 떼가 날 때 주시어 도움을 받아 진정한다.	O	O	O	O	O	O
	3. 두세살 경은 주시 활동이 조금씩 참는 부분을 보인다.	—	—	—	—	O	O
	4.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는 않은 표현하려 한다.	—	—	—	—	—	—
	5. 감정을 표현한 후 비교적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는다.	O	O	O	O	O	O
위생습관	1. 손이나 얼굴이 더러워지면 닦으려고 한다.	O	O	O	O	O	O
	2. 양치나 손 씻기 등의 위생 활동에 흥미를 보인다.	O	O	O	O	O	O
	3. 숫자 '1'은 '2' 개념 없이 위생 활동을 스스로 시도한다.	O	O	O	O	O	O
	4. 손 씻기나 양치질을 스스로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O	O	O	O	O	O
식사습관	1. 식사 시간에 바르게 의자에 앉으려 한다.	O	O	O	O	O	O
	2. 식사 도구(숟가락, 포크)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는다.	O	O	O	O	O	O
	3.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해 먹으려고 한다.	O	O	O	O	O	O
	4. 편식 없이 다양한 음식을 맛보려고 한다.	—	—	—	—	—	O
	5. 배가 부르거나 더 먹고 싶은 의사를 표현한다.	—	—	—	—	O	O
배변습관	1.배변 후 간단한 정리(옷, 손 입기 등)를 시도한다.	X	X	X	X	—	—
	2. 배변 장소를 인식하고 사용한다.	O	O	O	O	O	O
	3. 대소변 후 손 씻기 등을 위생적으로 한다.	X	X	—	—	—	O
	4. 배변 경고를 간단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	—	—	O	O	O

II 영유아이음 – 전이기 영아를 위한 연계활동

1) 전이기 적응을 위한 '형님반 탐방하기' (형님반 교실과 놀이공간을 미리 둘러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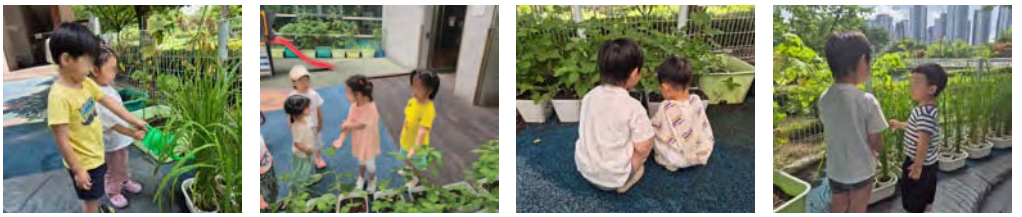
2) 형님반·동생반 짝 활동을 통한 적응 지원 (만2~3세 짝을 이뤄 전이 짝꿍 놀이 진행)



3) 연령 간 유대감을 높이는 만2~3세 함께 놀이하기 (주기적인 통합 이음놀이 시간 마련)



4) 자연 속 협력과 성장, 벼 물주기 연계 활동 (형님과 함께 자연을 돌보며 주체성 형성과 사회성 발달)



5) 만 2세 성장 포트폴리오 -> 만 3세 교사와 공유 (만 2세 발달 수준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








Ⅲ 가정이음 - 가정과 어린이집을 잇는 마음 그리고 소통

1) 가정-기관 소통 강화를 위한 만 2-3세 이음교육 정보 제공 (발달 특징, 이음 준비사항, 기관 생활의 변화)







2) 이음 - 오픈 클래스 데이를 통한 부모참여프로그램 (학부모님이 형님반 교실을 함께 방문하여 함께 놀이에 참여)










3)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가정 연계 지도 (가정에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 가이드를 제공)









Ⅳ 지역사회 이음 - 이야기 듣고, 함께 걷고, 함께 사요! "지역사회 속 이음 이야기!"

1) 지역 인사 협력 - 이야기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음동화 프로그램 활동



2) 만 2~3세 이음 걷기대회 - 형님 손잡고 한 걸음, 함께하는 성장의 길 (만2-3세 대상 진행)



3) 또래 협력 강화를 위한 형님 - 동생이 함께하는 지역마트 나들이 (짝을 이루어 방문진행)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교사 간 협력으로 이음교육을 만들어봅니다. 이음교육은 다른 연령, 기관이 함께 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본 사례의 교사들은 이음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자체연수와 관찰일지 공유, 협의회 운영을 하며 기관만의 이음교육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령간 이해를 돕기 위한 관찰일지 공유 과정이 매우 돋보입니다. 2세 영아의 관찰기록과 보육내용을 기초로 공동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좋은 예시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영아의 발달을 평가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개별적인 관찰 사례와 더불어 개별 영아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성장 과정에 대한 평가는 지원 과정에서 연결성, 연속성을 담아낼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실행과정

공간 탐색과 놀이가 연속됩니다. 1년 동안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은 영아에게 설렘과 동시에 불안을 동반한 도전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전이의 과정에서 영아가 앞으로 생활하게 될 공간을 미리 방문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환경에 대한 친숙함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음교육의 과정입니다. 또한 '통합이음놀이'를 통해 영아와 유아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함께 놀이하는 경험은 발달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술과 친밀감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놀이로 전이를 완화하고,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이음교육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 참여형 이음교육입니다. 이음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 활동이 중요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게시판과 팸플릿을 통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유아반 교실을 방문해 놀이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부모가 유아반 환경과 놀이를 직접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에 신뢰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육과정의 주체로서 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교사와 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합니다. 영아의 성장 포트폴리오 공유와 공동 계획, 부모들의 부모 참여 프로그램과 가정연계활동, 이야기할머니와 마트 방문 등의 지역기반 자원 활용과 기관 방문을 하며 이음교육 주체가 모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지원 체계는 영유아의 행복을 뒷받침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5

함께해서 더 즐거운 하루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 영아와 유아의 이어지는 성장 이야기)

전체 내용 보러가기

관양어린이집

1. 개요

1) 교사학습 공동체 지원 및 영아-유아 이음교육 취지

영아와 유아가 함께 놀이하고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연속성 있는 관계 형성, 배려와 협력의 공동체 의식 함양, 자신감 있는 사회적 관계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아가 영아를 돌보고 이끄는 역할을 경험하며 리더쉽과 책임감을 기르고, 영아는 유아를 관찰하고 모방하며 사회적 자극을 자연스럽게 경험함으로써 이어지는 교육과정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구성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교육의 주체들이 교육에 대한 가치, 신념을 공유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유대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협력해 나간다.

2) 영아-유아 이음교육 교사 학습공동체 협의사항

순서	협의사항	영아 - 유아 이음교육	
1차 협의	**흥미와 관심의 시작**	- "새로운 동생과 형님들이 왔어요" - 계획된 계획안을 토대로 이음교육 설정	
2차 협의	**영아-유아 이음교육 사전준비**	- 발달 단계 차이에 대한 이해 - 안전한 환경 조성 - 상호작용 중심의 활동 설계	- 교사의 중재와 지원 - 놀이 중심 활동 구성 - 가정 및 지역 사회연계
3차 협의	**이음교육 월별로 분류하기**	- 설레임 분류: 관계맺기 - 새로운 반에서 너희를 응원해! 작은 선생님 - 그림책 보기 기저귀 파티	
4차 협의	**"함께함" 놀이 선정**	- 설레임 평가회	- 함께함 분류: 급식도우미-형님과 함께 식사를~ 물놀이-첨벙 첨벙 물놀이다! 생일파티- 형님들의 축하공연!
5차 협의	**"성장함" 놀이 선정**	- 함께함 평가회	- 성장함 분류: 텃밭가꾸기-신나는 텃밭활동! 플리마켓-시장놀이를 함께 해요 합동결혼식-결혼식에 초대합니다~~~!
6차 협의	**"기대감" 놀이 선정**	- 성장함 평가회	- 기대함 분류: 숫자 패션쇼-초대받았어요 전시회초대-빛과 그림자 무럭무럭 환영식
7차 평가	**이음교육 평가회**	- 교육목표와 활동 계획은 명확한가? -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 고려했는가? - 활동 환경과 안전 확보했는가?	- 교사의 역할과 지원은 적절했는가? - 부모들에게 가정과의 연계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2. 영아-유아 이음교육 흐름 및 계획



영아-유아 교육과정에 맞춘 이음교육 수정안

분류	활동일시	활동 내용
"설레임"	**3월~5월**	영아와 유아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안정감을 형성.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를 높이고 정서적 연결을 돕는 시간.
"함께함"	**6월~8월**	공동의 경험을 통해 협력과 배려를 배우며 즐겁게 상호작용한 활동.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 기르기.
"성장함"	**9월~11월**	주도적 참여를 통해 자율성과 자신감을 기른 활동. ***탐색과 표현을 통해 유아와 영아 모두 성장의 기회를 경험.
"기대함"	**12월~2월**	자신을 표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한 활동. ***성장에 대한 자긍심과 유대감 형성.

3. 영아-유아 이음교육 내용

교사고민

새로만나는 영아-유아에게 이음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게 지원되고 있나?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설레임

- **주 제: 관계맺기-새로운 반에서 너희를 응원해!**
- **내 용:** 3월에 월반이나 입학한 영아들이 적응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유아들이 함께 모여 환영의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

*유아는 배려심과 책임감, 영아는 안정감과 소속감 형성.




"동생들아 입학을 축하해! 울지말고 잘 지내자~"
"형님들 고마워~"

실천방법

그림책 보기 활동시 영아,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그림책을 선정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설레임
형님께 다가가요~~

- **주 제: "작은 선생님" – 그림책 보기**
- **내 용:** 일과 중 영아, 유아들이 함께 도서를 읽는 활동 시간도 경험해 보았는데,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을 읽으면서 언어 표현력이 상승되며 책에 대한 흥미와 읽기에 대한 동기가 강화.

*형님께 다가가며 영아와 유아와의 상호작용, 사회성 향상




"형아가 직접 만든 책을 소개해줄게!" "형님들이 책을 읽어준대요!"
"형님들과 함께보니 더 재미있어요~"

교사고민

교사의 역할과 지원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설레임

- **주 제: 기저귀 파티~~**
- **내 용:** 유아가 배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진행한 기저귀 파티를 진행하고 기저귀 파티 용품을 영아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며 놀이가 확장, 연계.

*교사는 가정과 연계하여 대소변을 가릴 수 있도록 협력지원




"형님들이 우리한테 기저귀 케이크를 줬어요!
우리도 팬티를 입을 수 있어요."

교사고민

형님과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

한달에 한번씩 영아-유아가 식사하는 날을 정해봐요~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함께함

- **주 제: 급식도우미**
  – 형님과 함께 식사를~
- **내 용:** 한 달에 한 번, 형님들이 영아들에게 와서 배식을 해주는 「배식 Day」에는 유아들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경험해볼 수 있고, 배식하는 과정에서 식기 다루기, 위생 개념 등을 배울 수 있는 활동.

*영아들은 형님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기본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배워볼 수 있고, 배식을 기다리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지키는 경험을 함.




"형님들이 골고루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언니들이 배식해 주는 날~"

실천방법

물놀이
여름에 영아 – 유아가 가장 흥미있어 하는 물놀이 안전을 체크해 보기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함께함

- **주 제: 물 놀이 – 첨벙 첨벙 물놀이**
- **내 용:** 유아가 물놀이 놀이기구 사용법과 안전 수칙을 영아에게 소개하고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돌봄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음 활동으로 진행됨.

*영아와 유아가 함께 물놀이 할 때 영아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 해주기




"동생아! 형이랑 물총놀이 하자! 동생아! 꼭 잡아!"
"누나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까?"

교사고민

이음교육을 확대하여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함께함

- **주 제: 생일파티-형님들의 축하공연!**
- **내 용:** 생일을 맞이한 영아에게 유아가 악기 연주, 노래, 축하 인사를 준비하여 영아반 생일 주인공을 축하해주고, 유아는 동생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을 스스로 기획하고 협동하여 준비함.

*생일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태도를 형성하였고, 가정-어린이집이 함께 축하하는 가정연계




"동생아! 생일 축하해! 형님 고마워!
언니, 오빠의 축하공연 멋져요~! "

실천방법

텃밭 놀이시 영아와 유아의 이음교육에 어떤 의미가 될까?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성장함

- **주 제: 텃밭가꾸기-신나는 텃밭활동!**
- **내 용:** 유아는 영아에게 씨앗을 심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물 주는 활동을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 하였고, 영아는 형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호기심을 확장하고 안전하게 활동에 몰입.

*영아와 유아가 함께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음.




"같이 물 줘볼래?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같이 키워서 더 맛있겠다!"
"형님 도와줘서 고마워. 동생아 조심해~"

교사고민

시장놀이시 교사의 역할과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성장함

- **주 제: 플리마켓-시장놀이를 함께 해요.**
- **내 용:** 유아가 상인 역할을 맡고, 영아가 손님 역할로 참여하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이음 놀이로 구성.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형님으로서 동생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함.

*시장놀이 물건을 구비하고 시장놀이에 관한 다양만 물품을 지원




"채소 사세요!과일 사세요!" "이 가지는 얼마인가요"

교사고민

가정과의 연계로 지원물품을 어떤 것으로 안내가 나가면 좋을까?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성장함

- **주 제: 합동결혼식-결혼식에 초대!**
- **내 용:** 결혼식 진행 과정에서 영아는 유아가 준비한 예식 절차와 축하 놀이를 관찰하고 참여하고 영아반 동생들을 하객으로 초대함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이음 중심 활동.

*가정과의 연계로 결혼식에 준비되는 물품을 어린이집으로 보내달라는 안내




"짜잔~~~! 형님반 결혼식장으로 초대합니다!"
"행진할 때, 동생들이 박수와 함께 꽃가루를 뿌려주어서 너무 멋져요~"

교사고민

패션쇼를 진행할 때 영아-유아의 교육적 경험은 무엇일까?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기대함

- **주 제: 숫자 패션쇼-초대 받았어요**
- **내 용:** 유아가 영아 동생에게 숫자 개념과 의상을 소개하는 이음 중심의 상호작용 활동으로 구성.

*마을과 협력하여 전시 일부를 외부로 확장함으로써 유아의 배움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통합적 교육 경험으로 실현.




"언니, 오빠의 옷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
나는 몇 살이에요? 형님들은 몇 살이에요?"

교사고민

빛과 그림자 놀이 시 동생들을 초대했을 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까?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기대함

- **주 제: 전시회 초대-빛과 그림자 전시회**
- **내 용:** 유아가 만든 빛과 그림자 작품을 영아반 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전시회에 유아가 영아들을 초대하여 놀이에 함께 참여.

*영아가 전구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유아가 지켜보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듦




"동생들아! 신기한 것 보여줄게~ 여기에 올려놓으면 그림자가 보여!"
"반짝반짝 빛이 나요! 우와 신기하다! 누나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교사고민

영아 환영식 진행시 가정과의 연계는 어떻게 알릴까?

학습공동체 지원 이음놀이: 기대함

- **주 제: 무럭무럭 환영식**
- **내 용:** 영아반에서 유아반으로 진급하는 아이들을 축하하며 유아들이 환영식을 진행하여 진급한 영아는 환영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

*연령 간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이음교육의 의미를 실현한 사례로, 공동체 의식 형성과 안정된 전이 경험을 돕는 데 기여.




"우리도 이제 형님반이에요? 아가였는데 이제 언니가 되었어요!"
"동생아 형님반이 된 걸 축하해!"

4. 가정 및 지역사회와 함께 영아-유아 이음교육 지원

두드림 난타 공연 재료 가정지원	〈 쿵짝 쿵짝 두드림 난타에 동생을 초대해요 〉    "낡은 냄비, 프라이팬, 국자로 악기를 만들었어요." "재활용 캔으로 실로폰을 만들었더니 예쁜 소리가 나요." "언니 오빠한테 보여줄 거예요"
숫자 패션쇼 용품 가정지원	〈 숫자에 마음을 담다 〉    "숫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작아진 옷, 낡은 옷을 보내주었어요" "가정에서 보내주신 가족사진을 통해 우리 가족의 나이에 숨은 숫자를 알아봤어요.
지역사회 로컬푸드 원산지 체험	〈영아-유아랑 마을에서 만난 자연의 이야기〉    "우리 감자는 땅 속에서 언제 나와요? 매일 보러 오고 싶어요." "동생아, 딸기를 많이 따서 엄마에게 갖다 드리자."

5. 영아- 유아 이음교육 결과 및 평가

영유아 변화	영아는 유아 형·누나의 행동과 말을 모방하며 언어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환경과 활동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과 호기심을 보임. 유아는 동생을 배려하고 이끄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리더십을 경험하였으며, 설명하거나 도와주는 활동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강화.
부모의 변화	플리마켓 기부 활동, 지역행사 참여, 영아의 참여 연계 등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집이 지역사회 속 교육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음교육의 경험은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짐. 가정과의 연계 및 소통 기반도 강화.
교사의 변화	연령 간 통합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교사는 유아와 영아의 발달 특성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전문성 향상. 유아에게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주체로서의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짐.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영아와 유아의 경험 중심 계획입니다. 이음교육에 참여하는 영아와 유아들이 서로를 만날 때 사회 정서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 '설레임', '함께함', '성장함', '기대함'이라는 단계가 인상적입니다. 서로 다른 연령이 만났을 때 경험할 영아와 유아의 변화과정에 대한 교사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7차에 걸친 협의와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영아와 유아 이해를 위한 발달 단계 차이와 적절한 환경 준비 등의 사전 준비과정과 놀이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사 협의회 과정이 평가와 실행의 성찰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과정

교사의 고민이 있는 실행입니다. 이음교육의 실행 내용의 시작은 교사의 고민이 함께합니다. 이음 교육의 취지나 활동에 적합한 자료의 선정, 교사의 지원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음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활동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영유아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지속적 공동 경험을 통한 이음이 실천됩니다. 입학 환영부터 책 읽어주기, 함께 식사하기, 물놀이, 텃밭 가꾸기, 진급 환영식에 이르기까지 영아와 유아의 경험이 1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유아들은 동생을 돌보며 주도성과 리더십을 기르고, 영아들은 돌봄과 배려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매달 진행되는 유아의 배식 지원이나 텃밭 가꾸기 활동은 이음교육이 특정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실천되는 교육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아의 정교한 조작 능력과 풍부한 언어 표현은 영아에게 긍정적 자극이 되어, 발달의 연속성과 상호 배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음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음교육을 경험한 영유아, 부모, 교사의 변화가 드러나 있습니다. 영아는 모방을 통한 언어적 표현 증가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친숙함과 안정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유아는 책임감과 리더십을 경험하고 자존감이 향상되었습니다. 영아와 유아 모두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부모는 가정 연계활동과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어린이집과 소통이 강화되고 교사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을 차이를 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장은 내일의 걸음을 만듭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6

이음아 놀자

전체 내용 보러가기

국공립강상어린이집

1. 프로그램의 내용

본 어린이집의 이음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기반한 핵심 가치가 일상속에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교육, 텃밭활동을 통한 식생활교육, 세시풍속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을 함께하며 자연과의 공존 가치를 배워간다.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삶의 가치를 배워가는 이음교육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 및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영유아, 부모, 교사, 지역사회 간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관계' 이음	'놀이' 이음	'가치' 이음
인성교육 및 기본생활습관 지역사회와의 협력 →	놀이중심 교육과정 →	지속가능한 교육 (식생활,환경,세시풍속)

- **'관계'이음:** 형님과 동생이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관계를 맺고,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 **'놀이'이음:** 개정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기반한 보육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상호 간 차이를 줄이고, 교육적 가치와 원리를 공유한다.
- **'가치'이음:** 영유아, 부모, 교사, 지역사회 간 협력적 관계를 통해 영.유아의 삶과 경험의 연결,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를 배운다.

2.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외동 및 한 자녀 가정의 증가로 또래 및 다양한 연령 간 상호작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의 사회성 발달 지연, 자기중심성, 낮은 공감능력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령별 이음교육은 또래 및 이질 연령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통해 협력, 배려, 책임감 등 사회정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적 접근으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간 단절을 줄이고 상호존중의 문화를 형성

-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협력, 배려, 책임감, 문제 해결력 등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한다.

2. 놀이와 일상을 의미 있게 연결

- 텃밭활동을 통해 수확한 채소로 음식을 만드는 활동, 세시풍속과 환경 캠페인을 연계한 놀이 등을 통해 놀이의 경험이 일상의 배움으로 확장될 수 있다.

3. 가정·어린이집·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계교육을 실현

- 유아기부터 공동체 가치와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돕는다.

4.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

- 새활용 놀이, 친환경 식생활교육, 환경의 날 캠페인, 세시풍속 전통문화 체험 등을 이음교육 관점에서 통합함으로써 연령혼합 놀이를 통한 주도적, 참여적 학습 경험을 확장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어린이, 전통을 배우고 존중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실행



놀이 속 배움

형님과 동생이 잇는 전통의 숨결, 단오 이음교육

형님과 동생이 함께 수리취떡을 만들고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놀이의 목적을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들은 우리 고유 세시풍속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동체 소속감과 전통을 계승하는 자긍심을 키웠다.

가정과 교육을 잇는 단오, 배움의 연결고리

가정에서도 단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전통놀이를 함께 하며 영유아의 배움이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교육과 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음교육의 효과를 경험하였다.

8월. "ESG 텃밭요리대전"

(실행 기간 : 4월 18일 ~ 8월 23일)

씨앗에서 식탁까지,
텃밭으로 잇는 이음



놀이 속 배움

자연을 가꾸며 마음을 잇는 텃밭 이음교육

함께 모종을 심고 가꾸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는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텃밭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서도 수확한 텃밭 작물로 건강 밥상을 준비해보며 배움이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자라는 이음의 힘

형님과 동생이 텃밭 작물을 수확하고 함께 요리를 준비하며 공동체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였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사고와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자라났다.

9월. 강상 저잣거리 여행 "추석"

(실행 기간 : 9월 9일 ~ 9월 20일)

풍성한 한가위,
사랑과 전통을 잇는 이음의 숨결



놀이 속 배움

전통을 나누고 마음을 잇는 한가위 이음교육

형님과 동생이 함께 한가위 놀이와 전통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과 저잣거리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계승하려는 자긍심이 자라났다.

놀이에서 공동체로, 나눔으로 이어지는 이음의 배움

함께 만든 음식을 지역사회와 가정에 나누며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였고, 놀이에서 시작된 배움이 일상생활과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책임감과 배려심을 기르고, 교육과 삶이 연결되는 이음교육의 의미를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4. 프로그램의 결과 및 평가 프로그램 실행

유아 평가

'관계' 이음	'놀이' 이음	'가치' 이음
• 연령 혼합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배려, 책임감, 협력 등 사회정서적 역량이 증진됨. • 신뢰 형성과 감정 공유를 통해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함.	• 연령 간 상호작용을 통한 모방과 역할 수행을 경험하며, 놀이의 다양성과 주도성을 확장함. • 또래 간 놀이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타남.	•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됨. • ESG 가치인식, 환경보호, 나눔, 협력 등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면화함.

부모 평가

• 이음교육이 영유아들의 삶과 연결되는 경험

자녀가 연령이 다른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배려심과 책임감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성장을 실감하고, 가정과 연계된 이음활동 참여를 통해 이음교육이 영유아들의 삶과 연결되는 경험임을 인식하게 되었음.

이음교육에 대한 부모의 사전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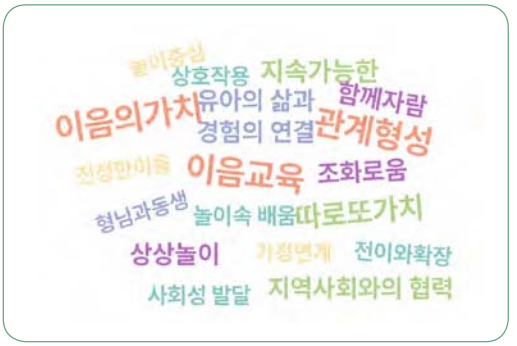


이음교육에 대한 부모의 사후인식 조사



교사 평가

이음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진정한 이음이란 무엇인가?”, “다른 연령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연령 간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놀이 중에는 영아의 반복놀이가 유아의 상상놀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사는 이음교육이 단순한 연령통합이 아닌, 배움과 돌봄, 상호성의 관계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교육’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실천방향으로서의 가치를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5.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이음교육을 통해 영·유아들은 또래 간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님-동생 관계를 맺으며 **배려와 협력의 감정을 경험하고, 서로 다른 연령과의 상호작용을 즐기며 놀이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다.
본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간 단절을 줄이고 상호존중의 문화 형성

- 연령 간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배려, 책임감, 리더십을 기르며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놀이와 일상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깊이 있는 배움 실현

- 세시풍속, 텃밭활동, 환경캠페인 등을 통해 놀이 경험이 일상의 의미있는 배움으로 확장할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실현

-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실제 삶의 공간에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방향 제시

- 재활용, 친환경, 세시풍속 활동을 통해 환경과 가치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영유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지속 가능성의 기반에서 이음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음교육을 한 사람의 성장에서 보면 성장의 연속성을 돕기 위한 것인데 다르게 보면 이전 경험이 다음의 경험과 이어지며 지속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자연, 생명과 결부하여 자연의 한 존재로서 영유아의 가치,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생명 연결자로서의 영유아의 역할을 이음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환경과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생명의 성장 경험의 텃밭가꾸기, 환경 자원과 보호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과 전통과의 연결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통이 갖는 특징은 나누고 함께 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이러한 의미를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행과정

놀이 안에서 이음을 합니다. 이음교육이 단순히 한 번의 전이 경험에 그친다면, 그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나무와 재활용, 축제 등 서로를 연결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이 누적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영유아가 나무와 교감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나무를 꾸미며, 봄 축제를 함께 즐기는 과정은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음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음교육이 특정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놀이와 삶의 흐름 속에서 영유아의 발달과 배움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교육적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경험이 경험으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험에 가치가 담겨야 합니다. 단오놀이 한마당, 환경의 날, 텃밭, 추석 등의 활동에서 공유, 나눔, 존중, 협력 등의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세시풍속을 경험하며 함께 하는 공동체, 따뜻함을 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함께 이음합니다. 이음교육의 실천에서는 영유아의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핵심 지원체계로 작용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소방서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하고, 지역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의 장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영유아가 지구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시민에게 전하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경험하는 점도 의미 있습니다. 영아·유아·교사·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때, 이음교육은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교육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7

일상 한 조각, 이음 한 걸음

전체 내용 보러가기

산새소리어린이집

1. 영-유아 이음교육의 중요성을 알다.

영아반에서 유아반으로, 반은 바뀌고 선생님도 바뀐다. 함께 놀던 친구는 멀어지고, 익숙했던 놀잇감과 교실 풍경도 낯설게 느껴지며 아이들의 작은 세계에서 '변화' 란 생각보다 훨씬 큰 파도로 다가왔다.

어느 날, 영아반에서 매일 환하게 웃으며 등원하던 아이가 반이 바뀌고 난 뒤에 말수가 줄고, 놀이에도 쉽게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를 지원하면, 변화가 덜 두렵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 해답은 '영아 유아가 함께하는 놀이'에 있었다.

또래 또는 연령이 다른 친구들과의 공존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서로를 관찰하고, 때로는 따라 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였다.

영아와 유아가 어우러지는 함께하는 놀이는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 변화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키고,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이음의 장'이 되었다. 이 글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실천한 함께 놀이를 기반으로 한 이음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영아, 유아라는 '연령의 경계'를 허물고 '관계의 다리'를 이어 놓은 시간을 담고자 했으며 작지만 의미 있었던 그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2. '영·유아 이음교육 연결의 시작'(현관)

아침 등원, 바깥놀이를 나갈 때 유아들은 먼저 신발을 신고 바깥놀이를 준비하고 있었고 잠시 후 영아반 친구들이 교사의 손을 잡고 신발을 신으러 나왔다. 영아들이 자신의 신발을 찾아 꺼내어 스스로 신으려고 했으나, 잘 신겨지지 않자 선생님을 바라보며 울거나, 교사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몇 몇 유아가 "내가 도와줄까?"라고 말하며 신발 신기를 도와 주었다. "응"하며 끄덕이거나, 형님들의 모습을 쳐다보는 영아들도 점차 유아들의 도움을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친근감을 '칭찬이음스티커','미소','손뼉치기',눈빛과 손길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소극적으로 바라보던 유아들도 도움을 주는 친구들의 모습과 반복되는 일상에 용기내서 함께 도움을 주는 모습속에 성취감을 엿보았으며, 자연스럽게 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형님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어린이집 현관은 신발을 신고 벗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영유아가 매일 마주치며 눈빛과 손길로 관계를 시작하는 '이음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작은 만남이 화단, 화장실, 복도, 교실 등 어린이집 전 공간으로 확장되어 관찰→모방→역할 놀이→협력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경험을 안겨주었다. 영유아들은 화장실 앞 줄서기와 복도를 지나갈 때 서로의 행동을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고 영아들은 유아의 도움 행동이나 스스로 하는 손씻기, 줄서기 모습에 모방을 하며 모든 영유아가 일상 속에서 주도적 상호작용 경험을 익히는 모습이었다.

3. 이음교육 사례

1) 호박 기차를 움직여요 (마음도 함께 움직이는 날)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진행되는 채소 놀이터 놀이는 영양 교육을 넘어 자연과 관계, 협력의 이음으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이번 놀이에서는 '호박'을 주제로 한 놀이가 이루어졌다. 텃밭가꾸기에서 보았던 호박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된 놀이는 영유아들과 함께 확장놀이가 되었다. 영아들은 상자에 호박을 담고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호박 기차를 이끌며 놀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스가 무겁고 바퀴가 없어 잘 움직이지 않자, 한 영아가 의아한 듯 "왜 안 움직이지?"라고 말하며 멈춰 선다.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아들이 다가와, "우리가 도와줄까?"라고 제안하자, 영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쁜 표정을 보였다. 유아들은 기꺼이 박스를 손으로 밀어보았지만, 호박과 상자의 무게 때문에 기차는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유아들은 놀이를 잠시 멈추고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거 무거워서 잘 안 밀려." ,"무거운 건 바퀴로 밀면 되는데…" "바퀴 없잖아… 우리 교실에 뭐가 있었지?" 아이들은 기억을 더듬으며 도구를 떠올렸다. 그리고는 교실에 있던 파라슈트를 이용해 미끄러지는 효과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유아들은 파라슈트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호박 상자를 조심스레 올린 후, 영아가 기차에 타도록 안내했다. 친구들과 손을 모아 파라슈트를 당기자, 상자는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영아는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다. 움직이는 '호박 기차'는 단순한 채소 놀이가 아닌, '아이들 사이의 마음을 잇고 함께 협력하며 완성한 특별한 놀이'가 되었다. 영아는 유아의 도움으로 기차놀이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었고, 유아들은 문제 상황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유대감을 깊이 느꼈다.

교사의 관찰과 지원

영아와 유아가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혼합 놀이환경을 구성하고, 놀이가 중단되지 않도록 교사는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놀이속 안전에 유의하였다. 유아의 자발적인 도움과 해결과정을 신중히 지켜보며 문제 상황을 스스로 풀어가는 힘을 존중하였다. 파라슈트를 꺼내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정리하고 안내하는 간접적 지원을 하였다. 놀이 이후에는 "동생들이 즐거워하던 표정을 봤니?", "함께하니 더 멋지고 즐거운 기차가 됐네!", 형님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행복 호박기차가 됐네?"등의 긍정적인 언어 피드백을 제공하여 놀이 속 협력과 성취의 기쁨을 강화하였다. 호박의 이음놀이를 넘어 가정에서 호박전을 만들어 먹어보는 연계활동도 지원하였다.

2) 영유아 날씨 방송국(역할과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맺는 놀이)

봄철 미세먼지등 계절의 변화에 호기심을 보이며 아이들이 날씨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포착하고, '날씨'를 주제로 다양한 역할과 표현이 가능한 '0000 날씨 방송국' 프로젝트 놀이를 함께 하게 되었다. 이 놀이는 단순한 발표 중심 활동이 아니라 몸짓·소품·언어 표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역할과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세는 동작(몸짓,표정) 위주의 비언어적 표현과 의상이 섞인 표현활동과, 신체표현을 통해 날씨 요정으로 참여하였고, 3세는 요정의 대사를 전하며 1세의 표현을 도와주었다. 햇님 요정은 손을 머리 위로 동그랗게 만들고, 바람 요정은 손을 불며 슈우~ 바람 소리를 내는 등 1세 아동의 표현에 3세 아동이 함께 곁들여 대사를 말해주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이음의 한걸음'이었다.

4세는 지역 리포터가 되어 서울, 부산, 평택 등 지역별 날씨를 전달하며, 2세는 지도에 날씨 아이콘을 붙이거나 우산, 모자 같은 소품을 들고 등장했다. 2세 아동이 긴장한 듯 머뭇거리자 4세 친구가 "이리 와, 같이 해보자!"며 손을 잡아주었고, 자연스럽게 두 아이가 함께 우산을 펼쳐 보이며 역할을 마쳤을 때 환한 웃음이 번졌다. 놀이가 반복될수록 2세 아동은 점차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스스로 아이콘을 붙이며 '내가 하는 놀이'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4세 형님들은 2세 동생들이 긴장한 듯 머뭇거리며 먼저 손을 내밀며 "내가 도와줄까?",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이야기 하면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연령 간 관계를 유연하게 잇는 '이음의 실천'이었다.

마지막으로 5세 유아는 세계 특파원 역할로 확장된 날씨 소식을 전달하였다. 뉴욕, 베이징, 베트남의 날씨를 또박또박 전하며, 어린 동생들이 보내주는 아이콘을 기다리는 모습은 놀이 안에서 연령 간의 자연스러운 '기다림'과 '배려'가 스며든 순간이었다. 날씨 요정부터 세계 특파원까지 모두가 참여한 이 놀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역할을 마치고 함께 인사할 때 아이들 모두가 "다음에 또 하자~!" "나 내일은 바람 요정 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서로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다음 놀이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비록 연령은 다르지만,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같은 팀', '같은 방송국 식구'로 연결되며, 놀이가 끝난 뒤에도 "햇님 요정~ 안녕~" 하고 인사하며 서로를 기억하고 호명 해주는 장면이 일상 속에서도 자주 포착되었다. 이번 '0000 날씨 방송국' 놀이는 단순한 역할극을 넘어, 아이들의 몸짓과 말, 손짓과 표정이 이음을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경험의 장이었으며, 이는 곧 영유아 이음교육의 의미를 실천한 사례로 남았다.

동생들이 날씨카드를 붙이기 어려워하니 형님들이 도움을 주고 동생들은 고마운 마음을 눈인사로 표현함



"언니가 도와 줄게!"
"여기가 부산이라는 곳이야",

차례가 되어 짝꿍인 형님과 동생이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참여하는 모습,기상캐스터 비소식에 원장님도 우산을 들고 참여함



"구름은 여기로 가자,"손잡고 같이 갈래?"
"도와주세요"

동생이 놀이의 방법을 어려워하니 형님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동생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음



"내가 도와줄게!"(우비)
"나하고 같이 해보자"

교사의 관찰과 지원

봄철 미세먼지, 황사등으로 마스크를 하고 등원한 영유아의 질문이 놀이가 되었다. 날씨를 구성함에 있어서 단순한 날씨예보보다, 유아의 호기심있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방송국 속 날씨예보를 놀이로 연결해보았다. 각종 소품을 유아들이 생각해내고 교사는 소품등 환경을 지원해 주었으며, 깜짝 방문으로 원장님이 함께 우산을 들고 이음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배움놀이라는 부분에 영아들이 유아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놀이로 될까? 교사회의를 통해 고민도 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교사로서 이번 놀이를 관찰하며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역할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아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었다. 단순히 '도와주는 형님, 도움 받는 동생'의 구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과 표현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과정, 손을 잡고 용기를 주는 순간, 함께 즐거워하며 웃는 모습에서 진정한 이음교육이 실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놀이가 막히거나 역할이 중첩되었을 때, "이 역할은 두 명이 함께 해보면 어떨까?", "우산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산 같이 써봐요" 같은 제안을 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사는 아이들의 상호작용이 깊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놀이의 틀을 열어주는 역할만하고, 아이들의 놀이흐름을 관찰하며 개입보다는 지원의 방식으로 옆에서 조력하였다.

3) 어린이집 화단 돌보기(함께 가꾸며 피어난 협력과 배려의 놀이)

놀이터나 복도, 현관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영아와 유아가 자연스럽게 마주치며 관심을 갖는 모습이 잦아졌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활짝 펼치며 관계를 맺고 협력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음 중심의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어린이집 앞 화단을 단순한 식물 가꾸기 공간이 아닌, 영아와 유아가 함께 자연을 돌보며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동의 놀이터'로 재구성 하였다. 우유팩과 가정에서 보내온 패트병이 물뿌리개로 변신되어 유아는 작은 손을 내밀어 영아의 손을 잡고 함께 물뿌리개를 들고 식물에게 물을 주었으며, 익은 토마토와 상추를 따서 바구니에 담으며 "우리가 같이 키운 거야"라고 이야기하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건 내가 심은 꽃이야!" "이거 봐, 잎이 더 자랐어!" 처음엔 조심스럽게 흙을 만지던 아이들의 손끝이 점점 능숙해지고, 이름도 알지 못했던 작은 풀잎 하나에도 "우리 화단 친구"라 부르며 웃음을 주고받는다. 영유아의 주도속에 누구는 물을 주고, 또 누구는 "도와줄까?" 하고 먼저 말을 건넨다. 화단을 함께 가꾸며 나누는 이 짧은 말들, 서로의 손길이 스쳐가는 순간들 속에 '이음의 씨앗'이 심어진다. 어느 날은 비 온 뒤 땅이 질퍽해져 "흙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재미있어!" 하며 손을 더 깊이 넣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날은 꽃잎 하나 지는 걸 보며 "다음엔 더 예쁘게 피게 해줄 거야"라는 다짐이 튀어나온다. 교사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같이 심자", "너는 이쪽 해", "이건 무슨 꽃일까?" 하며 '놀이가 협력이 되고, 배움'이 되어간다.

'같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내리고, 기다림과 배려, 칭찬과 격려가 화단 위에 피어난다.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흙을 만지고, 식물을 관찰하며 이어지는 이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아이들 사이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의 경험들이 모여 이음의 걸음이 되어간다. 놀이의 시작은 단순한 화단 가꾸기였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은 함께의 의미를 배우고, '우리'가 되어간다. 이 모든 순간이 연결되고, 이어지며, 우리는 지금도 이음 속에서 자라고 있다.

영아와 유아가 함께 익을 열매를 관찰하고 수확을 도와주며 이음의 걸음이 됨	키가 자란 자연물을 함께 관찰하며 상호작용을 함	식물을 같이 관찰하며 물을 주는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물을 주고 있음	함께 어린이집 화단을 관찰하며 형님들에게 내 방울 화분을 이야기하고 형님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의 발전이 됨
			
"이건 방울 토마토야" "빨개진 것 만 따야해"	"토마토가 내 키보다 엄청 자랐어"	"방울 토마토가 배가 고픈가봐" "우리가 함께 물을 주자"	"내 화분에도 토마토가 자랐어!" "우와 너무 멋있다!!"

교사의 관찰과 지원

공동의 놀이터인 화단은 영유아 친구들 모두들 함께 모이는 장소이다. 좋아하는 다양한 채소들을 심어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보았고, 가정에서 보내온 재활용 패트병과 우유팩들이 자연스럽게 빗물을 받아 물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물저금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일부 영유아게서는 흥미와 집중도가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에 교사는 아이들의 자율성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우선, 영아들이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몰입하도록 하고 소수의 영유아가 함께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놀이를 시작하기전 영유아 친구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물주기, 수확하기, 바구니 정리하기등) 를 지원함으로써 서로 동일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여러 놀이중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도성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영아에게는 놀이에 대한 안정감과 자율성, 유아에게는 배려하며 기다리는 태도와 함께하는 경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화단이라는 자연공간 속에서 '같이 하되, 다르게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놀이 흐름을 만들어 주었다. 다만, 우유팩 등이 약해 원장님께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저금통 지원을 요청했다. 자연물이 성장하는 모습속에 영유아들이 가정으로 상추등을 가져가기도 하고 먹는 모습을 인증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형님들과 함께한 이음 한 걸음은 귀가시 부모님과 함께 영유아들이 서로 돌보고 있는 자연물의 성장을 격려하기도 하고 식물 이름과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다. 영유아 자연스러운 이음교육은 낯설지 않은 행동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끄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든 영유아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모습을 성장하도록 돕는 시간이 되었으며, 형님들과 물주기를 협력하는 모습도 보이며 영유아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4)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지킴이 놀이' 이야기

어린이집 앞 화단은 영유아가 처음으로 자연을 함께 돌보며 관계를 맺기 시작한 공간이었다. 유아는 영아의 손을 잡고 물뿌리개를 함께 들고 식물에게 물을 주고,익은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따며 생명의 자람을 기뻐했다. 이러한 경험은 단지 식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함께하고 돌보는 관계의 시작점이 되었다.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쓰레기, 날씨, 길거리 풍경 등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지킴이 놀이'*를 구성하게 되었다. 놀이에 앞서 유아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영아들은 그림책과 시청각 자료를 통해 놀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원을 받았다. 놀이가 시작되기 전, 유아와 영아는 짝을 이루어 손을 맞잡고 함께 이동하였으며, 작은 집게와 쓰레기봉투도 함께 나누어 들었다.

놀이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어린이집 주변을 함께 걸으며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발견하고, 유아는 “여기 있어” 하며 먼저 기회를 양보하거나 영아의 손을 이끌어 함께 집는 모습도 보였다. 처음에 영아들도 쓰레기를 함께 줍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와 체력이 떨어진 일부 영아는 주의가 분산되어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아들은 집중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혼자 남지 않고 영아가 멀어지면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다시 함께 하도록 도와주었다. “혼자보다 같이 해서 더 좋았어요”, “내가 마을을 깨끗하게 만든 것 같아 좋아요” 라고 말하는 유아의 말에서 아이들이 환경과 이웃,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깊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지킴이’ 놀이는 화단이라는 정적인 공간에서 시작된 ‘함께 돌봄’의 경험이 실제 생활 속 공간인 마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이음 중심의 놀이 확장이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을 아끼는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실천하는 가치를 몸으로 익히게 되었다.

어린이집 주변을 모두 함께 돌며 쓰레기를 주으며 서로 도움을 나눔



“쓰레기 찾았다” 같이가~

쓰레기를 주우며 서로의 도움을 나누는 모습을 보임



“내가 봉투를 줄게!”
“여기다가 넣어줘?

다함께 환경 지킴이가 되어 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 나누고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



우리는 환경지킴이!
우리 모두 지구를 지켜요

교사의 관찰과 지원

영유아가 환경지킴이 놀이에 의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돕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영유아가 환경지킴이 놀이의 의미를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놀이 전 감정과 공감을 자극하는 놀이를 함께 진행하였다. 유아에게는 사진, 그림책, 영상자료 등을 통해 쓰레기로 더럽혀진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지구가 보내는 편지', '도와줘요, 동물 친구들!'과 같은 감정 이입이 가능한 이야기 상황을 설정해 지구와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도록 돕고자 하였다. 영아에게는 깨끗한 길과 쓰레기가 가득한 길의 사진을 짝지어 비교해보며, 깨끗한 공간이 기분 좋은 곳임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교사는 “여기 쓰레기 때문에 나무가 아파해요~”와 같이 감정을 담은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짧고 쉬운 환경 동화나 율동 동요를 함께 보며 친근하고 즐겁게 놀이 주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 이음교육은 가정-어린이집-아파트주변-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환경놀이와 함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태도’를 지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놀이을 통해 주변 이웃 어른들이 보내는 칭찬, 주변 파출소 경찰들의 격려들 속에 아이들이 환경은 돌봐야 되는거고, 지켜야 되는거구나 라는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였다. 우리들의 주변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가꾸는 태도와 마음, 책임있는 자세를 지닌 영유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넘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 있다’는 마음을 품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스쳐지나지 않고 들여다 봅니다. 기관에서 영아들의 감정 표현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도 늘 있는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반이 바뀌는 것도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있는 일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반이 바뀐 영아가 달라지는 모습을 스쳐지나가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아를 돕는 방법을 고민하고 관계지음으로 영아의 삶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실행과정

일상에서 이음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 현관은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맞이하는 공간, 배웅하는 공간입니다. 영아의 관점으로 보면 보호자와 헤어지는 공간, 다시 만나는 공간입니다. 바깥놀이를 갈 때는 놀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하는 공간이고 들어올 때는 놀이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휴식을 취하러 가는 공간입니다. 이런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벗기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아직 능숙하지는 않습니다. 유아들이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신발 신기를 도우며 현관이 이음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흔한 일이라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지원을 통해 영아와 유아의 마음을 연결하는 이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아와 유아, 모두를 봅니다. 이음교육은 영아나 유아 한쪽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영아와 유아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음교육 활동과 함께 영아와 유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활동에 따라 1세부터 5세까지 각 연령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가 교육의 주체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받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말과 표현을 존중하며 기다리고, 함께 즐거움과 웃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음교육이 실현됨을 강조함으로써, 이음교육의 지향점과 가치를 잘 드러냅니다.

교사의 고민과 지원이 있습니다. 관심사와 발달이 다른 영아와 유아가 만나 놀이를 할 때 영아들은 관심이 빨리 전환될 수 있고 유아들은 어린 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교사들이 영아와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며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아의 흥미가 낮아지는 모습, 유아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음교육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지만 영아와 유아가 서로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놀이의 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8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지혜롭게 표현하며, 개별적인 존재로 존중받는 이음교육

(부재 : 영아와 유아를 이어주는 다리)

전체 내용 보러가기

시립금강초롱꽃어린이집

1. '무지개' 이음교육 내용

활동기간 2024년 6월 ~ 2024년 9월

활동대상 2세 영아, 3세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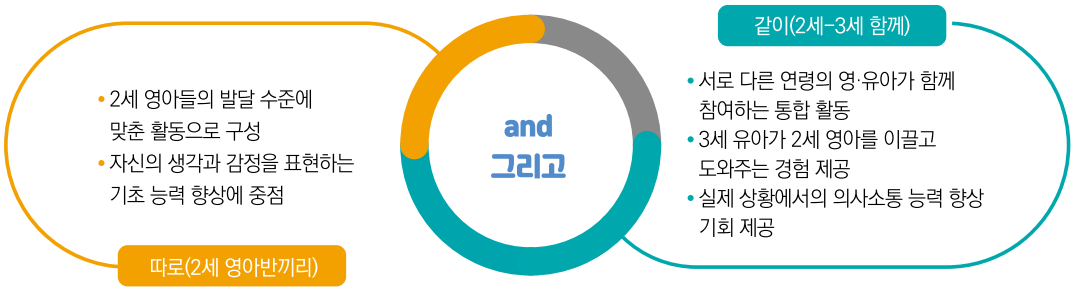
'무지개' 이음교육 활동방법

사전 준비
- 영아 관찰 및 분석
- 유아반과의 연계가능성 파악
- 설문지, 면담 등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

놀이 설계
- 영아-유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놀이계획 수립
- 공간구성, 교재교구, 교사 역할 분담 등 교사회의

놀이 진행
- 따로 & 같이 활동 진행
- 영아의 배움에 필요한 교사의 교육적 놀이 지원
- 어린이집,지역사회,가정에서의 연계활동 진행

활동 평가
- 프로그램 진행 후 의사표현에 대한 영아 및 교직원 평가
- 부모 평가 및 만족도 조사



2. '무지개' 이음교육 세부활동 내용

놀이로 시작하는 이음 자신감을 키워요

"따로" 나만의 무대에서 놀이해요

일상에서 놀이에 소극적이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아들이 관찰되었다. 교사는 영아의 자신감을 위해 고민하던 중, 역할놀이 시 주인공이 되어 노래하는 모습에 착안해 교실에 '나만의 무대'를 지원했다. 작은 마이크, 왕관, 가발 등 소품을 준비하자, 영아는 그 안에서 노래하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놀이를 즐겼다. 무대에서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영아는 점차 자신감을 키워갔다.

인형극 무대에서는 우리가 주인공!



우리가 만든 무대 위에서 노래불러요!



독무대를 즐기는 나!



"따로" 칭찬캡슐 보석을 찾아요

놀이 전, 교사가 놀이터에 칭찬 메시지가 담긴 캡슐을 숨겨두었다. 영아는 칭찬캡슐을 찾는 보물찾기에 몰입했고, 교사는 캡슐 속 칭찬 메시지를 읽어주며 격려했다. 영아는 메시지를 들은 뒤 캡슐 속 작은 보석 모형을 '칭찬 보석함'에 모으며 성취의 기쁨을 느꼈다.

칭찬보석캡슐 교구



꼭꼭 숨은 캡슐을 찾자!



너는 정말 특별해



"같이" 왕관을 돌려 주인공이 되어요

'수건 돌리기' 놀이에서 '왕관'으로 소재를 바꾸어 구성했다. 영·유아가 함께 원을 이루어 앉고, 음악이 흐르면 술래가 왕관을 친구 뒤에 내려놓았다. 음악이 멈추고 왕관을 발견한 친구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 왕관을 받는 경험은 자존감을 높이고, 왕관을 내려놓는 과정은 표현의 용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누구에게 전달할까?



너에게 주고 싶은 나의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영아-유아 이음교육 속 기대효과

자기표현의 자신감 향상

영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말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고, 교사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자기 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음. 이러한 경험은 영아가 점차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놀이로 풀어가는 이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의사를 표현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따로" 화장실 선 따라가며 표현해요

교사는 화장실 동선에 노란색 '소변 선'과 갈색 '대변 선'을 바닥에 부착했다. 영아는 자신의 배변 욕구에 따라 선을 밟으며 화장실로 향하는 놀이에 흥미를 느꼈다. 이동 과정에서 교사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문장을 따라 말하도록 도왔고, 영아는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놀이 속에서 익혔다.

화장실로 가는 길~



선따라 화장실에 가볼까?



선생님,화장실에 가고싶어요!



"같이" **우리는 화장실 탐험대**

화장실 표현이 어려운 영아를 위해 3세 유아가 '화장실 도우미' 짝이 되어 3세 유아반 화장실로 이동했다. '휴지가 없을 때' 등 실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담긴 '화장실 설명서'를 보며 유아가 영아에게 도움 요청 방법을 알려주었다. "휴지가 없을 땐 이렇게 말하면 돼."와 같이 유아가 안내하고 영아는 따라 말해보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활동 후 '화장실 탐험 뱃지'를 함께 받으며 서로를 응원했다.

화장실에서 말해요



형님이 알려주는 화장실에서 표현법



화장실탐험 뱃지획득!



먹고 싶은 양이 있어요!

"따로" **배고파요 vs 배불러요 카드놀이**

영아는 음식 모형으로 식사 상황 역할놀이를 했다. 교사는 '배고파요'(음식 담기), '배불러요'(음식 꺼내기) 그림 카드를 제공했다. 영아는 카드를 뒤집으며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하며, 식사 상황에 필요한 언어 표현을 즐겁게 경험했다.

배고파요 vs 배불러요 교구



저는 배고파요!



배고픈 친구에게는 맛있는 음식 냠냠



"같이" **냠냠, 배식놀이**

영아-유아 함께 배식 역할놀이를 진행했다. 3세 유아는 '배식 도우미'가 되어 음식 모형을 나누어 주었다. 영아는 식판을 들고 "더 주세요.", "한 개만 주세요." 등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도록 도왔다. 도우미 유아는 영아의 표현을 듣고 그에 맞게 음식을 건네며 놀이했다.

우리만의 '맛있어 급식소'



이거는 한 개만 주세요!



주문하신 양으로 배식할게요!



나의 기분을 말해요!

"따로" 우리만의 기분놀이터

헝겊 텐트를 '기분 놀이터'로 구성했다. 텐트에 들어가기 전 "오늘 너의 기분은 어때?"라고 물으면 자신의 기분을 이야기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영아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고, 교사는 적절한 어휘를 덧붙여 언어 표현을 도왔다. 놀이터 안 작은 거울로 자신의 표정을 보며 기분을 표현하기도 했다.

기분을 나누는 우리만의 놀이터!



침구야, 오늘 너의 기분은 어때!



거울 속 내얼굴, 기분을 말해봐!



"같이" 헹거그림판에 서로의 표정을 그려요

헹거에 아세테이지를 부착해 투명 그림판을 제공하자, 유아와 영아는 마주 서서 서로의 얼굴을 관찰하며 그렸다. 유아는 영아에게 기분을 묻고, 그 감정을 표정이나 그림으로 표현해주었고, 영아는 흥미롭게 바라보며 따라 그리기를 시도했다. 다양한 표정 그림을 함께 제공하여 감정 표현을 도왔다.

기분표정 그림보고 따라그려보자!



기분을 묻고,답하고, 그려주고!



영아-유아함께 이야기한 마음이 그림이 되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주세요!

"따로" 룰렛을 돌려 도움요청해요

영아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 교사는 다양한 상황 그림이 있는 룰렛을 활용했다. 영아는 룰렛을 돌린 후, 교사의 질문에 따라 '도와주세요!' 말풍선을 붙이며 상황에 맞는 말을 해보았다. 일상 속 도움 요청 표현을 연습해볼 수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룰렛돌리기 교구



'도와주세요' 말풍선을 붙여요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주세요!



"같이" **'우리 모두 다같이 말해요' 노래 불러요**

3세 유아는 '우리 모두 다같이' 동요에 일상 속 의사표현을 담아 개사했다. 형님들은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동생들에게 율동과 함께 들려주며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이끌었다. 형님과 동생은 언어 표현을 놀이처럼 주고받으며 의사표현을 익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모두 다같이 말해요' 가사판



형님들이 불러줄게!



동생아, 우리 불러보자!



영아-유아 이음교육 속 기대효과

다양한 상황 속 의사표현 능력 증진

다양한 놀이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경험함으로써, 영아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됨. 또래와의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말로 표현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양방향 소통을 자연스럽게 배움.

놀이의 연계로 이어지는 이음
교실, 학습공동체, 지역사회연계 그리고 가정연계활동

"교실에서의 확장"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해**

의사 표현 활동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경험으로 놀이를 확장했다. 종이컵 전화기를 활용해 친구에게 말을 전하고, 상대방은 귀 기울여 듣는 활동을 했다. 또한, 태블릿 녹음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듣거나, 친구의 목소리를 맞춰보는 놀이를 진행했다.

종이컵 전화기로 속삭여요



녹음기에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요



누구의 목소리일까?



“학습공동체” 함께 말하고, 함께 성장해요

교사들은 학습공동체로서 협력하여 모든 연령반이 참여하는 연계 활동을 진행했다. 영아들은 형님반의 ‘가게놀이’나 ‘책 나눔 활동’에 초대되어 언어 표현을 경험했고, 5세 유아가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은 정서적 상호작용과 언어 흥미를 높였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 챌린지’는 매달 전 교실이 같은 주제로 놀이에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높였다.

‘책나눔행사’에서 내가 고른 책!



형님이 들려주는 의사표현 그림책이야기



이럴땐 이렇게 말해요 챌린지



“지역사회연계” 마음을 담아, 말을 건네요

어린이집 앞 미니 텃밭에 영아들과 씨감자를 심고, “쑥쑥 자라라.” 등 말로 표현하며 물을 주었다. 수확한 감자는 감자샐러드빵으로 요리하여, 경비아저씨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등의 감사 인사를 직접 표현하며 전달했다.

감자야, 쑥쑥 자라라!



우리가 키운 감자로 요리해요



경비아저씨, 감사합니다



“가정연계활동” 인형극을 통하여 표현하는 나의 이야기

영아가 가정에서도 의사를 편안하게 표현하도록, 교사들이 상황별 의사표현 인형극 동영상을 제작하여 키즈노트에 제공했다. 영아는 부모님과 영상을 시청하며 표현을 익혔고, 부모님은 가정에서의 반응을 사진이나 후기 형태로 공유하며 참여했다. 이 영상은 수시 시청이 가능하도록 안내되었고, 가정과 연계하여 영아의 의사표현 성장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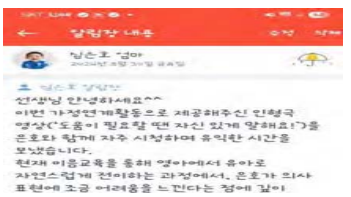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 인형극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연습해보아요



가정연계활동 후 부모님 후기



영아-유아 이음교육 속 기대효과

표현하고 경청하며, 함께하는 언어표현 놀이

다양한 놀이와 연계 활동을 통해 또래·형님·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말하기와 듣기가 조화를 이루는 소통 태도를 기를 수 있었음. 특히 연령 간 협력 활동과 지역사회, 가정과 연계된 경험은 영아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법과 감사의 표현, 배려의 언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익히게 해주었음. 또한 가정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표현 경험이 일상 속으로 확장되며, 언어표현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표현하려는 의지가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음.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따로 또 같이 이음교육을 합니다. 이음교육은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연령 차이가 나는 영유아가 함께 하기도 하고 어린 연령만의 경험을 위해 따로 하기도 합니다. 본 사례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고 따로 또 같이 하는 이음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로'의 계획은 2세 영아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기초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달적 특성과 보호자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2세 영아들은 어휘 수가 증가하고 자기에 대한 의식이 성장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2세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분, 요구, 경청 등의 의사소통 요소에 초점을 두고 이음교육을 계획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가정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행과정

일상 생활에서 자기 주도성을 길러줍니다. 2세 영아는 언어적 표현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해 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배고파요', '배불러요'와 같은 일상적 표현은 스스로의 요구를 전달하고 일과를 주도하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선 따라 걷기, 그림판 선택하기 등 흥미로운 놀이적 방식으로 적용하여 영아는 자연스럽게 자기 의사 표현의 기초를 다지고 문제 해결의 초기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적 의사소통과 자기조절 능력으로 이어지는 발달의 연속성을 형성하며, 이음교육의 중요한 가치인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기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2세 영아의 듣기, 말하기 등의 언어적 표현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은 소통을 위한 출발인데 캡슐 보석찾기, 룰렛, 화장실 탐험대 뱃지, 기분 놀이터 등으로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영아들이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한다는 지원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영아가 유아를 통해 경험을 반복하고 확장합니다. '따로'와 '같이'의 이음교육을 병행하여, 영아들이 영아끼리 혹은 교사와 경험한 표현과 행동을 유아와 함께하는 놀이 속에서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영아의 경험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고 발달적 연속성을 지원하며, 익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호작용과 자기표현 능력을 자연스럽게 확장하여 이음교육의 발달적 연속성과 상호 참여를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9

낮잠 시간 틈에서 나타난 형님반과의 관계 맺음

전체 내용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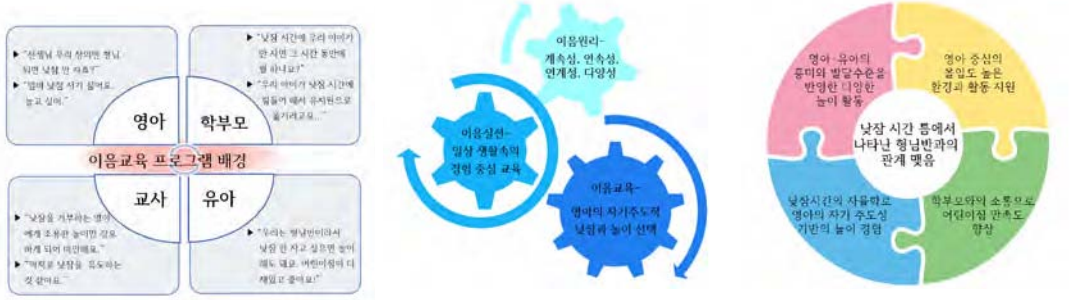
시립서광교파크스위첸어린이집

1. 영아-유아 이음교육 개요

2학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진급에 관한 생각을 영아, 학부모, 교사가 함께한다. 3세가 된다는 기쁨과 설렘, 기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2세반 겨울의 '낮잠'은 3세반으로 가는 과정에서 늘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어린이집은 2학기 겨울부터 영아들에게 '낮잠'에 대한 자율 선택권을 주면서 고정된 일과를 벗어나 '시간과 일과'를 영아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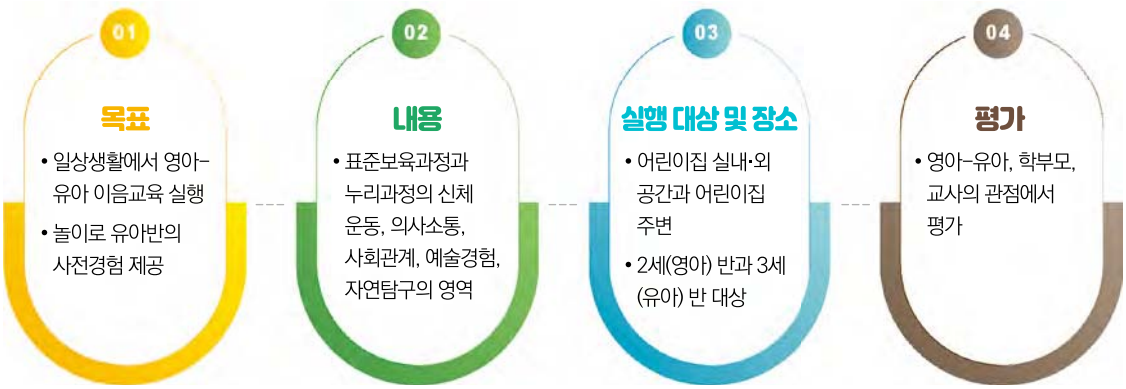
교사는 영아들이 선택한 낮잠 활용 시간을 존중하였으며 안전하게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들은 자연스럽게 일과와 보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부터 영아-유아 이음교육이 시작되었다.

낮잠 시간 틈에서 나타난 형님반과의 관계 맺음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세와 3세의 일상생활 속에 연계되어, 이음교육의 기본 원리인 계속성, 연속성, 연계성, 다양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서광교파크스위첸어린이집 이음교육

2. 영아-유아 이음교육 실행



3. 영아-유아 이음교육 절차에 따른 연구기간

연구절차		2024~202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준비기	2세 교사 협의							
	전체 교사 협의							
	2·3세 학부모 요구 조사							
	2·3세 학부모 공지							
실행기	2세 영아반 낮잠 선택권 부여							
	대체활동 선택							
	3세 유아반과의 교류							
평가기	영아-유아 이음교육 평가							

4. 사례

12월이 되면서 낮잠에 대한 선택을 영아들에게 부여했더니 낮잠을 자기보다는 휴식하고 싶은 친구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났음. 시간 활용에 대한 자율권은 낮잠이 아니라 휴식으로 전체 영아가 선택함. 휴식 시간에 영아들이 무엇을 할지 고민이 생김

영아 유아



- 선생님! 우리 뭐할까요?
- 우리 아침에 놀았던 거 계속해요!
- 난 여기에 그림 그리기 하고 싶은데…
- 선생님, 눈 오는데 밖에 나가고 싶어요!

다음 날 영아들이 각자 하고 싶은 놀이를 제안하였고,
교사는 영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낮잠 및 휴식 시간에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선생님, 그런데 아가반은 자요
- 야, 우리 동생들 자니까 조용히 해야 해
- 너무 시끄러우면 동생들 깨!
- OO도 졸려서 잔다. 조용히 해
- 선생님 친구들이 너무 시끄럽게 놀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놀다 잠드는 친구들을 위한 우리의 '배려'

영아들은 낮잠을 자는 동생반과 잠든 친구들을 위해 편히 잘 수 있도록 배려하기 시작함. '시끄럽게 하지 않기', '발소리 살살 내기' 등 의견을 냄. 교사는 유아반에서 사용하는 약속판을 제안하며 의미를 안내함. 약속판을 활용하여 동생들과 친구들이 편히 잘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를 보임



- 선생님! 우리 반도 약속판이 생겼어요
- 이건 지켜야 해요
- 맞아! 시끄럽게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 그리고 동생들 자니까 발소리도 살살
- 선생님! 우리도 형님반 같아요

- (속삭이며) 선생님, 졸린가가 봐요 눈 비비고 있어요
- 우리 OO이 잘 수 있게 조용히 놀자!
- 우리 목소리도 더 작게 하자!









영아들은 놀이 중간, 졸려 하는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주변을 정돈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등 따뜻한 배려를 실천함. 교사는 이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멋진 배려였다고 격려하며, 서로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줌

크게 소리치면서 놀이하고 싶어요!



교사의 고민: 시간이 지날수록 낮잠 시간에 활동량이 점점 늘어 나는 아이들을 관찰함.
놀이 중에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김. 에너지를 적절히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 선생님 우리 계속 조용히만 놀면 힘들어요
- 말도 작게 하고 뛰지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 선생님! 그러면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요?
- 맞아! 밖에서는 소리 질러도 되잖아요
- 오늘 눈 와서 눈놀이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 그럼, 동생들 안 깨고, 우리도 신나게 놀 수 있어요



"우리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소리치고 놀아보자."





영아들은 실내에서 조용히 놀던 중 점차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밖에서 마음껏 소리 내며 놀자'라는 의견을 제시함. 교사는 영아들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며, 동생들을 배려하면서 영아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방법으로 바깥에서 눈놀이를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줌

우리만 나왔나 했더니~ 형님반도 밖에?!

- 와! 눈 밟는 소리 들린다
- 선생님! 눈 진짜 많이 왔어요. 눈사람 만들어요!

신나게 바깥 놀이하고 있던 그때

- 어? 저기 형님반이에요
- 우리만 나온 줄 알았는데 형님반도 있네!
- 선생님, 형님반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 눈 던지기 같이 해요! 우리 팀 나눠서요



영아들은 형님들과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협동과 양보, 존중의 태도를 경험하며 놀이의 즐거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음. 교사는 영아와 유아가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관찰하며, 필요시 놀이 조율을 지원하고 영아와 유아의 관계 맺음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줌

형님반은 맨날 안잔다고요?

평소처럼 휴식을 취하던 영아는 문득 며칠 전 형님반과 함께 놀았던 날을 떠올림.

- 선생님, 형님반은 이제 뭐 해요?
- 형님반은 낮잠 안 잔다면서요?
- 진짜 맨날 안 자요?
- 그럼, 낮잠 시간에 뭐 해요?
- 계속 계속 놀아요?
- 아 나도 형님반에서 놀고 싶다!

형님반이 매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영아들은
형님반의 일과에 호기심을 가지며, 낮잠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관심을 보임
이에 교사는 영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형님반의 오후 자유 놀이 시간을 영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함

유아반의 오후 자유놀이



- 선생님, 그러면 우리도 형님반 가면 안 돼요?
- 나도 가서 키 큰 형님이랑 같이 쌓기 놀이 하고 싶어요!
- 나는 병원 놀이 하고 싶어요!
- 선생님, 우리 지금 가요! 형님반에 놀러 가고 싶어요!

형님반 놀이에 관심을 보인 영아들을 위해 영아와 유아의 짧은 놀이 시간을 유아반 선생님과 함께 계획함. 영아들은 조심스럽게 형님반 교실을 방문하였고, 형님들은 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이 하던 놀이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임. 이처럼 또래를 넘어선 영아-유아 간의 만남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끌어냈고, 교사는 영아-유아의 자율적인 관계 형성과 배움을 지지함

쉿! 조용조용 진료 중이에요!





- 나는 청진기 할래! 동생아, 누워봐
- 아아~ 으응~ (누워서 진료받는 흉내)
- 언니, 그럼 난 약 만들어 올게
- 동생들이랑 노니까 환자랑 의사가 더 많아져서 좋아요! 재밌어요~

영아들과 유아들은 병원 놀이를 선택하여 서로의 역할을 조율하고 놀이를 함께 구성해 나감. 3세 유아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놀이를 주도하며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할 수행하였고, 2세 영아는 환자 역할을 중심으로 형님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반응하며 놀이의 흐름에 점차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교사는 유아가 놀이 속에서 책임감 가지고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영아가 자연스럽게 놀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놀이의 흐름이 유지되도록 지원함. 필요한 놀잇감을 함께 준비하거나 순서를 기다리는 활동 등을 통해 영아-유아는 자율성과 배려의 태도를 경험하며 놀이 속 상호작용을 확장해 나감

낮잠 시간 틈에서 나타난 형님반과의 관계맺음 로드맵



영아-유아 이음교육 평가	
영아	**# 영아의 의견을 적극 반영** **# 유아반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음** 나는 이제 형님 반에 갈 거야. 낮잠 안 자도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형님이야. 형님반은 놀잇감도 엄청 많아.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 (A 영아, 2025.01.17. 친구와 대화)
교사	**#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첫 시작은 영아들의 권리존중** **# 성장하는 우리반 친구들** 영아들이 스스로 시간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는 경험이 흥미로웠어요. 영아들의 권리존중이 '낮잠'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도 해당하는 걸 보고 저 또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 스스로 계획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유아반에 가서 적응 잘할 수 있어요. (B 2세반 교사, 2025.02.27. 이음교육 평가회에서)
학부모	**#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고마운 어린이집** **# '내 아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 요즘엔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숙면하니 더 쑥쑥 자라는 느낌입니다. 3세반에 가는 게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 아이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걸 보니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계속 이런 교육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C 2세반 엄마, 2025.01.22. 알림장에서)
이음교육 실천 및 사례 연계성	
영아반에서 유아반으로의 이음과정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음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영아에서 유아로의 발달적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영아에서 유아로 성장할 때, 하루 일과에서 낮잠과 휴식 시간의 변화는 영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발달적 필요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2세 말기에 낮잠을 자는 영아와 자지 않는 영아 간 차이를 고려하여, 영아가 스스로 낮잠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각 아동의 발달 특성과 리듬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발달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자기주도적 경험을 지원하는 이음교육의 중요한 실행 원칙을 보여줍니다.

실행과정

영아의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영아의 하루 일과에는 낮잠 시간이 포함되며, 학기 초에는 대부분의 영아가 낮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영아는 낮잠 시간이 줄거나 낮잠을 자지 않아도 활동적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교사는 이러한 개별적 발달 차이에 관심을 갖고 낮잠 시간을 영아와 조율하며, 휴식을 선택한 영아와 놀이를 병행함으로써 3세 유아의 하루 일과 적응과 발달적 전이를 자연스럽게 지원합니다. 이는 이음교육의 핵심 가치인 발달적 연속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일상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또래도 소중해요. 낮잠을 선택하지 않고 휴식시간을 보내는 영아들은 조용히 놀이하거나 바깥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잠들어 있는 다른 영아와 휴식 중인 동생들을 배려하여 살금살금 걷고 말도 조용히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존중하는 태도와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가 되며, 영아가 일상 속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과 자기조절 능력을 확장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는 이음교육의 핵심 가치인 발달적 연속성과 사회적 관계 중심 학습이 놀이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존중의 가치를 알아갑니다. 영아와 유아가 유능한 존재로서 자기 삶을 주도한다는 가치는 문서나 계획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육 현장의 매일의 일과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영아와 유아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서로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과 발달에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활동을 설계합니다. 이음교육의 핵심 가치는 한 아동으로서 영아와 유아가 지닌 삶의 연속성과 발달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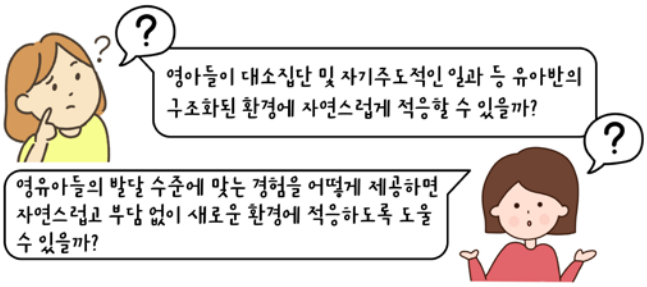
토닥토닥 이어遊(유) : 이어주다+놀이

전체 내용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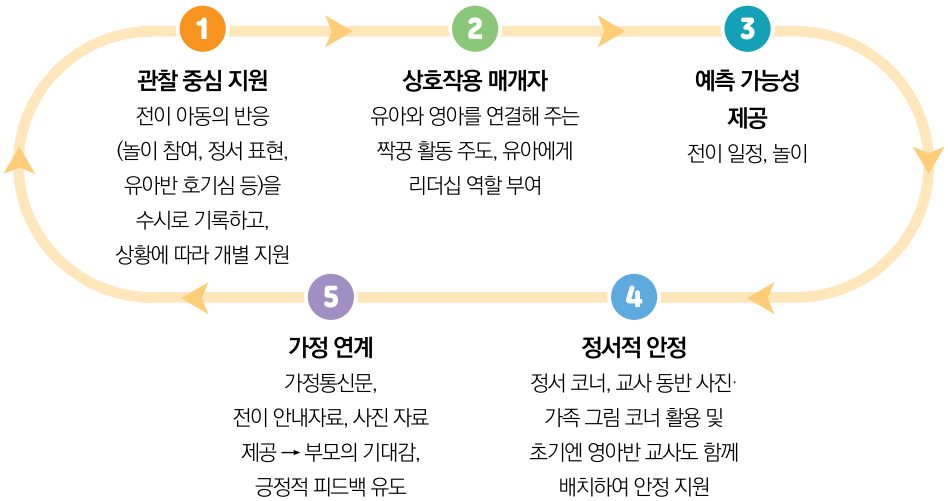
시립은계2어울림어린이집

1. 사전단계

1) 이음교육 실시 전 교사들의 고민



2) 교사의 역할 및 지원전략



3) 전이 이행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사전단계 (3~5월)	2단계 실행 (6~11월)	3단계 후속 관리 (12~2월)
주요 내용	– 영아 발달 수준&기질 파악 – 유아반 환경, 일과 및 교육과정 분석 – 교사&영아 간 신뢰 관계 형성 – 3세 유아들에게 프로그램 이야기나누기 – 유아반 일부 접목	– 유아반 환경 점진 도입 – 교사 동행 상호작용 실시 – 유아반 소집단 활동 참여 – 의사표현&선택의 기회 제공 – 활동 적응력 높이기 – 규칙 이해와 협동 놀이 강화	– 유아반 생활 전이 준비완료 – 유아반 정규일과 참여로 정체감 강화 – 수료 및 평가
교사 역할	– 이음 교육 사전 안내 – 영아&유아반 교사 간 회의 – 발달평가 기준 공유 – 1차 전이 체크리스트 및 초기 평가	– 유아반 연계 시작 – 활동 전후 아동 반응 관찰 – 불안정 아동 개별 지원 – 전이 계획 수정 가능성 검토 – 2차 전이 체크리스트 및 중간 평가	– 개별 발달평가 공유 – 유아반 교사 중심 운영계획 – 3차 전이 체크리스트 및 종합 평가

4) 유아반 전이 지원 환경 구성 세부 계획서

영역	전이 지원 세부내용	비고
공간 연계 환경	– 어린이집의 복도 또는 유희실에 공용 탐색 코너 구성 – 유아반 일부를 '전이 체험 코너'로 정해 일정 시간 함께 사용	예: 표현하기, 이야기 공간 공유
사진·시각 자료 제공	– 유아반 교실 구조와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을 복도 및 유희실에 게시 – '이제 나는 형님이야!' 포스터 제작	예: "이 선생님은 ○○야!", "이곳은 형님반 화장실이야"
물건 공유 환경	– 유아반에서 사용하는 놀잇감, 출석부 및 도장 등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 유아와 동일한 개인 물품 공간(수납장, 의자 등) 일부 제공	소유감 → 소속감 유도
정서적 안정 공간	– 교실 한쪽에 '마음 쉼 공간' 마련 (쿠션, 인형, 담요 등) – 전이 아동을 위한 감정 카드 또는 교사 사진 카드 배치	감정 표현 및 정서 조절 지원
상호작용 유도 공간	– 유아와 함께 사용하는 협동 놀이 공간 운영(블록·요리·조작 등) – 함께 하는 짝꿍을 만나는 '짝꿍 벤치' 설치	또래 관계 형성 강화
상징과 역할 제공	– '도우미 목걸이', '형님반 이름표' 등 유아가 되는 상징적 장치 마련 – 역할 맡기기 활동: 정리 도우미, 인사 도우미 등	정체감 강화 및 책임감 부여

3. 프로그램 내용

1) '토닥토닥 이어遊(유)' 활동 보고서(2024년 3월~2025년 2월)

3월

- 사진을 탐색하거나 친숙한 동요에 이름을 넣어 부르며 서로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교사와 포옹, 손잡기 등의 놀이나 감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 애착을 형성한다.



또래 이름 익히기





교사와 애착 형성 놀이



교사의 지원

- **관찰 :**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고 놀이를 이해하고자 관찰
- **정서적 지원 :** 영아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공감, 격려
- **자료 :** 놀이가 잘 이루어지도록 교실 벽면에 영아 사진 제공

4월 & 5월

- 형님반 교실 사진을 관찰하며 환경을 익히고 형님반 놀잇감을 이용해 놀이해 본 후 유아반 화장실에 방문해 윤아가 영아에게 손 씻는 방법을 알려주며 함께 손 씻기를 한다.





형님반 환경 사진을 탐색해요



형님반 놀잇감으로 놀이해요



손 씻는 방법을 알려줘요



교사의 지원

- **자료, 공간 :** 놀이가 잘 이루어지도록 유희실 및 복도 벽면에 형님반 환경 사진 및 프로그램 사진 제공
- **함께 놀이하며 질문 :**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한 후 적절한 개입을 통해 놀이 진행 상황 및 관심사에 대한 질문

6월 & 7월

- 영아가 형님반에 직접 방문해 교실 환경 및 놀잇감를 탐색해보고 유아-영아가 짝을 이루어 손을 잡고 어린이집 주변을 함께 산책한다.




형님 반에 놀러가요




형님 반과 손잡고 산책해요.



교사의 지원

- **공간 :** 놀이 및 전이가 잘 이루어지도록 형님반 영역 공간을 지원
- **정서적 지원 :** 영유아가 함께 만났을 때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격려
- **활동 :** 놀이와 연결하여 함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산책 활동 지원

8월

- 영아반 교실에서 형님처럼 식판을 들고 배식받는 연습을 해본 뒤 유아반으로 이동하여 실제로 교사와 함께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직접 점심 배식을 받아본다.




직접 점심 배식을 받아 보아요.




형님반에서 같이 식사해요



교사의 지원

- **시간 :** 영유아반의 식사 시간을 조절하여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
- **공간 :** 배식 공간을 마련하여 영아들의 배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함께 놀이하며 질문 :** 식판을 올바르게 드는 방법, 이동하는 길에 대해 설명한 후 함께 참여해 보며 배움이 일어나도록 질문

9월 & 10월 & 11월

- 영유아가 함께하고 싶은 놀이를 스티커로 투표해보며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고 형님반의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영유아가 함께 짝을 이루어 공 옮기기 협동게임을 진행한다.



내가 같이 하고싶은 놀이는?




형님들은 무엇을 배워요?



형님과 함께하는 협동게임



교사의 지원

- **공간 :** 그림 및 스티커를 부착하여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
- **자료 :** 형님들이 실시하는 다양한 소집단 수업자료에 필요한 자료 지원
- **관찰 :**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고 놀이를 이해하고자 관찰
- **활동 :** 놀이와 연결하여 영유아가 제안한 활동 및 게임 진행

12월

- 영아가 유아반에서 오전 자유 놀이~대집단 활동까지 혹은 점심 식사~오후 놀이까지의 하루 일과의 50% 이상을 함께 경험하고 유아의 도움을 받아 도우미 역할도 체험해 본다.




오전 놀이부터 대집단 활동까지!




점심 식사부터 오후 놀이까지!



교사의 지원

- **공간 :** 놀이 및 전이가 잘 이루어지도록 형님반 영역 공간을 지원
- **정서적 지원 :** 영유아가 함께 만났을 때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격려
- **활동 :** 놀이와 연결하여 함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산책 활동 지원

1월 & 2월

- 완전한 유아 하루 일과에 참여하는 유아반데이를 경험해보고 영아들은 학기 초와 현재의 키를 비교해 보며 스스로의 성장에 대해 인식하고 형님들이 직접 준비한 수료축하 목걸이를 걸어주며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받는다.




'유아반 데이' 운영(특별활동 참여)



이만큼 컸어요!



형님반에서 온 축하 목걸이



교사의 지원

- **관찰 :**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고 놀이를 이해하고자 관찰
- **환경 :** 놀이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간, 공간, 자료를 적절하게 지원
- **정서적 지원 :**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며 느낀 생각,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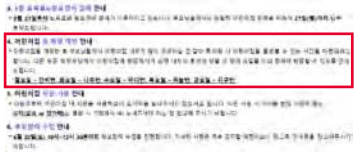
2) '토닥토닥 이어遊(유)'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 연계 활동 보고서(2024년도)

4월 – 어린이집 참관



가정과의 소통 및 협력 지원

- 보호자가 교실 환경과 영유아반 일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한 관찰 중심의 참여로 유도하였으며 참관 이후 아동의 반응에 대해 보호자와 교사가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며 대화를 통해 전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어린이집 참관 안내



어린이집 내부 관찰



놀이 참여

6월 – 영유아가 함께하는 부모 참여 수업

가정과의 소통 및 협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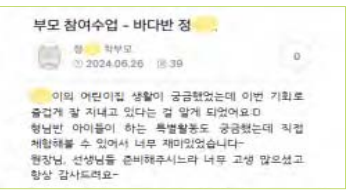
- 보호자에게 참여 목적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활동을 통해 추후 유아반이 되어 참여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활동 후 교사가 아동의 참여 태도와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하여 보호자와 공유함.



부모님, 형님들과 음악놀이



형님반 프로그램 '코딩' 체험



카페에 올려주신 부모님 소감

8월 – 부모님과 함께 형님반에서 식사를 해요

가정과의 소통 및 협력 지원

- 부모님과 함께 식사 전·후 유아의 일상 모습과 교실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영아와 유아가 함께하는 식사 분위기를 통해 형님반의 일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어머니 배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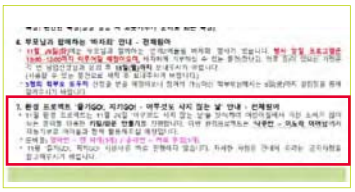


함께하는 식사 시간

5월, 11월 – 엄마 선생님과 함께 '환경 프로젝트' 수업

가정과의 소통 및 협력 지원

- 엄마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수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수업을 통해 영유아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되었으며 영유아 및 가정에서도 환경 감수성과 협력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연계함.



환경 프로젝트 활동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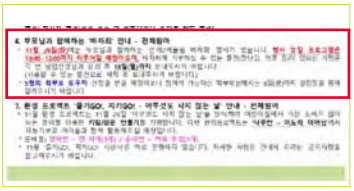


폐지를 이용한 환경 프로젝트 '키링 / 화분 / 액자' 만들기

11월 –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장 놀이

가정과의 소통 및 협력 지원

- 진행하기 전 전체 가정에 활동의 취지를 안내하고 물품 기증 및 도우미 참여를 통해 협력 체계를 마련함. 행사 당일 어머님들이 도우미로 참여하여 영유아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이 교육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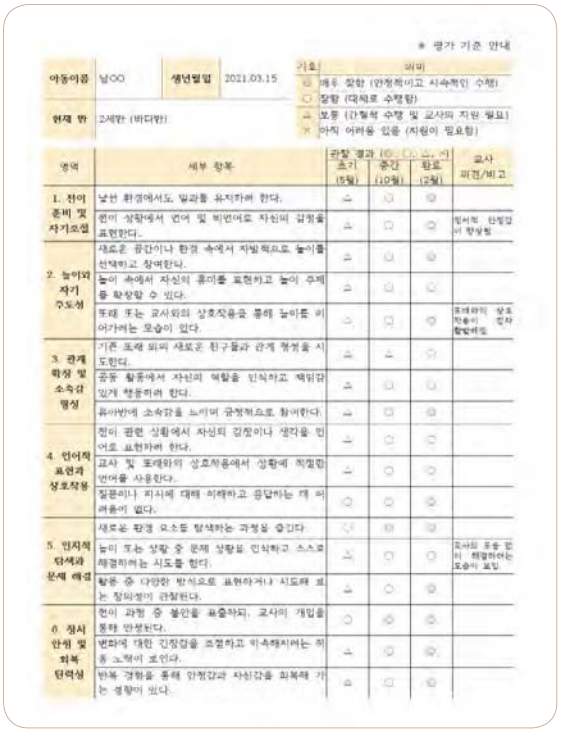
시장 놀이 활동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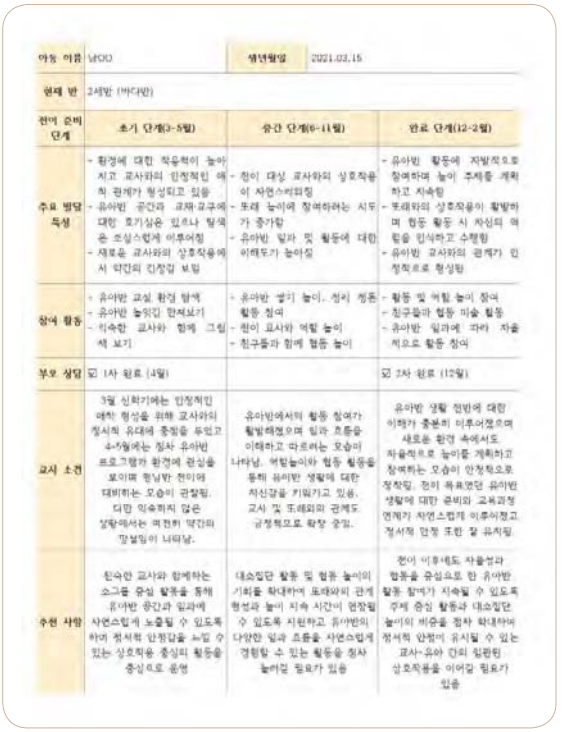


엄마 도우미, 형님들과 시장 놀이 행사 참여

3) 아동별 참여 양상과 변화기록 및 가정 연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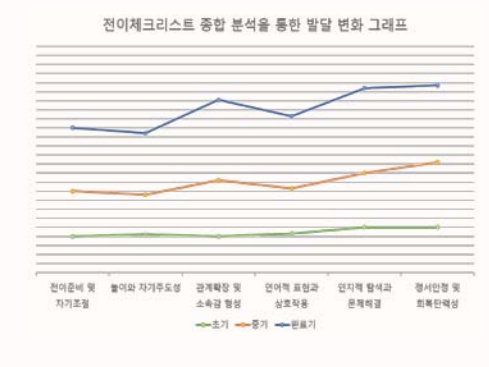
상세 적응 체크리스트



전이 평가서 (2세 → 3세 전이 기록)

종합 분석을 통한 발달 변화 그래프

2세 영아 13명을 대상으로 한 전이 체크리스트 결과를 토대로 초기·중기·완료 단계별 발달 변화 과정을 시각화하였으며 초기 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 환경 적응, 자기표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교사 협의를 통해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인 협동게임, '내가 하고 싶은 놀이' 스티커 투표 활동, 유아반 데이 참여 등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기 이후부터 대부분의 영유아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단계별로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음 교육 사전 안내 및 가정 연계 활동 안내



이음 교육 사전 가정통신문





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교사들이 성찰 기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음교육의 실천의 출발은 교사의 고민으로 시작됩니다. 자유로운 일과 운영에 익숙한 영아들이 달라지는 유아반의 하루 일과와 또래와 집단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아반 교사의 고민과 영아 시기의 놀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유아반으로 자연스럽게 놀이가 이어지도록 상호작용, 활동 수준을 고민하는 교사의 모습이 전문적인 교사 역량을 갖춘 교사임을 느끼게 합니다.

전이 이행 단계별 가이드와 이음지원 환경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이음교육 계획은 이음의 의미가 포함된 활동의 제시 형태가 일반적인데 사전단계, 실행단계, 후속 관리 단계에서 진행 내용과 교사의 역할을 담고 있으며 이음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구성의 세부 계획도 수립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실행과정

전이 경험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아와 유아에 대한 초기 관찰을 시작으로, 이름 익히기, 애착 형성 놀이, 사진으로 유아반 환경 탐색, 함께 놀이, 산책, 점심 함께 먹기, 대집단 경험 등 전이활동을 점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사회적·정서적 안정과 상호 교류를 자연스럽게 지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아는 서서히 교사와 또래에게 다가가며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고, 유아는 자기주도적 선택과 리더십을 실천하며 성장합니다. 이는 영아와 유아가 서로의 경험을 연결하며 발달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이음교육의 핵심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화과정을 살피고 성찰합니다. 개별 영아들의 참여 양상과 변화를 기록하고 이를 가정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양적으로 확인 가능한 행동 수준도 있지만 영아의 사회정서적인 변화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례에서 전이 준비 및 자기 조절을 비롯한 항목별 체크리스트와 함께 2세에서 3세로 전이 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달 그래프로 제시하여 상호작용, 환경 적응, 자기 표현에 대해 보완을 지속합니다.

성찰 기반 섬세한 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영아가 유아반에 대해 이해를 넓혀가도록 사진으로 환경을 게시하여 사전 탐색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형님반의 놀잇감을 가져다가 놀이하는 과정 등 영아의 섬세한 정서적 지원이 돋보입니다. 각 활동에서 교사의 지원 내용을 공간, 자료, 관찰, 활동으로 기록하여 이음 교육에서 교사의 적극적 참여와 전문적 역량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11

차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이음교육

전체 내용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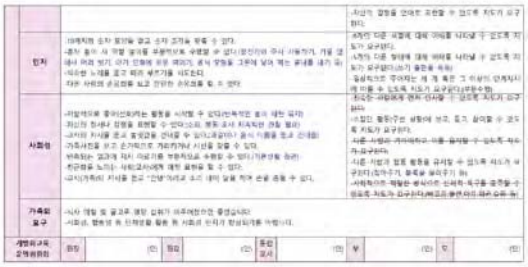
시립파크푸르지오 어린이집

1. 프로그램의 실제

1) 발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개별화된 전이 지원

본 어린이집에서는 2024년 3월부터 장애 통합 영아를 대상으로 개별화 교육계획안(IEP)을 수립하여, 유아기로의 전이 과정에서도 발달적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였다. 특히 전이 시기의 핵심인 만 2세 후반~만 3세 초반의 6개월간, 교사들은 아동의 우선 지도 영역(적응행동, 신체운동, 사회 의사소통, 인지, 사회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도 순위와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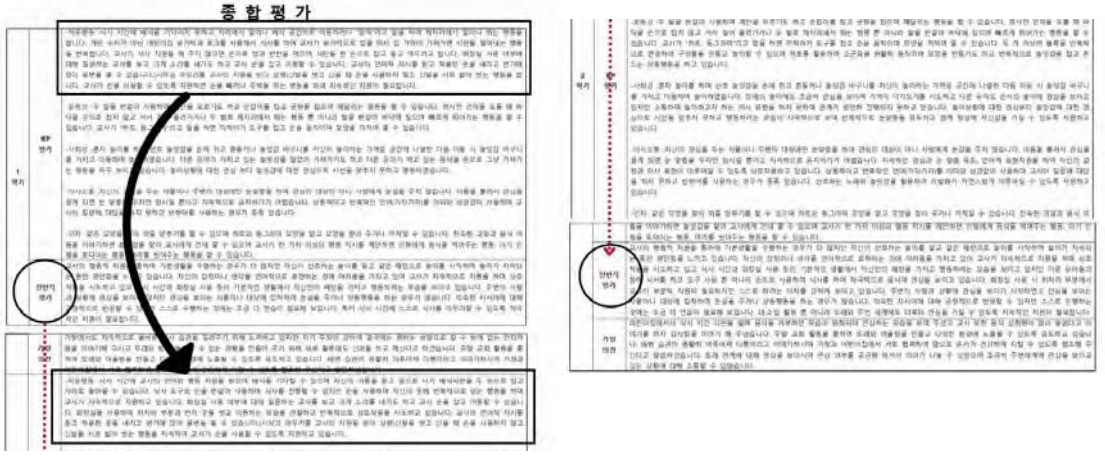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개별화 교육계획안(IEP) 운영을 분석한 후 각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른 단기 목표가 실제 평가 준거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수행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설정된 목표가 현실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 점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표의 난이도, 표현 방식, 지원 전략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학기 말에 실시한 종합 평가는 1학기와 2학기를 아우르는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 과정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개개인의 적응행동, 운동성, 사회성, 의사소통, 인지 영역에서의 발달 수준과 변화 양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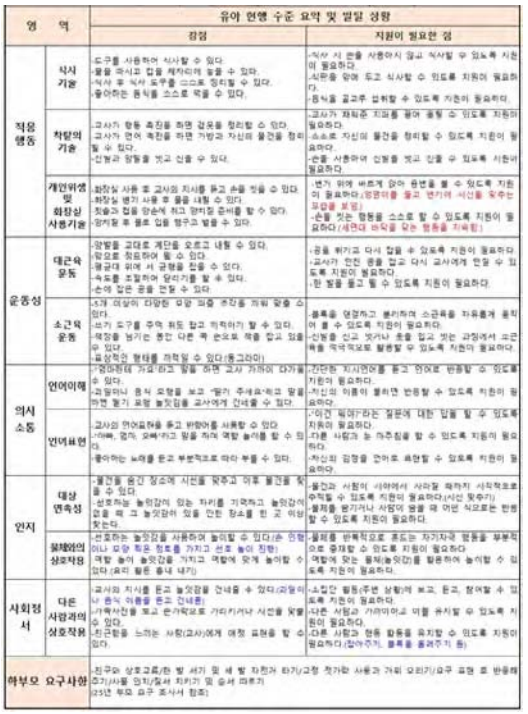
특히, 학기별 발달 기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초기 적응기에서의 행동 특성과 연말에 나타난 자기 조절력, 또래 상호작용, 언어 사용 방식 등의 발달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1학기에는 일과 예측에 어려움을 보였던 아동이 2학기에는 시각적 일정표(자신의 일과 모습이 담긴 사진)를 스스로 활용하며 활동을 예측하고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발달 변화는 단순한 기능 향상을 넘어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적응력의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였다.



2025년 3월, 유아기로의 전이가 완료된 시점에 본 기관은 아동의 현재 기능 수준을 면밀히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개별화 교육계획안(IEP)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 IEP의 누적 기록을 분석하여 발달 연속성을 고려하면서도, 유아반 환경과 일과에 적합한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새롭게 조정하였다.

장기목표는 보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자율성과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에 따른 단기목표는 일상생활과 놀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영	역	유아 현행 수준 요약 및 발달 경향	
		강점	지원이 필요한 점
적응행동	식사 기술	-도구를 사용하여 식사할 수 있다. -물을 마시고 컵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다. -식사 후 식사 도구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다.	-식사 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시문을 앞에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착탈의 기술	-교사가 제시한 지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교사가 먼저 예시를 하면 가방과 자신의 물건을 정리할 수 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신을 수 있다.	-교사가 제시한 지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손을 사용하여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위생 및 화장실 사용기술	-화장실 사용 후 교사의 지시를 듣고 손을 씻을 수 있다. -화장실 변기 사용 후 물을 내릴 수 있다. -젖은 손을 안내에 최고 정리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정리할 후 물로 입을 헹구고 뱉을 수 있다.	-변기 위에 바르게 앉아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성공하를 돕고 변기의 사신을 확수는 표현을 보장.) -손을 씻는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세면대 바닥을 닦는 행동을 지속함.)
운동성	대근육 운동	-양팔을 고대로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다. -팔꿈로 정표하여 할 수 있다. -물균대 위에 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속도를 조절하여 달리기를 할 수 있다. -손에 잡은 공을 던질 수 있다.	-공을 튀기고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가 '한번 공을 던고 다시 교사에게 던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한 발을 들고 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소근육 운동	-5개 이상의 다양한 모양 크기를 자유 맞출 수 있다. -쓰기 도구를 주먹 쥐도 잡고 끄적하기 할 수 있다. -책장을 넘기는 동안 다른 쪽 손으로 책을 잡고 있을 수 있다. -표상적인 형태를 자력일 수 있다.(동그라미)	-블록을 영결하고 분리하여 스큰육을 자유롭게 움직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신체를 신고 넣거나 손을 잡고 벗는 과정에서 소근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언어이해	-기경이해력 '가장'하고 '말을 하면 '교사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과일이나 음식 모형을 보고 '달기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달기 모형 놀잇감을 교사에게 건네줄 수 있다.	-간단한 지시언어를 듣고 언어로 반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반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언어표현	-교사의 언어표현을 듣고 반향어를 사용할 수 있다. -사물, 장소, 모습 '이다'라고 말을 하여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다. -좋아하는 놀이를 묻고 부분적으로 따라 부를 수 있다.	-'이건 뭐야?'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인지	대상 연속성	-물건을 숨긴 장소에 시선을 맞추고 이후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상호하는 놀이감이 있는 자리를 기억하고 놀이감이 없을 때 그 놀잇감이 있을 만한 장소를 한 곳 이상 찾는다.	-물건을 숨기는 사람이 사라져서 사라질 때까지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시선 맞추기) -물체를 찾기기나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물체와의 상호작용	-스스로 놀이감을 사용하여 놀이할 수 있다.(손 전동이나 모양 확은 장치를 가지고 선호 놀이 지향) -역할 놀이 놀잇감을 가지고 역할에 맞게 놀이할 수 있다.(요리 활동 중내 내기)	-물체를 반복적으로 조도는 자기자극 행동을 부분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역할에 맞는 물체(놀잇감)를 활용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정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교사의 지시를 듣고 놀잇감을 건네줄 수 있다.(과일이나 음식 이름을 듣고 건네줌) -가족사진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시선을 맞출 수 있다.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교사)에게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다.	-소집간 활동(주변 상황)에 보고,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사진 속 '이름을 듣고 선택하기 어려움. -다른 사람과 가끔이나마 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참여주기, 물체를 돌려주기 등)
하부모 요구사항		-친구와 상호교류(한 빛 서기 및 세 빛 자전거 타기)고정 적가한 사물과 가위 모리기(요구 표현 포 반응해주기)사물 인지(철세 지키기 및 습세 마주기. (3년 후모 요구 조사서 참조)	

발달 및 영역별 목표							수행도 평가	
발달영역		장기목표	단기목표				1분기	2분기
			목표행동	준거	평가 방법			
적응행동	식사 기술	1. 도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식사를 마무리 한다.	1-1. 식사를 하는 동안 '숟가락' 또는 '포크'를 사용하여 음식을 섭취한다.	5번 중 3번 이상				
			1-2. 교사가 '포크로 반찬을 찍어주면 3번 이상 포크 사용을 한다.	5번 중 3번 이상				
			1-3. 교사가 숟가락을 건네면 한 손으로 잡고 음식을 떠서 먹는다(다른 손으로 식판을 잡을 수 있도록 유도)	5번 중 3번 이상				
			1-4. 배식받은 음식의 양 확인을 기능하게 100m 앞에 두고 먹는다.(식판을 들어내는 반복적인 방법)	5번 중 3번 이상				
	개인위생 및 화장실 사용기술	2. 스스로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대변)을 본다	2-1. 교사가 화장실 사용 여부를 확인하면 스스로 화장실로 이동하여 변속적인 행동을 한다.	5번 중 3번 이상				
			2-2. 교사가 언어 촉진을 하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본 후 옷을 입고 밖으로 이동한다.	5번 중 3번 이상				
			2-3. 교사가 '양을 촉진을 하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본 후 옷을 입고 밖으로 이동한다.	5번 중 3번 이상				
운동성	대근육 운동	1. 공을 활용하여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인다	1-1. 교사가 공을 던지면 두 손으로 공을 잡거나 '좋다' 공을 몸아 이동한다.	5번 중 3번 이상				
			1-2. 서서 교사가 '던진 공을 3번 중에 2번 두 손으로 잡는다. (교사와 유아 사이의 간격은 30cm)	3번 중 2번 이상				
	소근육 운동	2. 두 손을 사용하여 물체를 조작하고 각 손은 다른 움직임을 수행한다.	1-1. 자신에 '앉아' 교사가 '달걀주는 '동물 5번 중에 3번 이상 두 손으로 잡는다.	5번 중 3번 이상				
			2-1. 한 손에 종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가위를 잡고 으로 가위를 움직인다.	5번 중 3번 이상				
			2-2. 교사가 종이의 가위를 함께 잡아주면 한 손으로 종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교사와 함께 가위를 움직인다.	5번 중 3번 이상				
			2-3. 교사가 '종이의 가위를 함께 잡아주면 한 손으로 종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교사와 함께 가위를 움직인다.	5번 중 3번 이상				
의사소통	언어이해	1. 교사의 간단한 언어표현을 듣고 반응한다	1-1. 교사가 '손 '전등 시 '인사표현을 하면 교사의 언어 표현을 모방하여 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한다.	5번 중 3번 이상				
			1-2. 교사와 함께 '동물의 '임포를 이동하여 '준다의 '동물이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동물이를 가지고 와 '이다에 '물체놓은 후 '위에 '올려놓는다.	5번 중 3번 이상				
	언어표현	2. 자발적으로 언어 표현을 한다.	2-1. 교사가 기능적인 언어표현을 유도하면 적각반당이와 적절 빈칸이를 사용하여 언어를 표현한다.	5번 중 3번 이상				
			2-2. 교사가 교구장는 '것을 듣고 모양 언어(색각 반당어)를 사용할 수 있다.	5번 중 3번 이상				
인지	모방학기	1. 새로운 놀이 활동을 보여주면 그 활동을 모방한다.	1-1. 교사가 '역할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시도하면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번 중 3번 이상				
			1-2. 교사가 '역할 놀잇감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사의 행동(언어)을 모방한다.	5번 중 3번 이상				
			1-3. 교사가 '역할 놀잇감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선을 맞추고 놀잇감을 만진다.	5번 중 3번 이상				
	문제해결	2. 일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2-1. 교사와 함께 과업을 맞추다 모양적 맞지 않으면 다른 모양 '여을 선택을 '가지고 온다.	5번 중 3번 이상				
			2-2. 교사와 '함께 과업을 맞추다 모양이 맞지 않으면 과업 조각을 1번 이상 돌린다.	5번 중 3번 이상				
사회성	또래와의 상호작용	1. 주 '반'의는 '그 '의 상의 '연속적인 '행동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하고 유지한다.	1-1. 또래가 사회적인 행동과 언어표현을 하면 적절한 반응을 한다.	5번 중 3번 이상				
			1-2. 한 '명, '또는 '두 '명의 '또래가 '놀이하는 '곤혹에서 '자신의 '놀이를 '한다.	5번 중 3번 이상				
			1-3. 교사와 '도움 '없이 '선호적인 '놀잇감을 '가지고 '스스로 '놀이한다.	5번 중 3번 이상				

2) 정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환경·관계 전이

2024년 3월, 새로운 기관에 처음 등원한 영아들은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혼자 놀이에 머무르거나 주변을 탐색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계의 기초가 되는 눈 마주침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드물고, 또래와의 놀이도 단절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안전하다고 느끼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으며, 교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사는 매일 동일한 일과와 공간, 반복되는 놀이를 통해 아이가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2024년 3월

새로운 환경에 처음 등원한 영아는 낯선 교실과 낯선 교사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찍 등원 한 영아는 잠옷을 입은 채 어린이집으로 등원을 하였고 교실로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



2024년 3월

영아는 굴러가는 바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굴리며 바퀴의 움직임을 탐색하였다. 익숙한 장난감을 가지고 바닥에 앉아 탐색하며 조용히 놀이에 몰입하는 모습도 자주 관찰되었다.



2024년 4월

교사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며 놀이 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교사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맞춰 손유희를 하며 눈 마주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2024년 7월

또래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며 오감을 활용한 놀이에 흥미를 보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2024년 10월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유아가 또래와 시선을 맞추고 "후"소리를 내며 모방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또래의 반응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2024년 12월

또래가 건네는 스티커북에 시선을 맞추고 평소 선호하는 놀잇감 외에 다른 물체에 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 과정에서 또래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2025년 3월

영아반에서 함께 올라온 유아와 놀이하며 또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또래와 함께놀이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교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또래와 놀이하는 것에 흥미를 보임)



2025년 4월

따뜻하고 포근한 환경 속에서 교사와 또래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25년 4월

촉감 놀이를 활용하여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평소 물체를 만지고 조작하는 것에 민감함을 보인 유아에게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에 참여하여 감각 활동을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025년 5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를 인식하고, 인형의 머리를 말리는 놀이를 통해 자기표현과 역할 몰입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있게 놀이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장애 유, 무에 관계 없는 상호 존중의 공동체 경험 확대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유아는 자신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익혀 나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 중심의 놀이와 반응이 주를 이루던 유아가, 점차 주변 환경과 사람에 대해 인지하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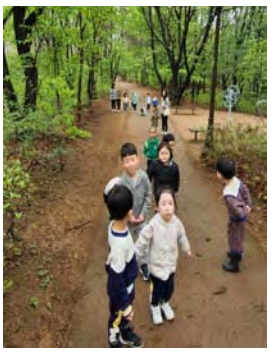
2024년 3월

매달 이루어지는 도서관 방문을 통해 영아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친숙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단지 책을 읽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공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질서, 예절, 기다림, 공간의 역할에 대한 인지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2024년 4월

자연과 함께하는 숲 활동은 영아가 실내를 벗어나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감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 자극과 신체 조절 경험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이는 전이 시기 영아에게 중요한 신체 인지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기반이 되었다.



2024년 7월

원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행사는 영아에게 또래 및 타 반 유아들과의 만남, 교사·가정과의 연계, 낯선 상황에서의 자기 조절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2024년 8월

발표회를 통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며 동작 모방, 소리내기, 시선 맞추기 등 자신의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2025년 3월~5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아는 익숙한 흐름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점차 자신의 흥미와 필요를 스스로 인식하며 표현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활동이 단편적인 일회성 경험이 아닌, 연결성과 반복성을 가진 흐름으로 구성됨에 따라, 아이들은 다음 활동을 예측하고 준비하며 자신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4) 놀이 중심의 자연스러운 통합 활동 실현

교사는 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놀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열린 통합 환경을 구성하였다. 교사의 계획보다 유아의 상상과 주도성이 중심이 되는 놀이 속에서 발달 수준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포용하는 환경으로 전환되어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는 경험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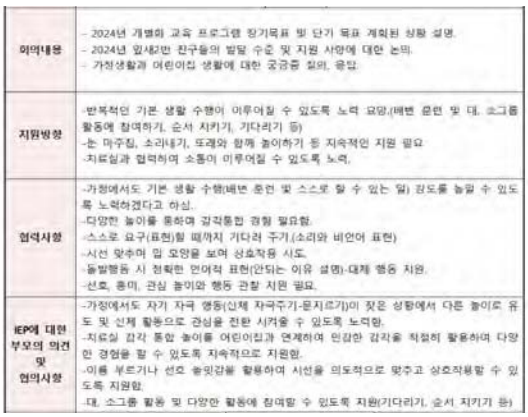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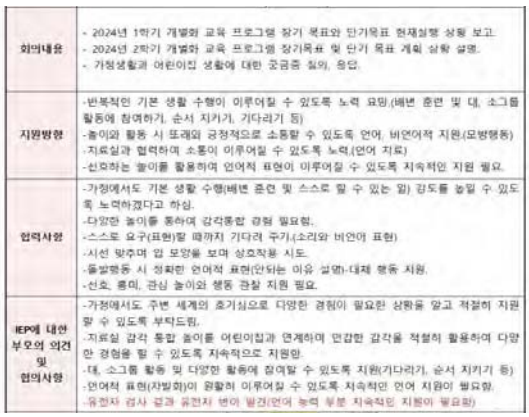
5)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지원 체계 구축

2024년부터 장애 통합 영아의 전이 지원을 위한 개별화 교육계획안과 평가 자료를 가정과 함께 공유하면서, 기관과 가정 간의 연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공동의 교육적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협력 구조로 발전해 왔다. 교사는 유아의 현행 발달 수준과 행동 변화, 놀이 반응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호자와 공유하며 가정의 양육 방식 및 관점과 연계하여 전이기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함께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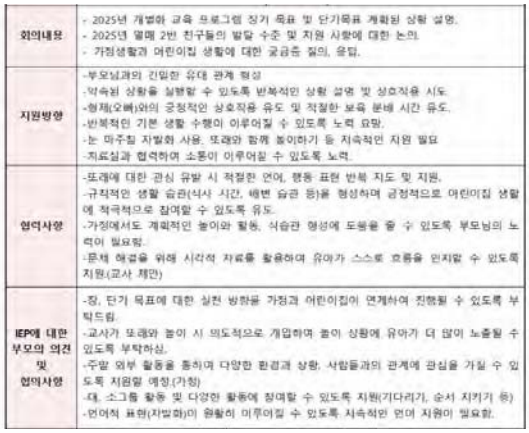
이러한 협력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의 일관성 있는 환경 제공과 정서적 안전 확보, 그리고 발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통합적 전이 지원 체계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교사는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별화 교육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회의내용	- 2024년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장기목표 및 단기 목표 계획된 상황 설명. - 2024년 입4반 친구들의 발달 수준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논의. - 가정생활과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궁금증 질의, 응답.
지원방향	-반복적인 기본 생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요망.(배변 훈련 및 대,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기, 순서 지키기, 기다리기 등) -눈 마주침, 소리내기, 또래와 함께 놀이하기 등 지속적인 지원 필요 -치료실과 협력하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협력사항	-가정에서도 기본 생활 수행(배변 훈련 및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심.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감각통합 경험 필요함. -스스로 요구(표현)할 때까지 기다려 주기.(소리와 비언어 표현) -시선 맞추며 입 모양을 보며 상호작용 시도. -돌발행동 시 정확한 언어적 표현(안되는 이유 설명)-대체 행동 지원. -선호, 흥미, 관심 놀이와 행동 관찰 지원 필요.
IEP에 대한 부모의 의견 및 협의사항	-가정에서도 자기 자극 행동(신체 자극주기-문지르기)이 잦은 상황에서 다른 놀이로 유도 및 신체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함. -치료실 감각 통합 놀이를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민감한 감각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 -이름 부르기나 선호 놀잇감을 활용하여 시선을 의도적으로 맞추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대, 소그룹 활동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다리기, 순서 지키기 등)



회의내용	- 2024년 1학기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장기 목표와 단기목표 현재실행 상황 보고. - 2024년 2학기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장기목표 및 단기 목표 계획 상황 설명. - 가정생활과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궁금증 질의, 응답.
지원방향	-반복적인 기본 생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요망.(배변 훈련 및 대,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기, 순서 지키기, 기다리기 등) -놀이와 활동 시 또래와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 비언어적 지원.(모방행동) -치료실과 협력하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언어 치료) -선호하는 놀이를 활용하여 언어적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협력사항	-가정에서도 기본 생활 수행(배변 훈련 및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심.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감각통합 경험 필요함. -스스로 요구(표현)할 때까지 기다려 주기.(소리와 비언어 표현) -시선 맞추며 입 모양을 보며 상호작용 시도. -돌발행동 시 정확한 언어적 표현(안되는 이유 설명)-대체 행동 지원. -선호, 흥미, 관심 놀이와 행동 관찰 지원 필요.
IEP에 대한 부모의 의견 및 협의사항	-가정에서도 주변 세계의 호기심으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상황을 알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치료실 감각 통합 놀이를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민감한 감각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 -대, 소그룹 활동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다리기, 순서 지키기 등) -언어적 표현(자발화)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언어 지원이 필요함.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자 변이 발견(언어 능력 부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회의내용	- 2025년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장기 목표 및 단기목표 계획된 상황 설명. - 2025년 올해 2번 친구들의 발달 수준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논의. - 가정생활과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궁금증 질의, 응답.
지원방향	-부모님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형성 -익숙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상황 설명 및 상호작용 시도. -형제(오빠)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유도 및 적절한 보육 분배 시간 유도. -반복적인 기본 생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요망. -눈 마주침 자발화 사용, 또래와 함께 놀이하기 등 지속적인 지원 필요 -치료실과 협력하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협력사항	-또래에 대한 관심 유발 시 적절한 언어, 행동 표현 반복 지도 및 지원. -규칙적인 생활 습관(식사 시간, 배변 습관 등)을 형성하며 긍정적으로 어린이집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가정에서도 계획적인 놀이와 활동,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함.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가 스스로 흐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교사 체면)
IEP에 대한 부모의 의견 및 협의사항	-장, 단기 목표에 대한 실천 방향을 가정과 어린이집이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교사가 또래와 놀이 시 의도적으로 개입하며 놀이 상황에 유아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부탁하심. -주말 외부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과 상황,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가정) -대, 소그룹 활동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다리기, 순서 지키기 등) -언어적 표현(자발화)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언어 지원이 필요함.

2. 사례를 통한 변화 과정 및 평가

01 영, 유아의 변화

다양한 장애 특성을 가진 영아들은 통합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며 각기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적응해 나갔다. 초기에는 시선 맞추기 어려움, 놀이 참여 회피, 감각적 자극에 대한 민감 반응, 예측 불가능한 행동등을 보이며 전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개별화 교육계획안을 바탕으로 전이 시기 전후 발달 수준을 분석하고, 유아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감정 조절, 자기표현, 또래 관계 맺기 등의 단기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장기 목표가 실행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특정 유아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던 시기에서 말과 손짓으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유아는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며 처음으로 자발적인 놀이 참여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기술의 습득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존재감 확장과 관계 형성의 기초가 세워진 것으로, 전이기 통합교육의 실질적인 성과이자, 아이들이 '함께 자라나는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었다.

02 교사의 변화

교사 역시 처음에는 전이에 대한 부담과 평가 중심의 계획에 치우쳐 있었으나, 아동의 반응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목표 수정과 환경 조정을 통해 점차 개별화 지원의 실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교사는 전이기 동안 자신의 판단보다는 영, 유아의 반응을 중심에 두고 기다려주는 태도, 적절한 개입의 타이밍, 그리고 영, 유아의 주도성을 해치지 않는 지원의 균형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함께 자라는 교사'로서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무엇보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존중받고, 기다려질 때 더 큰 발달을 이룬다는 믿음이 함께 형성되었다.

03 학부모의 변화

전이 과정을 함께하며 학부모는 점차 아이의 가능성과 발달을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기에는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하는 불안과 '장애통합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지만, 어린이집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개별화 교육계획안 공유, 그리고 전이기 활동의 세심한 안내와 피드백을 통해, 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얻게 되었다.

특히 활동 중 아이의 작은 변화(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 규칙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모습)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부모는 '아이의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동하는 경험을 교사와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 상담 및 공동 평가 참여를 통해 자녀의 발달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어린이집과 함께 실천 가능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보육 계획에 대한 지속적 평가 환류를 통해 계획합니다. 이음교육은 한 개인이 기관, 학급, 교사 등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고 발달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분의 이음교육은 한 학급 내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집단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본 사례에서는 개별 아동의 발달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별 아동이 성장하는 이음을 계획합니다. 24년 3월에 수립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6개월간 우선 지도 영역을 분석하고 지도 순위와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아동의 수행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표, 지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영아의 적응, 사회성 등 변화를 살펴보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행과정

개별화된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과 발달 연속성을 지원합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던 장애 통합반 영아가 자동차를 굴리며 바퀴에 관심갖고 굴려보는 행동을 시작으로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과정이 잘 드러납니다. 장애와 관계없이 또래와 어울리며 이해하고 이해받으며 상호 존중하는 이음교육의 사례입니다.

이음 교육을 지원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또래와의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겪는 영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교사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교사들은 영아의 수행수준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기록, 협의와 지원계획 수정과 적용하며 성찰해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 일정표를 스스로 활용하여 활동을 예측하고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음교육은 기관, 교사,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례에서는 개별화교육을 위한 계획과 실행과정 피드백을 가정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관찰과 지원에 대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원 계획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12

3세 놀이로 이어지는 교사의 컨퍼런스(conference)

전체 내용 보러가기

시립풍경어린이집

1. 개요

컨퍼런스(conference)는 회의, 토론의 의미로 'confer'(상의하다,수여하다)에 근원을 두고 있다. 어원적으로 접두사 'con-'은 '함께', 'fer'은 'carry 옮기다'로 이뤄져 '서로 의견을 옮기다, 상의하다. 회의하다'라는 의미이다.(김현동,2014)

의학 드라마에서 여러 의사들이 모여 한 환자의 상태를 논의하며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지를 진단, 결정하는 컨퍼런스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이때 의사들은 레지던트, 교수가 모두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다. 이는 경험, 숙련의 정도가 다른 여러 의사가 모여 컨퍼런스하면서 교수의 전문적인 치료 처방이 레지던트에게 전수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은 의사들의 실제적인 경험치가 향상되어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의사들의 컨퍼런스와 본 기관 교사들의 컨퍼런스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교사	의 사
대 상	영유아	환자
토의 내용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환자의 건강, 생명
실 행	관찰, 상호작용, 발달 지원	진단, 치료, 수술
임상경험의 필요성	영유아 개인차의 다양성 영유아에 적합한 지원 제공	병의 반응, 경과, 치료 방법 다양성 진료의 판단력 향상

본 기관의 [영유아중심 교사 컨퍼런스]도 원장(경력32년), 원감(경력20년), 주임교사(경력13년), 김교사(경력11년), 한교사(경력10년), 박교사(경력9년), 이교사(경력6년) 등의 다양한 경력의 전공 교사들이 토의한다. 영유아들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발달의 개인차가 있기에 영유아 교사들의 다양한 임상경험(경력)은 입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경력 교사의 영유아 발달과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 교수·학습의 경험, 부모 상담 경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경험은 저경력의 교사에게 전수된다. 이때 1~2세 영아반 경험과 3~5세 유아반 경험도 전수되어 2세~3세 이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세 이음연령 영아반 담임교사가 갖는 교육적 고민을 함께 공감하며 2세 영아 개개인의 발달 특징, 부모의 성향 등을 인계하고 공유한다. 유아로 성장하는 과정인 2세는 자아가 더욱 확립되고 자율성과 독립성의 욕구가 커짐으로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지원(정혜욱,2024)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세 이 시기의 영유아는 자율성과 사회성이 급격히 발달하고 스스로 해보려하며 간단한 문제해결 능력이 발달한다. 또한 자기주도적인 놀이가 많이 관찰된다. 이는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계획 실행할 때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놀면서 자란다. 2023)

이에 따라 2.3세의 발달과 놀이를 바탕으로 교육 지원을 할 때 '자조(自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였다. '2.3세의 놀이와 일과 중에 교사와 기관은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영유아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놀이를 통하여 스스로 해보며 문제해결하도록 지원하기(자조능력 향상)' 라 답하며 이음연령 2세 교육과정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영유아들은 놀이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 자료, 자연물 등을 이용해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의미있는 배움을 경험하고 성장한다.(신미영,2022) 그리고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이 영유아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고 준비된다면 영유아의 자조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즉, 환경에 내재된 어포던스(Affordance, 행동 유발성)를 놀이에 대한 메시지로 인지하여 영유아들이 인지한 어포던스를 토대로 자유롭게 놀이(최정희,2023)하고 일상생활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기관은 영유아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일상생활의 어포던스적 환경 지원을 계획하여 2.3세 이음 교육을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내용

■ 활동 연간계획안

'24 9월	10월	11월	12월	'25 1월	2월	3월	4월	5월
◦ 9월 컨퍼런스A 》》 하위반(2세) 편성 된 정수(가명) 유아의 일과 운영 어려움								
	◦ 10월 컨퍼런스B 》》 2세반 영아들의 감각 놀이터 조성에 대한 어려움							
			◦ 12월 컨퍼런스C 》》 2세 영아들의 3세반 진급에 대한 불안과 부모의 고민					
					◦ 2월 컨퍼런스D 》》 연합 컨퍼런스 [행동유도성(Affordance)]적용하기			

■ 활동 방법

컨퍼런스 주제 정하기 › 2세반 영아 지원 협의 › 정기적 컨퍼런스 진행 (3주마다) › 교사&원장& 부모&지역사회의 교육적 협진 › 2.3세 이음교육의 연계와 전이의 적절성 평가

3.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영유아 중심 conference	매월 각 반의 영유아, 환경구성, 교사의 상호작용, 가정 내 상황,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논의
	중점적으로 컨퍼런스할 상황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 개진 : 다음에 논의할 사항 찾아서 다회차 진행
	지원사항 논의 : 원장의 물적·인적 지원, 교사의 상호작용·교실 내 지원, 시간·공간 유동성 적용 등
	컨퍼런스 진행과정 공유, 진행 후 평가, 개선할 사항, 긍정적인 지원은 다음 컨퍼런스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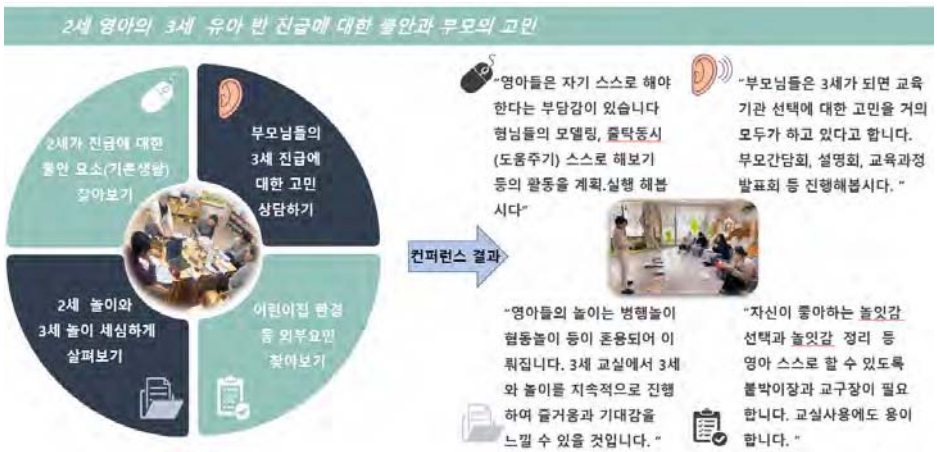
■ 컨퍼런스 A 하위반(2세) 편성 된 정수(가명) 유아의 일과 운영 어려움



■ 컨퍼런스 B 2세반 영아들의 감각 놀이터 조성에 대한 어려움



■ 컨퍼런스 C 2세 영아의 3세 유아반 진급에 대한 불안과 부모의 고민



논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 컨퍼런스 D 교사 연합 학습공동체 (행동유도성 Affordance) 적용하기

교사 연합 학습 공동체 활동 내용



도서 [행동을 디자인 하다] 세미나
“손잡이가 있으면 당기고 싶고, 표적이 있으면 맞추고 싶다” 내 몸이 무심코 움직이는 곳, 거기에 ‘행동디자인’이 있다. 모든 어린이는 행동 디자이너다. 복도와 창문밖에 없는 공간에서 그림자라는 놀이터를 찾아냈다. ⇒ 영유아 교실에 적용해보기





특히, 2.3세 이음교육을 위해 일과 중 영유아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실행안에 대해 각 기관의 교사들은 토의해보았다.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해서 기능적으로 어포던스(행동유도성)하는 방안들을 고민하여 적용해보았다.



회차를 거듭하며 각 기관의 교사들은 3세로 진급한 유아들의 기본 생활습관을 키워가도록 공간, 비품 지원을 공유하고 놀이, 일과의 어포던스적 접근을 토론하며 아쉬웠던 점을 공유하였다.



각 기관의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객관적으로 본인의 기관과 교실을 바라볼 수 있었고 어포던스 지원으로 영유아들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을 연합 학습 공동체 활동이였다.

영유아의 주도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한 일상과 놀이를 위한 어포던스적 지원

지원 前	문제 발견 및 분석	어포던스的 지원	영유아 반응 및 변화
	화장실에서 양치를 할 때 양치컵과 칫솔을 올려놓아 위생적이지 않음.	 	양치 시 양치컵과 칫솔을 거치대에 스스로 올려 영유아에게 위생에 대한 교육 진행.
	컵에 함께 놓거나 바구니에 한꺼번에 정리했던 치약. “선생님 내 치약 없어요” 치약을 분실한 경우가 종종 있었음.		치약 홀더를 화장실에 비치하여 자기 치약을 사용하고 거치하도록 함. 자기 치약을 잘 찾고 사용 후에도 꽂아 관리 됨.
	화장실에서 몇 걸음 걸어가야 하는 수건걸이, 손을 씻고 나오면서 물기가 바닥에 떨어져 양말이 젖거나, 미끄러짐.	 	수건걸이를 화장실 문 바로 옆으로 옮겨 이동 동선을 짧게하고, 하츄핑 캐릭터 손떨기 그림을 붙여 손을 떨고 나오는 행동으로 유도하여 물기도 적게 떨어짐.
	식사 시 자리를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영아. 자리 배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	 	자리마다 숫자를 붙이고 숫자를 뽑아 그 숫자에 앉는 ‘놀이식’ 자리 배치를 함. 영아들은 다툼없이 즐겁게 점심시간을 기다림. 흥미에 따라 다른 카드 제시.

영유아의 주도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한 일상과 놀이를 위한 어포던스적 지원

2.3세 영유아의 정리를 돕는 행동 유도 지원		2. 3세 영유아의 놀이를 돕는 행동 유도 지원			
	스스로 자기 물건을 정리하도록 안내하는 '정리 지도'		책상 다리 한쪽을 빼면 ⇒ 미끄럼 놀이	책상을 뒤집어 놓으면 ⇒ 배놀이	교구장 사이를 훌라후프로 연결하면 ⇒ 아쿠아리움

2.3세 이음교육을 위한 점심시간 지원

어린이집 일과 중 영유아들에게는 2번의 간식과 1번의 식사 시간이 있다. 점심시간에 테블릿과 [냠냠키즈]앱을 이용한 어포던스적 지원은 영유아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골고루 먹는 즐거운 식사를 하는 교육적 성과 가져왔다.

어포던스적 지원은 영아들이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동 유도 지원으로, 2.3세 영유아에게 자신의 성장 발달의 주체가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들은 학습에 대한 부담 없이 교사의 물리적 환경 지원으로 놀이와 일과에서 유능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의 선생님들과의 학습 공동체 활동이 처음에는 여러 부담이 있었지만 2세와 3세 교실 지원의 서로 다른 예를 공유하면서 자기 교실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기관은 다르지만 영유아 교육의 동료 교사로서 동료애도 생기는 시간이였다.





동영상 QR코드

4. 프로그램 평가

컨퍼런스(conference)는 '상의하다. 회의하다'라는 단어로, 한 주제를 가지고 그룹이 모여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김현동,2014)이다. 각 기관에서 한 달에 1회 진행되는 교사 회의에서 행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고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본 기관은 월 교육과정 논의와 행사 발표로 그치지 않고 영유아에 대해서, 각 연령별 교육과정에 대해, 가족 지원에 대해 모든 교사들이 의견을 내고,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반성적 사고를 하며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교육적 협진,협의를 진행하였다.

본 기관의 약 1년에 걸친 '교사 컨퍼런스'는 4가지 주제로 진행되었고, 각각의 컨퍼런스 결과, 발달이 늦은 유아는 '놀이 선생님'을 지원하여 또래와 같은 반에 편성되는 성과를 거뒀고, 2세 영아들의 '감각 놀이 공간 구성'을 위해 교사 전체가 함께 토의하고 지원하였다. 2세에서 3세로의 진급은 유아반 운영의 필수 요소로 이를 위한 여러 사항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세 번째 컨퍼런스를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원내 컨퍼런스에서 그치지 않고 유형과 지역을 넘나드는 '교사 연합 학습 공동체'를 진행하였다.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된 행동 유도성 개념은 2세와 3세 영유아의 놀이 및 일과 속에 반영되었고, 그에 따른 물리적 환경 지원은 이음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자조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세 놀이로 이어지는 교사의 컨퍼런스



놀이선생님 지원

늦은 발달로
하위 반 편성된 정수
또래들과 같은 반으로 진급



감각놀이터 만들기

2세 반 교실 전체를
쌀놀이터로 만듦



2세에서 3세 진급

3세 진급을 위해
영아 일과와 놀이지원,
부모지원, 공간 지원



교사 연합 학습공동체

유형, 지역을 아우르는 교사
연합 학습공동체 : 2세에서
3세 진급시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어포던스적 환경 구성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전문적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모아봅니다. 교사는 현장에서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다양한 영유아들을 만나며 전문적인 실천적 지식을 갖습니다. 현장에서 얻는 경험에 대한 동료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본 사례는 6년 이상 현장 경력을 지닌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주제, 대상, 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하도록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아와 유아가 스스로 행동하는 이음을 계획합니다. 2세와 3세의 신체, 언어, 사회 정서 발달, 인지발달과 더불어 놀이와 배움에 대해 발달적 차이를 이해하고 주도적인 자조능력 향상과 스스로 행동하며 자유롭게 이음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행과정

컨퍼런스로 이음교육 전문성을 높입니다. 이음교육 컨퍼런스는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발달이 더딘 유아 지원, 2세반 감각놀이터 조성, 2세 영아의 3세 진급 불안, 교사 학습공동체의 행동유도성 논의 등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서로 다른 현장 경험과 시각을 공유하며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교육적 접근을 조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이음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을 이끄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주도하는 이음 지원입니다. 전문적인 교사는 환경을 잠재적인 교육과정으로 활용합니다. 사례에서 영유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지원하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언어적인 상호작용보다는 환경적 지원을 통한 자연스러운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자기 조절, 일상 생활 경험이 되도록 합니다. 식사 자리 배치는 영아의 자리 선택 뿐 아니라 식사에 대한 기대감, 교실 내 규칙을 지키는 태도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음 교육 실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발달이 더딘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은 놀이 선생님을 채용하여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으로 또래와 함께 진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3세반 진급을 앞둔 보호자 간담회를 통해 인식 개선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 공간을 개선하는 등, 기관과 교사 모두가 이음교육의 핵심 가치인 발달적 연속성과 포용적 성장 지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13

협력 어린이집과의 이음교육

전체 내용 보러가기

시흥수정어린이집

1. 이음교육의 목적 및 배경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이행하는 시기는 영아가 자기 신체에 대한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고 일상생활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함양하는 중요한 발달적 이정표를 형성한다. 동시에 이 시기는 사회적 규칙을 내면화하고 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상호작용하는 전환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적 개입은 연속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영아의 내재된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며, 단절 없는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기관은 이러한 철학을 '이음교육'이라는 핵심 기조로 명확히 설정하고, 본원은 2024년 9월부터 이음교육을 실천해 왔으며 2025년 연간 교육계획을 토대로 기본생활 습관과 협력어린이집을 방문, 놀이과정을 아우르는 생활 주제와 긴밀하게 연계된 이음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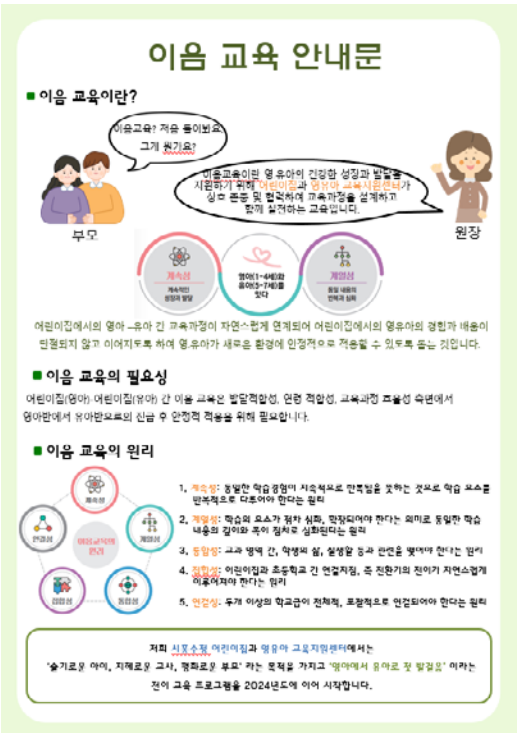
'스스로 할 수 있어요'라는 명확한 주제 하에 기획된 본 프로그램은 영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동화, 노래, 놀이, 실천 활동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 영아는 직접 해보고, 느껴보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영아기부터 유아기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마주하는 활동들, 예를 들어 스스로 옷 입기, 신발 신기, 주변 정리정돈, 그리고 차례 지키기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들을 중심으로, 학습이 일관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및 교육적 지침을 조성하였다. 나아가 가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하여, 기관에서의 교육 활동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의 지속성과 폭넓은 확장성을 확보함으로써 영아 발달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부모교육

이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도입에 앞서, 학기 초 학부모 교육을 통해 이음교육의 목적, 교육적 필요성 및 운영 방식, 가정 연계 방안, 영유아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이해 요청,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실천 사례 공유 및 피드백 참여 독려를 포함한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다.

더불어, 영아의 현 발달 수준과 자조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전 검사지를 활용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 검사지를 가정으로 배포하여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3.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01 협력 어린이집 방문 프로그램 (1회-6월 / 2회-7월)



영아들 간 비공식 상호작용에서 드러난 선행 유아 수행 능력 및 상급 기관 환경에 대한 발화를 통해, 상급기관 환경에 대한 영아들의 호기심과 긍정적 기대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생이 재원 중인 두 협력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물리적 환경 탐색 및 직접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는 선행 유아와의 상호작용으로 놀이 특성 및 발달 차이 인지를 돕고, 영아기에서 유아기로의 원활한 전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1) 형님 교실은 어떻게 생겼어?

영아들은 선행 유아 학급(형님반)의 환경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의자 사용', '쓰기 활동', '소형 블록 활용' 등 자신들의 보육 환경과 차별화되는 물리적 요소 및 발달적 특성을 인지하며 새로운 학습 기회에 대한 높은 호기심을 보였다. 또한 '와플블록', '공통된 손 씻기 도구', '화장품 놀이 영역' 등 익숙하거나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놀이 자료와 환경 요소를 발견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였고, 선행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현하며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 형님들아 같이 놀자!

6월에 진행된 1차 협력 어린이집 방문에서, 영아들은 초기 환경에 대한 긴장 및 적응의 어려움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선행 유아들이 자발적인 독서 활동 유도, 신체적 접촉을 통한 놀이 참여 권유 등 적극적인 형태로 상호작용을 개시하자, 영아들은 점진적으로 놀이 상황에 안정적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2-1) 형님들 처럼 그려보고 싶어요

영아들은 선행 유아 학급에 게시된 그래픽 표현물(그림) 및 초기 문자 해독 자료(자필 글씨)를 관찰하며 미적 감탄과 더불어 내용에 대한 인지적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표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 유아들은 영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문자 인지를 돕는 시도를 하였으나, 문자 학습에 대한 영아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관심으로 인해, 영아들은 대신 함께 그림 활동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선행 유아는 영아가 요청하는 그림을 직접 제공하였고, 영아는 이를 색칠하고 오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연령 간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성공적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선행 유아가 자신의 완성된 그림을 영아에게 증정하는 행위는 높은 수준의 배려심과 친사회적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경험은 영아들이 본 기관으로 복귀 후, 하위 연령의 또래에게 유사한 친사회적 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전이 효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령 간 상호작용은 또래 학습의 긍정적인 모델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 간의 건전한 관계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7월에 진행된 2차 협력 어린이집 방문에서, 영아들은 이전 경험을 토대로 한층 향상된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선행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며 시설 공간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영아와 유아는 튜브 썰매, 곤충 표본 관찰, 미술 및 역할 놀이 등 다채로운 활동을 공동으로 경험하며 놀이의 확장성과 또래 간 협동심을 자연스럽게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상급 유아반 환경에 비치된 소형 교구에 대한 영아의 구강 탐색 행동 가능성으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었으나, 선행 유아들은 '구강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언어적 안내를 통해 놀이 규칙을 지도하고 영아들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의미 있는 놀이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2-2) 형님이 끌어 주는 튜브 썰매

튜브썰매놀이 활동 중, 단독 놀이 중이던 영아에게 선행 유아가 썰매를 끌어주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후행 유아의 언어 발달 지연으로 인해 즉각적인 의사 이해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교사의 중재를 통해 유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연결되었다. 이는 동생을 태워 끌어주는 협력적 놀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다른 영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놀이가 공동 신체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나아가, 썰매를 경험한 영아가 선행 유아에게 역할을 교환하여 끌어주겠다고 제안하자, 다른 선행 유아가 '나는 힘이 세니 직접 수행하겠다'고 응답하며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유아들 간의 주도적 상호작용과 협력 과정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2-3) 형님~ 이건 뭐에요?

곤충 표본을 활용한 쌓기 놀이 중이던 영아에게 유아가 접근하여 곤충의 명칭을 소개하고, 돋보기를 통한 상세 관찰의 효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영아는 돋보기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관찰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올바른 사용방법의 미숙으로 관찰에 어려움을 겪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인지한 유아는 돋보기의 정확한 조작법을 시범 및 설명해주며 영아와 공동으로 관찰 활동을 지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또래 간 상호작용 및 비형식적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2-4) 형님들은 무엇을 먹어서 키가 컸어요?

〈1회 방문 - 함께 간식을 먹어요〉

선행 유아의 지도에 따라 손 씻기를 준수하고 간식을 섭취하는 경험을 하였다. 배식되는 간식(수박)을 관찰한 선행 유아가 영아에게 간식과 관련성이 있는 동요 '수박 파티'의 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모두 함께 해당 동요를 제창하며 상호작용을 증진시켰다. 배식된 간식의 크기가 본 기관에서 제공되던 것과 상이하여 영아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인접한 선행 유아들은 직접 수박 섭취 방법을 시범 보이고, '씨앗의 유무와 관계없이 섭취 가능하다'는 정보적 설명을 제공하며 영아들의 간식 섭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2회 방문 - 함께 점심을 먹어요〉

기존에 백김치만을 섭취하던 영아들이 선행 유아들의 배추김치 섭취를 관찰하며 '매운맛 여부' 및 '실제 섭취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을 표출하였다. 선행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식사 태도를 목격한 후, 영아들은 '장차 선배 유아들 처럼 김치를 섭취하겠다'는 의지 및 '김치 시도'에 대한 도전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며 김치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선행 유아들의 긍정적인 행동 모델링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은 영아들이 새로운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호기심과 모방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식습관 태도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프로그램 02 형님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놀아요

〈 2024년 10월 26일 협력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바자회 실시 〉

두 기관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가정 내 유휴 물품을 기반으로 기획되고 운영된 이번 바자회는 전통 먹거리 시식, 다채로운 체험 부스 활동, 그리고 물품 판매 등을 포함하는 풍성하고 상호작용적인 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본 행사는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기관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과 소속 의식을 고취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본 기관을 졸업한 유아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게 시설 내부를 주도적으로 안내하고 소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해당 졸업생의 기관에 대한 변함없는 애착과 깊은 소속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재원 중인 영유아들에게도 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하였으며, 졸업 이후에도 교육 공동체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속 가능하게 함을 실증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본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지역 주민센터에 투명하게 기부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실현함과 동시에, 기관의 사회적 나눔 실천 의지와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4. 결론

본 사례를 통한 심층적 분석 결과, 이음교육은 단순히 다음 발달 단계로의 전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영아기에서 유아기, 나아가 초등교육에 이르는 전 생애적 발달 과정의 흐름을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함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유아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주도적인 자율성을 발휘하며, 자기 효능감에 기반한 확고한 자신감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실천 영역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에 본 기관은 이음교육의 다층적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관을 졸업하는 영유아가 유기적인 연계 교육을 실천하는 상급기관으로 순조롭게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교육적 연속성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아기와 유아기의 보육 과정이 내용적, 환경적으로 긴밀하게 통합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본 기관은 이음교육의 철학을 기반으로 유아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연속적인 배움과 삶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유아 중심 이음교육'의 원칙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를 체득하고, 상위 연령인 유아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부모 교육으로 시작해요. 이음교육은 가정과 연계할 때 효과적입니다. 학기초에 이음교육의 목적, 교육적 필요와 운영 방법과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종합적 안내를 통해 함께 시작하는 이음교육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음교육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요'라는 명확한 주제 아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의 동화, 노래, 놀이 등 일상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이 재원 중인 협력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 간 이음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기본생활습관과 자조기술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실행 과정은 이음교육의 실천적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행과정

익숙함에 편안함을 느끼고 차이를 알아갑니다. 영아와 유아반은 교실의 크기와 놀잇감과 같은 물리적 환경 차이 뿐 아니라 간식의 크기와 조리 상태도 다릅니다. 반면 두 연령 간 교실에서 공통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사례에서 교사들은 공통적인 것에 친숙함을 느끼고 서로 다른 것에 긴장하고 어려움이나 소형 교구에 대한 안전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아들은 점차 편안해지고 유아들은 리드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중심의 이음교육의 가치가 보입니다.

가정과의 연계가 활발합니다. 이음교육은 기본생활습관과 자조기술, 자기 표현을 중점방향으로 하고 있어 습관 형성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기관 내 활동과 더불어 가정과 연계할 때 효과적입니다. 사례에서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과 이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문과 활동 참여, 사전·사후 검사 참여는 이음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을 끌어내는데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기관 간 지속적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사례에서 협력 어린이집은 본 기관에서 졸업한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두 기관간의 공통 관심사와 졸업생과 신입생의 연결망을 통해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환경 탐색 중심의 기관 방문에 그치지 않고 협력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바자회를 실시하여 두 기관에 재원중인 보호자들 간의 교류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 기관에 재원중인 보호자도 이음교육을 통해 기관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관 간 협력의 바람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14

‘이’제 형님처럼 생각이 ‘음’(움)직이며 성장해요

전체 내용 보러가기

아모레퍼시픽오산어린이집

1. 영아-유아 이음교육의 필요성

1) 3세 교사의 어려움

발달과 놀이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3세반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유아들의 급식 지도, 놀이 방법 등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지원을 위해 유아들과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유아들은 특성이 달라 개별적인 지도와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특성과 개인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지도하거나, 연령과의 연계 없이 지도하기도 한다. 또한 영유아 대 교사 비율 차이로 일과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자조 기술과 생활 습관 형성의 개별적 차이로 유아반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느끼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속에서 단절 없는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 실수해도 괜찮다는 환경 속에서 시도하고 경험하며 유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스스로 조절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영아-유아 이음교육이 필요하다.

2) 영아-유아의 발달 지원 방향

영아의 일상생활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진다. 신체,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이 이루어져야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조 기술이 발달하므로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두르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 시기에 장시간 기관에 머무는 영아에게는 일상생활이 학기 초 적응 기간에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과업이 아니라, 양질의 경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아반에서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준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 수준에 맞춘 근접발달 영역의 놀이를 통해 영아들은 도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자신감을 얻게 되어 영아들이 새로운 해결과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임하게 된다. 이는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문제해결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형성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2세가 지나면서 영아는 자율성 및 신체 조절 능력의 발달을 토대로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자조 능력이 발달되므로 연계 시점에 따라 적절한 준비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음교육 사례

1) 식사 공간에서의 경험

영아기에는 의자 사용과 식사 도구를 활용해서 즐겁게 먹어보기를 주로 했다면 유아기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먹기, 식사 도구 바르게 사용하기, 내 자리 정리하기 등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어보며 기본생활습관을 확장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기에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영아기부터 지원해주며 성장할 수 있는 이음 교육이 필요하므로 식사 공간을 경험하며 스스로 실천하는 식사와 관련된 교육 사례를 생각해보았다.

01 올바른 식사 예절 형성 지원

이음의 발견과 배움의 실행 지원

1-1) 바른 자세로 앉는 방법을 배워요

식사를 하던 영아들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다리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의자를 움직여 친구에게 가까이 앉게 되니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의자를 뒤로 밀다가 친구와 부딪히기도 하였다.



바르게 앉지 않은 영아



책상에 부착된 내 사진



바른 자세로 식사하기

다리를 옆으로 하면 친구와 식사하는 손이 부딪힐 수 있고 친구가 식사를 방해받아 불편할 수 있어. 바르게 앉으면 소화도 잘 될 거야. 그리고 음식을 바닥에 흘리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앞에 보고 앉으면 돼요? 어, 여기 내 사진처럼 앉아볼게요.

OO 사진처럼 바르게 잘 앉았네~ 앞으로 우리 밥 먹을 때 바른 자세로 앉아 보도록 하자.

교사의 지원 및 기대효과

바르게 앉아야 소화가 잘 되고, 음식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며 옆 친구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더불어 책상에 영아들이 바르게 앉아 있는 식사 하는 사진을 부착하여 영아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모델링하여 식사 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주었다.

공간	바른 자세로 식사를 하고 친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식사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자료	식탁 위에 바른 자세로 앉은 영아의 사진을 부착하여 식사 중 자연스럽게 접하고 자신의 모습이 모델링 되어 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책상에 부착된 본인 사진이 동기가 되어 바른 자세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이음의 발견과 배움의 실행 지원

1-2) 내가 흘린 음식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요




식사 중 떨어진 음식




식사 정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영아

숟가락 포크는 식사 도구 사진 앞에, 음식은 음식 사진 앞에 정리하면 돼!

내 의자도 나왔으니까 책상 안으로 쏙~ 넣어야 친구들이 부딪히지 않아!

떨어진 음식 두고 가면 벌레들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먹으러 온대. 내가 주워서 정리해야겠다.

교사의 지원 및 기대효과

식도구 사용이 미숙한 상태로 식사를 하게 되니 주변에 음식물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먹은 식판을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자립심을 형성하고 나의 식사 자리는 내가 정리한다는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자신이 이용한 자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리정돈 습관을 길러보았고, 떨어진 음식을 닦아봄으로써 눈과 손의 협응력 향상 및 자조 능력 또한 발달되었다. 따라서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잘 준비되어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하는 등의 건강하고 청결한 습관 형성 및 유지가 가능하다.

공간	**깨끗한 식사 장소를 제공**하여 식사 공간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분리된 **식사 정리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시간	정해져 있는 식사시간 동안 즐거움을 느끼며 식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식사시간을 제공**하였다.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 영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정리하기 쉽도록 식사 **도구/식판/잔반 정리 통 앞에 실물 사진 자료를 부착**해주어 위치에 맞게 정리해볼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하였다.
안전	정리할 때 발을 찧지 않도록 **의자 바닥 부분에 마감처리**를 해주었고, **영아의 손이 닿는 안전한 위치에 휴지를 비치**해주었다.

02 식사 도구로 바르게 먹기

이음의 발견과 배움의 실행 지원

2-1) 식사 도구를 올바르게 잡는 방법을 배워요

식사 도구를 바르게 잡지 않아 입에 넣기 전 흘리게 되거나 장난을 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바른 식사 도구 사용을 알려주자 집중력이 높아지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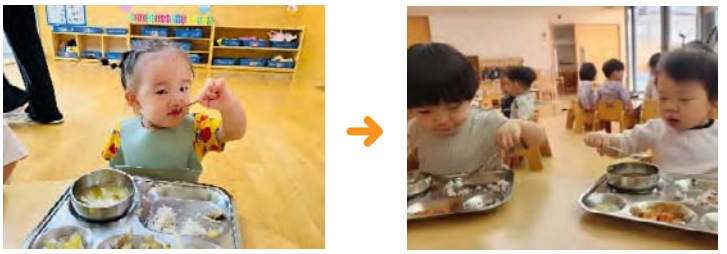
OO이가 숟가락을 이렇게 잡으니까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입속으로 쏙 들어갔네!

포크를 잡고 몸이나 팔을 움직이면 친구가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자.

이음의 발견과 배움의 실행 지원

2-2) 흘리지 않게 조심하며 먹는 방법을 배워요

턱받이 없이 하는 식사는 "나의 식사시간은 내가 책임져요."하는 독립심을 기르는 첫 시작이다. 턱받이를 빼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 팔의 움직임을 뜻대로 조절하였고, 자기 주도적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성과 식사 예절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턱받이 하지 않고 밥 먹어볼까?

턱받이는 바닥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바닥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상 앞으로 몸을 붙이고 식판을 가까이 두고 앉아야 해. 바르게 먹는 방법을 연습해볼까?

교사의 지원 및 기대효과

교사는 식사 도구를 바르게 쥐는 방법과 같은 식사 도구 사용법을 말과 행동으로 시범을 보이며 영아가 시도해보도록 격려하였다. 자율성이 발달 되어 스스로 식사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요리 활동, 글씨 쓰기처럼 더 복잡한 동작에 필요한 근육을 발달시켜 올바른 필기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 식사 도구를 사용하며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자아 존중감과 독립심 발달에 중요하므로 유아기 학습의 기초가 된다.

시간	**숟가락, 포크 등 식사 도구를 탐색하고 활용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자료	다양한 식기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숟가락, 포크, 젓가락, 컵 등을 제공**해주었다.
안전	**뾰족하다는 특징과 위험성**을 알려주며 장난치지 않아야 함과 **위생적 안전을 위해 나의 식사 도구를 사용하고 개인 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미술 공간의 경험과 지원

감성과 창의력을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미술 영역이다. 놀이를 통해 미술 도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도 익히고, 놀이 후 정리 방법을 한 단계 더 익히게 되면 주변 사물에 대한 탐구 능력 발달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기본생활습관 형성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색칠 도구 탐색, 미술활동판 사용을 통한 정리정돈의 이음 교육 사례를 생각해보았다.

01 색칠 도구의 사용법

이음의 발견과 배움의 실행 지원

미술 영역에 있는 색연필, 사인펜, 매직 등 다양한 색칠 도구를 탐색하였다. 도화지 위에 그려 다양한 도구의 색깔, 펜의 굵기 등 특성에 대해 알아보며 그리기를 이어갔다.





선생님 이것 봐! 길어졌어요!

이건 뚜껑이 있는 거야!/이건 뚜껑이 없어서 자꾸 손에 묻어!





색연필과 풀을 너무 길게 돌려서 사용하면 그림 그릴 때 부러지니 필요한 만큼 사용하려면 모양을 한 바퀴 돌려서 맞춰보자.
다시 정리하고 싶을 땐 반대로 돌려서 모양을 맞춰주면 쏙 들어가네!

빙글빙글~ 색연필/풀 나왔다! 이번엔 반대로... 정리 끝~

교사의 지원 및 기대효과

다양한 미술 도구의 비슷하면서 다른 특징들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아보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규칙을 지키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조절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미술 도구의 사용법을 알게 되니 새롭게 접하는 도구의 경우에도 스스로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미술 도구에 대한 호기심도 높아져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력 발달**에 도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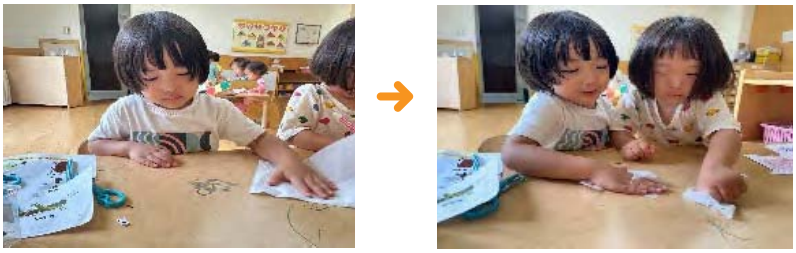
공간	미술 영역에 미술 도구를 탐색할 수 있는 **책상, 의자를 배치하여 공간을 확보**해주었다.
자료	색칠 도구 탐색 중 길게 잡은 색연필이 부러져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돌리는 부분에 모양 스티커를 부착해주었고 한 바퀴 스티커 모양을 맞추며 적당한 길이만 사용하도록 알려주었다.
안전	길쭉한 모양의 미술 도구는 휘두르거나 입에 넣지 않도록 **영아 간 간격을 확보하고 교사의 관찰 하에 활동**을 하였다.

02 미술 도구의 특성

이음의 발견과 배움의 실행 지원

2-1) 미술 도구의 특성을 배워요

영아들이 미술 영역에 있는 사인펜을 가져와 색칠을 하던 중 집중하다 보니 책상까지 사인펜이 묻기 시작하였다. 놀이 후 주변에 묻은 사인펜을 휴지로 닦아보려고 하였지만 잘 닦이지 않아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지우기 도구를 제안하며 잘 닦이는 특성의 물건을 알아보았다.



잘 지우려면 물이 묻은 걸로 닦으면 돼! 그런 물건이 뭐가 있을까? 음 물티슈!

잘 지워지려면 또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비누요! 비누도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책상도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이음의 발견과 배움의 실행 지원

2-2) 미술활동판 사용 방법을 배워요

지우기 어려운 미술 도구를 활용해 놀이할 때 책상에 묻히지 않고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영아들에게 미술활동판을 사용해보기를 제안했다. 놀이 후 책상에 묻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해하고 추후 놀이를 위해 미술활동판에 묻은 색칠 도구를 물티슈를 활용해 닦아 정리하며 마무리하였다.



색칠 도구를 그냥 사용하면 책상에 묻을 수 있지만 미술활동판 위에서 색칠을 하면 책상에 묻지 않게 놀이할 수 있단다.

색칠할 때 미술활동판을 가지고 와서 색칠하면 되겠네요? 우와 묻은 건 물티슈로도 잘 지워져요.

교사의 지원 및 기대효과

미술활동판은 물감, 사인펜 등을 이용한 활동을 할 때 책상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책상에 접착제가 묻어 활동을 방해하여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까지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다양한 미술 도구를 활용해 창의성을 펼치고**, 미술을 하고 일어난 자리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자조적인 기술을 형성**할 수 있었다.

공간	미술 영역에 **미술활동판 보관 공간을 마련**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원해주었다.
시간	미술활동판으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한 창의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미술 활동의 시간적인 부분을 늘려**주었다.
자료	**충분한 크기와 영아들의 인원수에 맞는 갯수의 미술활동판을 제공**해주고, **지우기 물건도 다양하게 비치**해주었다.
안전	미술활동판의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워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자르고 마스킹 테이프 처리를 한 뒤 제공**하였다.

3. 영아-유아 이음교육 가정연계

1) 가정 연계의 중요성

영아기에서 유아기로의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발달과 학습의 흐름을 지원하고 이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가정과 교육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보다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 특히나 바른 기본생활습관 확립을 위해 원과 가정에서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와 지지를 제공하고 양육 및 교육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하면 습관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고, 일관성과 규칙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다. 심리적 안정과 신뢰감도 경험하고 자존감, 자기효능감, 사회성 등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정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2) 원-가정 연계의 실천 사례

바른 식습관 포스터를 제작해 가정에 배부하고 실천해보았다. 포스터를 배부할 때 영아 개개인의 개선 전·후 사진, 가정 연계의 중요성 파일을 함께 배부하여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영아들의 사진을 제공해 바른 자세, 옳지 않은 자세를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가정에서 부모님께 바르게 쥐는 방법을 실천해 보여주며 크게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스스로 식사를 시도하는 빈도도 연계 활동 전에 비해 높아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가정에서의 일관된 실천으로 원에서 일과를 보낼 때에도 점차 익숙한 모습으로 기본생활습관을 갖추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가정 배부 포스터〉



〈가정에서의 실천〉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보육과정 실행으로 이음합니다. 이음교육이 연간 보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에서 영아와 유아 간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고 적용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보육과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식사시간과 미술도구 사용에서 각 영역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육과정 계획자 및 실행자로서 교사 역할을 살펴볼 수 있으며 영유아의 일상에서 이음 활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음 교육의 주체, 내용의 다양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행과정

보육과정 기반 일상 생활에서 이음합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에는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필요합니다. 손씻기, 제 자리에 앉기, 바르게 앉아서 먹기, 도구 적절히 사용하기, 음식을 골고루 먹기, 뒷 정리하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대소근육의 발달과 더불어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교사는 영아와 유아가 이를 서서히 단계적으로 경험하도록 합니다. 영아는 유아와 함께 식사하며 식사 태도와 위생 관련 경험을 하고 유아는 영아에게 안전과 위생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한 영아와 유아는 보육과정의 신체운동·건강영역의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이음교육이 영유아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실현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술도구의 사용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자료지원뿐 아니라 안전도 고려합니다. 교사의 이음교육 활동 지원은 활동의 진행에 필요한 공간, 자료 지원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영유아의 심리적 안정감, 안전사항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 앉을 자리에 사진을 붙여주어 자기 인식을 높여주고 포크 사용이나 미술 활동판 사용시 영아나 유아가 다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 공간을 확보하거나 자료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아와 유아가 함께 놀이할 때 유아반 교사는 영아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 사항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영아 유아 이음에서 각 연령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환경 마련의 바람직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 경험에서 자조기술을 익혀갑니다. 영아기에 비해 유아기에 교사의 도움이 줄어들고 유아들은 스스로 해내야 하는 대소근육 활동, 자조기술이 늘어납니다. 색연필 돌리기, 뚜껑닫기, 물 따르기 등은 일상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유아기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영아, 유아 이음의 방향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사례 15

이_손엔 동생이 있었고, 음_~하고 불어온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전체 내용 보러가기

일산동구청어린이집

1.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명

- 주제: 『이야기 따라, 톡! 쏙! 반짝통!』_만 2~3세 그림책 이음놀이 프로그램

2) 활동과정

- 실시 기간 : 2024년 4월~ 계속
- 활동 대상 : 만 2세(12명), 만 3세(11명)

3) 활동단계 및 활동방법



활동내용

– 그림책 주제 만나기	– 이야기 상상 표현하기	– 생각 나누며 소통하기	– 놀이로 함께 참여하기

교사지원 및 환경구성

– 수준에 맞는 책 선정 – 이야기 나눔 분위기	– 열린 질문 상상자극 – 연장활동 자료준비	–친구말 귀 기울이기 –생각 나눔 시간 마련	–자연놀이, 신체표현 –협동활동 자료 구성

기대효과

– 공통흥미 형성하기	– 상상표현력 키우기	– 사고존중태도 기르기	– 공동체의식 경험하기

2.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만 2세는 감각통합이 활발한 시기로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형성된다. 만 3세에 이르러 언어·사회성·인지 능력이 확장되며 탐색과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므로, 이 시기의 교육은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한다. UNESCO ISCED(2011)는 0~2세와 3~5세 교육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2024년 유보통합 계획에서도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음교육은 유아·교사·가정·지역이 협력하여 발달 전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감각·상상·관계 중심의 그림책 활동을 통해 만 2세와 3세가 함께 참여하며 연령 간 상호작용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프로그램의 목적

- 정서적 안정과 언어적 표현력 증진
- 연령 간 상호작용 경험 제공
- 창의성과 탐색 중심 놀이 확장
- 이음 교육 실천 모델로서의 가능성 제시

3. 프로그램의 실제 : ■『이야기 따라, 톡! 쏙! 반짝통!』 연간교육 계획안

2024년도 이음교육 프로그램 계획안

월	주 제	선정 동화		만 2, 3세 이음 활동 방향	지역·가정연계활동
24년 4월	함께 시작해요!		울지 말고 말하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다룬 동화를 통해, 만 3세는 동생의 감정을 공감하며 말로 표현하는 모델이 되고, 만 2세는 언어적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감정 이해와 표현의 경험은 유아 간 정서적 소통을 촉진하며 관계 맺기의 기초를 다지는 이음으로 작용한다.	오늘 느낀 기분을 말이나 그림으로 함께 표현해요 지역) 동네 이웃이나 상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고, 주변 환경을 살펴보아요.
24년 5월	봄처럼 물들어, 같이 자라요!		섞어봐! 새로운 색깔의 탄생	색이 섞이며 새로운 색이 만들어지는 동화를 통해, 만 3세는 다양한 표현을 존중하며 사고를 확장하고, 만 2세는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 어울림의 경험을 안정적으로 수용한다. 다름을 수용하는 과정은 유아 간 사회적 조화와 연령 간 관계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이음을 형성한다.	색을 섞으며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야기 나누기 지역)마트의 채소코너에서 다양한 색깔을 찾아보기
24년 6월	혼자도, 함께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스스로 해보는 도전의 가치를 담은 동화를 통해, 만 3세는 도전과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만 2세는 형님의 모습을 통해 자립에 대한 흥미를 갖는다. 서로의 시도와 격려가 오가는 상호작용은 자율성과 관계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음으로 이어진다.	생활 속 작은 일에 스스로 도전해보고 함께 격려해요 지역) 공공 놀이터에서 다른 사람과 순서를 지키며 놀이해보아요

24년 7월	숲길따라, 자연과 이어져요!		숲 속을 걸어요.	자연을 통해 아이들은 감각적 표현, 자연을 대하는 태도, 말과 행동을 관찰하며 자연과의 연결을 확장해 간다. 자연-감각 이음(자연과 오감을 연결)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자연을 대하는 태도, 말이나 행동을 연결하여 자연과의 연결을 확장해 사는 방법을 배워본다.	산책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떠오른 생각을 나눠요 지역) 숲길을 담은 그림 전시 관람을 통해 자연 느끼기
24년 8월	여름밤 이야기 톡톡!		달 샤베트	무더위를 나누는 상상 이야기를 통해, 만 3세는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만 2세는 반복적인 장면 속 감정에 공감하고 안정감을 느낀다. 감정과 상상을 공유하는 경험은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이음의 기반이 된다.	밤의 풍경을 함께 보고 느낀 감정을 표현해요 지역)공원의 자연을 느끼고 주변환경을 함께 가꾸어요.
24년 9월	함께 나누는 맛있는 시간		호랑이의 파티 대소동	친구를 초대한 호랑이의 파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사회성, 질서, 배려를 배울수 있다. 규칙-행동 이음 (약속을 지키는 태도) 사회적 기술, 예절, 감정조절을 함께 배워 갈 수 있도록 한다.	함께 지킬 약속을 정하고, 약속을 지킨 하루를 이야기해요. 지역)마트에서 함께 장보기 및 예절 지켜보기
24년 10월	가을 빛 속에, 함께 물들어요!		가을이 오리	계절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동화를 통해, 만 3세는 자연의 변화를 인식하고 말로 표현하며, 만 2세는 자연물과의 만남을 통해 계절 감각을 형성한다. 함께 느끼고 관찰하는 경험은 자연과 또래 간 관계를 연결하는 이음으로 작용한다.	산책하며 계절 변화를 관찰하고 가을 느낌을 나눠요. 지역) 동네 산책로에서 가을 풍경 관찰하고 계절 변화 이야기 나누기
24년 11월	함께 조심! 같이 지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 조심!	일상생활 속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주도록 한다. 생활-안전 이음(일상 속 행동과 안전 규칙 연결)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안전 의식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되도록 한다.	길을 걸을 때 지켜야 할 약속을 함께 이야기하고 실천해요. 지역) 도서관, 병원 등에서 기본 질서나 예절 실천해보기
24년 12월	따뜻함을 나누며, 이어지는 겨울		장갑	추운 겨울 작은 장갑 안에 여러 동물들이 차례로 들어가 따뜻함을 나누는 이야기로 나눔-공존 이음 (같이 쓰는 즐거움과 질서)를 느낄 수 있다. 나 혼자에서 함께로 전환하며 공존의 감각을 행동으로 연결하여 사회성, 배려심, 질서 감각을 키워보도록 한다.	집에서 따뜻한 행동을 실천하고, 서로 칭찬해 주세요. 지역) 동네 이웃에게 인사를 나누거나, 기부함 참여 등으로 지역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요.
25년 1월	겨울 놀이로 다시 이어져요!		같이 놀래?	함께 놀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만 3세는 놀이 규칙을 설명하고 초대하며, 만 2세는 형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놀이에 자연스럽게 참여한다. 놀이를 매개로 한 관계 형성은 사회적 소통을 확장하는 이음으로 작용한다.	함께 놀이 규칙을 정하고, 즐겁게 지켜보며 놀아보세요. 지역) 공원에 쌓인 눈을 함께 모아 치우며 주변을 정리해요.
25년 2월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이어요!		코딱지가 보낸 편지	다양한 신체 속 이야기를 통해 위생-습관 이음(청결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연결한다. 만 3세는 신체 명칭과 위생 습관을 언어로 표현하며 동생에게 모범이 되고, 만 2세는 감각적 탐색을 통해 청결과 자기관리를 익힌다. 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험은 위생-습관 이음으로 확장된다.	고마웠던 일을 함께 떠올리고, 편지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지역) 편지함, 우체국 등을 함께 방문하며 마음을 전하는 경험을 나눠요.

*본 자료는 연간 계획안 중 대표적인 2개 활동만을 발췌 · 제시하였습니다.

4. 프로그램의 실제 : ■ 『이야기 따라, 톡! 쏙! 반짝통!』: 세부 활동 계획 대표 사례

[활동 1] [동화_섞어봐!] 알록달록 놀이터
기 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알 로 록 달 로 록

섞어봐! 섞으면 어떤 색이 될까?
색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색의 혼합을 알아보는 재미있는 책을 동생반과 형님반이 함께 읽어보았어요.
우리도 색을 섞어볼까?



알록달록 놀이터에서 형님 유아들이 물감 놀이를 즐기며 감각을 탐색했어요.
"나는 손바닥에 안 묻히고 싶은데" 하는 동생에게
"그럼 내가 먼저 해볼까?" 먼저 [시범]을 보여주어요.
형님과 동생이 함께하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었어요.

커다란 전지 위에 손바닥 도장을 꾹 찍어보았어요.
손 크기를 비교하고 색깔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며 **[서로의 차이]**를 느껴보았어요.
손바닥 크기 비교와 색 표현을 통해 형님과 동생이 서로를 이해하며 정서적 유대와 언어적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손을 맞대고 문질문질 색을 섞어보며 색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니까 진짝 주황색으로 변했어!"
색이 바뀌는 모습에 신기해하던 유아는
"그럼, 주황색이랑 초록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될까?"
하며 새로운 조합을 상상해 보았어요.

색이 섞이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감각적 호기심을 해소하였고, 이후 손바닥 표현으로 이어지며 서로의 감각을 존중하고 **[예술적 상상과 발달적 연계를 하나의 공동 경험으로 확장]**해 나갔어요.



이음 POINT
- 형님과 동생들의 협력
- 색 조합 통한 감각 탐색
- 정서적 유대 형성 확장
- 감각 공유 통한 즐거운 만남

[활동 2] [동화_섞어봐!] 원색 DAY
기 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형님과 동생이 함께한 색깔 이음 놀이의 확장으로 **[원색 DAY]** 가 진행되었어요.
유아들은 가정에서 준비한 원색 의상을 입고 등원해 서로의 색을 관찰하고, 색을 분류하거나 짝지으며 함께 신체 게임을 즐겼어요.
형님과 동생이 함께 만든 놀이는 어떤 모습일까?

초대장 만들기



원색 DAY를 앞두고 형님 유아는 동생 유아를 초대하기 위한 초대장을 직접 제작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연령 간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유아 간 자연스러운 **[기대감, 소속감,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에 맞춰 유아들이 빨강, 노랑, 초록 등 원색 의상을 입고 등원하였고, 같은 색 중심으로 형님반과 동생반이 짝을 이루어 팀을 구성했어요.
"나랑 똑같은 색이네!", "우리는 초록 팀이야!"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색에 대한 흥미와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되었어요.

원색 놀이



형님반과 동생반 영유아가 짝을 이루어 신체 놀이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협동**하고 **상호작용**했어요. 동작을 이끌고 따라 하는 과정에서 **신체 조절력**과 **사회적 협응력**이 발달하는 이음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이음 POINT
- 형님 동생으로 확장된 경험
- 초대 과정에서 배려심 확장
- 색 경험을 신체적 확장
- 역할 놀이로 사회성 확장

[활동 3] [동화_숲속을 걸어요] 숲길 따라 마음 따라
기 간 2024년 7월 1일 ~ 7월 31일



만 2세와 **만 3세**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림책 속 숲길 모험
<숲속을 걸어요> 그림책을 함께 읽어본 뒤, 동생반 교실에는 신비로운 숲길이 생겨났어요!
이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형님과 동생의 마음이 이어지는 이음의 길이였어요!



그림책 속 그림들이 숲길 곳곳에 등장하자 멈춰 서서 함께 관찰하고 이야기 나누었어요. "어? 이건 책에서 봤던 부엉이다!" "부엉이가 어떻게 우는지 알아? 부엉부엉~" 형님의 설명에 동생들도 "부엉부엉~"하며 소리를 흉내내요. "이거봐! 여기 책 속 친구가 숨어 있었어!" 이야기와 아이들의 **재미있는 상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음 POINT
- 이야기와 상상력과 연계된 확장
- 형님과 동생반에서 사고력 발달
- 자연 탐색으로 감각 자극
- 동화 활동으로 표현력 강화

구불구불 길을 따라가면 무엇이 나올까? "사뿐사뿐 걸어야 해." **[규칙]**도 잘 지킬 수 있어요. 숲을 걷다가 들리는 새소리에 집중해 보고, 숲의 요정처럼 든든한 형님들과 **[협력]**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골판지 숲길은 커다란 스케치북으로 활용되었어요.

[활동 3] [동화_숲속을 걸어요] 숲길 따라 마음 따라
기 간 2024년 7월 1일 ~ 7월 31일

그림책에 어떤 동물들이 나왔었지?
동화 내용을 회상하면서 동화 속에 등장한 동물들이 되어보았어요.
"뻐꾸기는 숲속의 가수라고 했는데! 나는 뻐꾸기처럼 노래해야지"
동물들의 특징을 떠올리며 **상상을 통해 그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너는 어떤 동물 할 거야?"
"나는 부엉이 하고 싶어"
"나도 부엉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내가 부엉이 해.
내가 다른 거 할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은 **[양보]**와 **[배려]**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 리 들 의 음 악 회







숲속에서 나는 소리를 악기로 표현해 보았어요.
딱따구리는 탬버린으로 빨고 빠르게 연주하고 부엉이는 부엉부엉 피아노로 아름답게 연주해요.
숲속에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는 윈드 차임으로 찰랑찰랑 소리내 보았어요.





이음 POINT
- 동물 소리 표현으로 상상력 강화
- 악기 놀이로 협동력 확장
- 자연 소리 탐색으로 감각 통합
- 형님들과의 협력과 경험

큰 소리로만 연주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아닌 소음이 될 수 있어요. 동생반과 형님반의 연주가 **[조화]**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연주했어요. 또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예술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5. 프로그램의 실제 : ■ 『이야기 따라, 톡! 쏙! 반짝통!』 : 가정 / 지역사회 연계 이음활동

가정 연계 및 지역사회 연계 이음





5월 가정 연계



가정에서도 물감을
활용한 놀이를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을
반복하며 탐색하고,
색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표현력을 더욱
깊이 있게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7월 가정 연계



가족들과 가벼운
숲속 산책을 하여
계절의 아름다움과
숲의 소중함을
느껴보았습니다.
숲을 오래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5월 지역사회

동네 마트를 방문해
다양한 색을 가진 채소, 과일을
찾아보았습니다.
색활 속에서 색을 찾아보고
연결하는 경험을 통해
색에 대한 이해도를
너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7월 지역사회

숲, 나무 등
자연 환경을 담은
그림 전시회에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된 자연을 감상하며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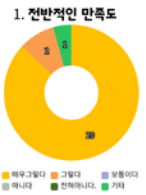
6. 프로그램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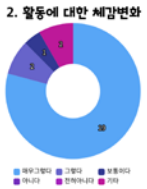
영 · 유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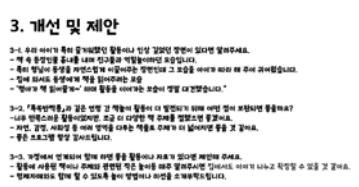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2세와 만 3세 유아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놀이를 통해 발달의 연속성과 자기주도성을 경험하였다. 형님은 동생을 이끌며 배려와 책임감을 기르고, 동생은 형님의 행동을 모방하며 자신감을 형성하였다. 이야기와 자연물, 감각 자극을 활용한 놀이를 통해 표현력과 감각 통합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유아는 놀이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확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학부모 평가









총 23명의 학부모 중 96%가 활동에 만족을 표했으며, 유아의 놀이 참여와 또래 관계 변화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가정에서도 놀이가 이어졌다”, “형님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본 활동은 가정과 기관을 잇는 이음교육의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교사 평가

이번 이음교육은 유아 간 상호작용을 넘어 영·유아반 교사 간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기획·실행된 공동 실천 사례였다. 두 반 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놀이 반응을 공유하며 동화를 중심으로 연령 간 연결 방안을 모색하고, 각 연령에 맞는 접근을 조율해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고 놀이 특성을 존중하며 협력적 운영 능력과 놀이 중심 교육 역량을 높였다. 또한 동화를 감각·자연·예술로 확장하며 통합적 시각을 넓히고, 전문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이야기 톡! 쏙! 반짝통!」은 동화를 매개로 만 2세와 만 3세가 함께 참여해 자연 탐색, 이야기 표현, 감각 예술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인적 발달을 실현한 이음교육 사례이다. 형님과 동생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연령 간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혼합반 운영의 실제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책과 놀이가 가정에서도 이어지며 부모와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유아의 놀이 경험이 생활 속으로 확장되어 교육의 지속성과 의미가 강화되었다. 또한 숲길, 놀이터, 실내활동실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본 활동은 사진과 기록으로 공유되어 교사 간 확산이 용이하며, 이음교육의 핵심 가치인 ‘유아–교사–가정의 연결’을 실천한 확장 가능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마음을 읽는 전문가의 해석

계획

2세와 3세의 보육과정을 연계합니다. 표준보육과정의 2세 내용과 3세의 누리과정 5개영역을 비교하여 2세와 3세의 이음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이음교육이 보육과정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또한 2세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감각·반응 중심, 3세는 사고·상호작용 중심으로 참여합니다.

그림책 경험을 놀이로 이음합니다. 2세에서 3세의 발달적 진전이 감각적 탐색에서 상상과 사고, 표현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반영하여 그림책 경험을 토대로 영유아간 이음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행과정

동화로 마음을 열고 재미있게 경험합니다. 영아와 유아의 만남은 동화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마음을 열고 경험 공유를 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입니다. 실행과정에서 동화내용에서 확장하여 색을 섞어보고 색깔에 맞는 옷을 입어봅니다. 또 다른 동화를 듣고 숲길도 만들어봅니다. 새소리를 악기로 표현해보고 숲에서 자연물과 친숙해집니다. 새로운 경험은 두려움과 망설임을 주기도 하지만 영아의 망설임은 유아의 시도와 권유로 흩어집니다. 영아가 용기를 내 도전합니다. 함께 색을 섞고 소리를 만들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음교육은 함께 하며 즐거움을 공유하는 가치가 있고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음 교육 경험을 가정과 지역으로 넓혀갑니다. 영아와 유아가 함께한 놀이가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놀이 과정을 가정에 안내합니다. 가정에서는 유아 경험을 이어 어린이집 교사와 공유합니다. 교사는 유아의 경험을 지역사회 연계로 확장합니다. 개별적으로 분리된 놀이가 아닌 이음교육의 연결성을 나타냅니다.

이음 교육 실행을 잘 들여다봅니다. 이음교육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여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영아들은 이음교육으로 연속성과 주도성을 경험하고 유아들은 책임감과 배려심을 경험하고 이야기에 기반한 감각적 경험으로 언어, 사회성, 예술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경험합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이음교육에 신뢰감을 보이고 교사들은 연령 간 연결 방안에 대한 계획과 조율과정을 잘 이끌어내며 전문성있는 공동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음교육은 협력적 공동체 기반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 전문가의 해석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이혜경 교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기 획 홍원자(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도은(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집 필 이혜경(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사례제공
(영아-유아 이음교육 사례 공모전 수상기관)
9사단에버나인어린이집
고산어린이집
고양시립대화소망어린이집
고양시립삼송어린이집
관양어린이집
국공립강상어린이집
산새소리어린이집
시립금강초롱꽃어린이집
시립서광교파크스위첸어린이집
시립은계2어울림어린이집
시립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
시립풍경어린이집
시흥수정어린이집
아모레퍼시픽오산어린이집
일산동구청어린이집
※ 어린이집 가나다 순

함께 잇는 성장
영아♥유아 이음교육

인 쇄 2025년 12월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발행인 홍원자
주 소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전 화 031-258-1485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저작권법에 의해 본 사례집의 내용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함께 잇는 성장

영아♥유아 이음교육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GYEONGGIDO SUPPORT CENTER FOR CHILDCARE